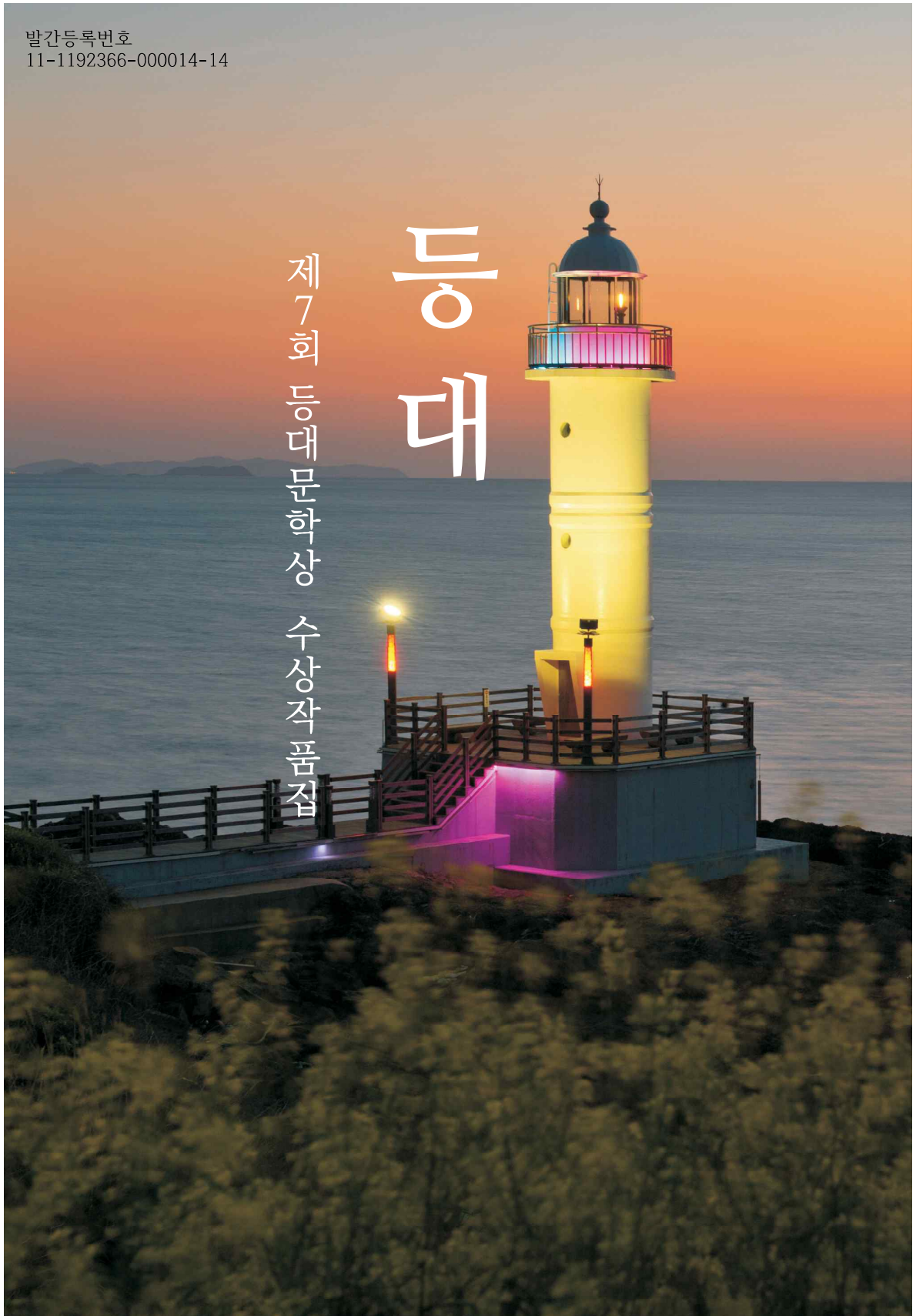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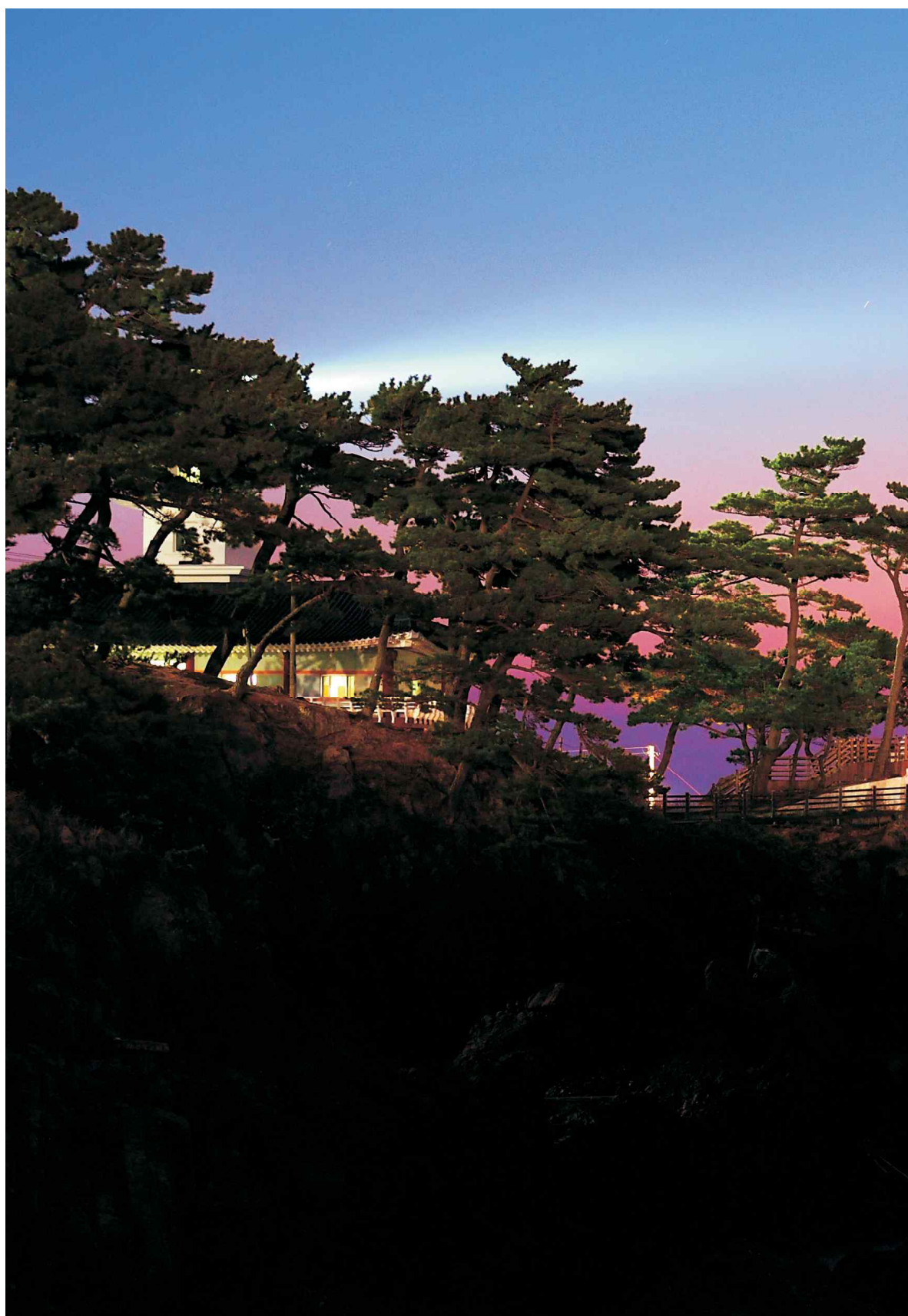


발간등록번호
11-1192366-000014-14

등대

제7회 등대문학상 수상작품집





Contents

발 간 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4
축 사	울산항만공사 사장	6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원장	8
심 사 평	소설 최성배	10
	시 김송배	11
	수필 권대근	12
대 상	시 이회경	바다 설계사	18
최우수상	소설 양혜영	늙은 어부의 등대	22
	수필 김정예	내 마음의 빨간 등대	46
우 수 상	시 이영숙	간절곶	56
	시 최선주	울기등대를 찾아왔다	58
	시 김진순	등대와 등대 사이에 문이 있다	60
	소설 윤재민	고래 사냥	64
	소설 박남규	등대와 밍크고래	86
	소설 최인호	유형의 섬	108
	수필 정경숙(정수연)	밸러스트	138
	수필 김미자	굽은 등대	144
	수필 유명숙	던짐줄	152

문학의 바다를 향해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한 등대문학상!

매년 등대문학상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바다와 등대, 사람, 삶 등으로 비슷하지만, 등대문학상을 통해 전해지는 우리네 이야기는 바다의 역동성과 심연의 오묘함처럼 더 크고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바다는 각각 다른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바다이고, 누군가에게는 탐험의 세계일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삶과 인생의 터전이자, 희로애락의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등대문학상은 이러한 바다의 모든 이야기를 비추는 등대이고자 합니다. 특히 해양문학이라는 지평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등대문학상의 바탕에는 바다에 대한 더 넓고 깊은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상상과 허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들과 실재(實在)하는 우리의 현실이 마치 씨줄과 날줄처럼 얹혀 우리의 미래까지 조명(照明)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제7회 등대문학상 공모전에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작품마다에 투영된 바다를 보면서 바다가 우리의 일상적, 보편적 공간이자 역사와 삶, 그리고 철학과 영혼의 터전임을 확인할 수 있어 더없이 기뻐했습니다. 이는 열린 바다 혹은 넓은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등대문학상의 근본적인 취지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아깝게 당선되지 못하신 분들께도 더 큰 응원의 박수와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등대문학상은 바다와 같이 열려 있고, 바다처럼 깊어지고자 합니다.

바다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7회 등대문학상 공모전에 많은 응원과 도움을 주신 한국문인협회, 울산문인협회, 울산항만공사,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의 모든 관계자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6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유 상 준



■ 축 사

어스름을 밝혀줄 환한 등대가 되길

먼저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이한 등대문학상 공모전을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더불어 바다를 향한 여러분의 열정을 한권의 책으로 엮어낼 수 있어 더욱 기쁜 마음입니다.

해양문학은 한 국가의 해양력이 가장 강력한 시기에 그 부흥과 번영의 꽃이 핀다고 합니다. 해가지지 않는 나라 영국을 만들에 낸 근간에도 로빈슨 크루소, 15소년 표류기와 같이 해양을 주제로 한 문학작품들이 있었고, 이는 성장하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바다에 대한 동경과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해양의 가치에 대해 그 누구보다 먼저 깨달았기에 과거 대영제국이란 이름으로 드넓은 대양을 지배했던 것입니다.

21세기의 바다도 다르지 않습니다. 신 해양시대를 맞아 항만과 해운의 가치는 여전히 강조되고 있으며, 강력한 해양력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지표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바다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시작으로 한진해운 사태를 거쳤고, 조선업은 기나긴 불황의 터널을 지나며 국민들로 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곤 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해운·항만인으로서 바다와 함께 살아온 저에게도 안타까운 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번 수상 작품집이 긴 시간 어려움을 겪은 해양인들에게, 우리의 바다에 실망 가득 했던 국민들에게 어스름을 밝혀줄 하나의 등대가됨과 동시에 해양문학이라는 한 장르가 굳건히 구축되길 소망합니다.

등대문학상 공모전이 어느덧 7회 차를 지나왔습니다. 그동안 등대문학상은

바다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하나의 장(場)으로 발전해 왔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자와 뛰어난 작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등대문학상이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 또는 작품'을 뜻하는 문학의 사전적 의미처럼 우리의 해양의식을 공유하는 문학을 통해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길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제7회 등대문학상 수상자 여러분들에게 축하드리며, 응모해주신 모든 분들과 수고해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 행사를 위해 함께 애써주신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기술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이 한권의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이 해양과 항만을 느끼고 경험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6일

울산항만공사 사장 **고 상 환**



■ 축 사

등대와 바다, 그리고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울산항 이미지 제고 및 일반 국민들의 바다에 대한 관심 유발로 해양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자 첫발을 내딛은 등대문학상 공모전이 어느덧 7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 공모전은 발전을 거듭하였으며, 나아가 해양문학의 발전을 위한 작품 창작의 길을 비추는 하나의 등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본 공모전의 수상자 여러분께 깊은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본 공모전에 참여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등대문학상 공모전의 소재는 등대와 바다입니다. 이는 등대와 바다가 인류 문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인류의 생존·발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채택한 소재입니다. 만약에 바다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이러한 전제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가정이지만, 우리 인류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등대가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 문명사의 대항해와 이로 인한 오늘날 인류문명의 융성함은 불가능하였을 것입니다.

바다는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받은 열을 조절해 골고루 분산시켜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풍부한 해산자원을 공급해주며, 지구정화작용을 하니 인류의 생존과 발전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해양 환경오염을 막아 바다를 청정하게 지켜야 하며, 바다라는 공모전 소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편, 안전항해를 위한 바다 길잡이 역할을 하는 등대는 인류문명의 발달사와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고대로는, 기원전에 오늘날 30층 빌딩 높이의 건축물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일컬어지는 이집트 파로스 등대는 알렉산드리아를 세계의 중심도시로 번영시켰으며, 중세에 세워져 현재까지 작동하는 가장 오래된 코프등대는 발틱해를 무대로 한자동맹의 상업을 꽃피웠으며, 가깝게 부산 영도 등대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횃불로서 그 역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류문명과 함께 발달해온 등대는 그 이미지가 평화, 안식, 영원, 감동, 추억의 상징으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등대라는 소재도 또한 중요한 이유입니다.

위와 같이 바다와 등대라는 공모전의 소재는 해양문학 뿐만 아니라 고대로부터 현대,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인류문명의 생존·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오늘 공모전 수상의 기쁨과 함께 우리 모두 마음속에 품고 실천해야 할 중요한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본 등대문학상 공모전이 더욱 성장하여 바다와 등대를 통한 해양문학의 발전과 해양문화 창달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깨끗한 바다, 안전한 바다를 가꾸어 가는 등대불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다시금 오늘 수상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6일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원장 박 계 각



■ 심사평

소설(小說)

밤바다에서 집어등을 켜 어선들 중에서 임자를 찾는 일은 수월치 않았다. 예심을 거쳐 올라온 15편을 되풀이 비교하면서 읽었다. 작품들의 배경과 인물들이 비슷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유의 지문이 있듯 작가마다 숨씨는 각기 다른 법. 소설은 사람살이의 자잘한 이야기다. 인물들의 삶이 짜여가는 동안, 내면의 식과 인과관계를 짚어 보았다.

「늙은 어부의 등대」는 옛 등대(도대)를 배경으로 타인끼리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엮어나갔다. 제주도 방언과 탄탄한 문장 구사로 인간성 회복을 설정한 수작이다.

「고래 사냥」은 도입부부터 주제로 들어갔는데, 가족과 고래잡이를 병치시켜 인물의 형상화를 현장 속에 녹여냈다. 문장은 다소 거칠었지만, 주제를 집요하게 밀고 나간 솜씨가 괜찮다.

「등대와 밍크고래」는 세태를 반영하고 술술 읽혀진 반면, 긴장감이 떨어져 흠결로 남았다.

「유형의 섬」은 편지 형식의 남녀 시점을 교차한 밀도 높은 문장으로 상징성을 강조하다보니, 서사의 본질이 떨어진 게 아쉽다.

선에 들지 못한 작품 중에도 아쉬운 대목은 있었다. 작품마다 장단점이 있기에 우열을 계량화하기가 어려운 게 소설이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은 장래성에 엄두를 두고 살폈다. 소설쓰기는 마라톤 경기처럼 긴 여정의 산물이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소설(小說) 심사위원 **최성배**

■ 심사평

시(詩)

현대시나 시조의 창작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대체로 표현된 언어의 조탁(彫琢)과 투영된 주제의 적절성에 많은 관심을 두게 한다. 이러한 관점으로 가려 모은 10편이 우선 우열의 대상이 되었으나 작품의 수준은 상당히 높았다.

작품의 제재가 바다나 그 바다가 생활터전인 관계로 어쩌면 소재와 주제가 단순한 생활체험일 수도 있었겠으나 이러한 한계를 초월하여 다양한 이미지와 지적인 주제로 형상화한 작품들에서는 우선 응모자들의 시적인 창조적 성향에 찬사를 보낸다.

대상으로 선정된 「바다 설계사」는 ‘뱃길을 탐독하는 등대’가 주된 화자(話者)로서 ‘수신호’를 보내거나 ‘등고선’을 그리면서 바다를 설계하는 시적 상황이나 전개 과정이 남다르다. 그는 결론으로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이 바다 사람들의 ‘나침판’으로 혹은 ‘좌표’로 형상화하고 있어서 공감을 흡인하고 있다.

우수상 「간절곶」에서 ‘기억을 지울수록 간절함이 있다’는 비유와 「울기등대를 찾아왔다」는 시조로 등대가 지켜보는 항구의 상황이, 「등대와 등대 사이에 문이 있다」에서는 ‘두 개의 등대를 닮은 연인이 된다’는 어조의 시법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

이 밖에 선에 들지 못한 작품들도 상당히 높은 예지력들이 뚜렷한 작품들이었음도 밝혀두면서 격려를 보낸다.

시(詩) 심사위원 김 송 배

수필(隨筆)

문학은 예술에 속하기 때문에 ‘격’을 요한다. 동양시법에도 ‘격’이 약하면 그 향기가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였다. 문학창작에서 ‘격’이라 하면 문학성의 향기를 의미한다. 수필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인간 본질에 대한 탐구와 이해다. 인간의 삶에 대한 미학적 해석이며 인문학적 접근이라고 하겠다.

본 심사위원은 어떤 문학적 장치를 활용해서 메시지를 미적으로 형상화할 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에 임했다. 예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필도 예술적 기법으로 주제가 하나의 형상으로 드러나고 있는가에 주목했다.

등대문학상에 출품된 작품들의 수준이 한결같이 높았다. 우리 수필이 이렇게 수준이 높아진 것은 이런 등대문학상 공모 제도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한다. 응모작의 무르익은 문학적 향내는 한국수필의 건강하게 지키고 선도하는 데 크게 기여하리라 믿는다. 무엇보다도 당선작 선정에 있어서 중점을 둔 것은 제재를 통해서 주제를 겨냥했느냐 여부다. 먼저 네 편의 우수작을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수필의 문학적 성취는 미적 진보, 그리고 치환의 원리를 통해 문학성을 견인했느냐에 달려 있다. 일단 수상작 네 편은 이런 관점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우수작인 <빨간 등대>는 형상과 인식의 복합체라는 문학의 정의에 부합할 정도로 사상과 철학 같은 정신적인 요소가 문예미학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 더하여 이 수필은 등대를 제재로 하고 있어, 문학상의 제정 취지에도 적합하였다. 수필의 최대 매력은 내면풍경을 문학적으로 묘사해서 보여주는 데 있다. 작가는 반성적 성찰을 통해 자신을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제재인 등대를 잘 활용하고 있다. 현재는 과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여기서 자신의 과거를 잃고 묻힐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회상을 하는 가운데서 자신을 찾아 바로 세우는 과정이 감동적으로 다가왔다. 등대가 주는 교훈을 자신의 삶에 빗대고 견주고 해서 얻어낸 지혜를 ‘마음에 빨간 등대를 심자’는 다짐으로 잘 승화시켜 내었다고 하겠다.

무엇보다도 빨간 등대의 의미를 발견,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해서, 주제 의식을 빛나게 한 것이 돋보였다. ‘입상진의’를 통해서 삶을 바로 보고 그 과정을 문학화하는 데 있어서 붉은 색을 잘 활용한 것은 당선자의 문학적 기량이 남다르다는 걸 나타낸 것이다. 제재와 철학적인 만남의 장을 열어주는 표층, 체험을 수사로 문학화하는 표층, 메시지를 자기만의 언어로 의미화 하는 담론 층의 치밀한 설계를 거의 완벽하게 반영한 수필의 중층구조가 가진 그 가공 할만한 힘 때문에 독자들은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수필을 읽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수작인 <밸러스트> 역시 자조문학인 수필의 특성을 문학적으로 잘 드러 내었다. 수필의 문학적 성취는 비유에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작가는 우리 삶을 바다를 표류하는 쪽배로 나타내고 있어 문학적 성취를 거머쥐었다. 배가 항해를 제대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균형을 잡아주는 ‘밸러스트’가 있어야 하는데, 수상자는 이런 원리를 자신의 삶에 견주어 잘 풀어내어서 문학성을 건인하는데 성공했다. ‘세월호는 우리 내면에도 존재한다. 평형수 대신 욕망으로 채워진 배는 적정선을 지키지 않으면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엇길로 나간 남편의 배신에서 찾아서, 여자의 일생에 묻은 슬픈 사연을 위대한 모성으로 잘 승화시켜 내었다.

<굵은 등대> 역시 형상화가 빛나는 작품이다. 굵은 등을 제재로 해서 한 가정의 반듯한 등대가 되고 싶어 했던 아버지의 험난한 삶을 문학적으로 잘 형상화한 이 작품은 ‘수필은 인간학’이라는 명제에 부합한다. 자신의 삶을 비춰주는 등대로 아버지의 굵은 등을 의미화하기 위해 가져오는 다양한 문학적 도구나 장치가 아버지의 삶을 위대하게 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이 수필은 감동을 자아낸다. 수상자의 손을 잡고 예식장을 걷는 아버지의 발걸음을 ‘곧게 자라라’는 몸말로 의미화한 대목은 이 수필의 압권이라 하겠다. 인간애의 정신을 주제 지향성으로 내세워서 한국적 정을 삶의 가락이 되도록 했다는 데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마지막 우수작으로 뽑힌 <던짐줄> 역시 문학원리인 비유를 통해 창작된 본격수필이다. ‘던짐줄’란 이미 제목에서부터 절반의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하겠다. ‘누구에게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어머니의 철학을 ‘바다’에서 뽑아낸 수상자는 어머니의 지난한 삶을 던짐줄로 잘 형상화해 내었다. 모성을 표백하는 수필류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의식과 삶의 형태를 글로써 변환시켜내야 하는 건 수필가적 인식이다. 이 작품이 주는 쾌미는 인생을 보는 작가의 넉넉한 여유와 긍정의 자세다. 당선자의 건강한 사유가 우리 한국 수필의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등대문학상 공모전에 수상하게 된 분들께 충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더욱 한국 수필 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란다. 수상자로 선정되는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다. 수상 이후에도 수상자에게 더욱 좋은 일이 있기를 기대한다.

수필(隨筆) 심사위원 권대근

수상작품

대 상 시(시조) 이회경 바다 설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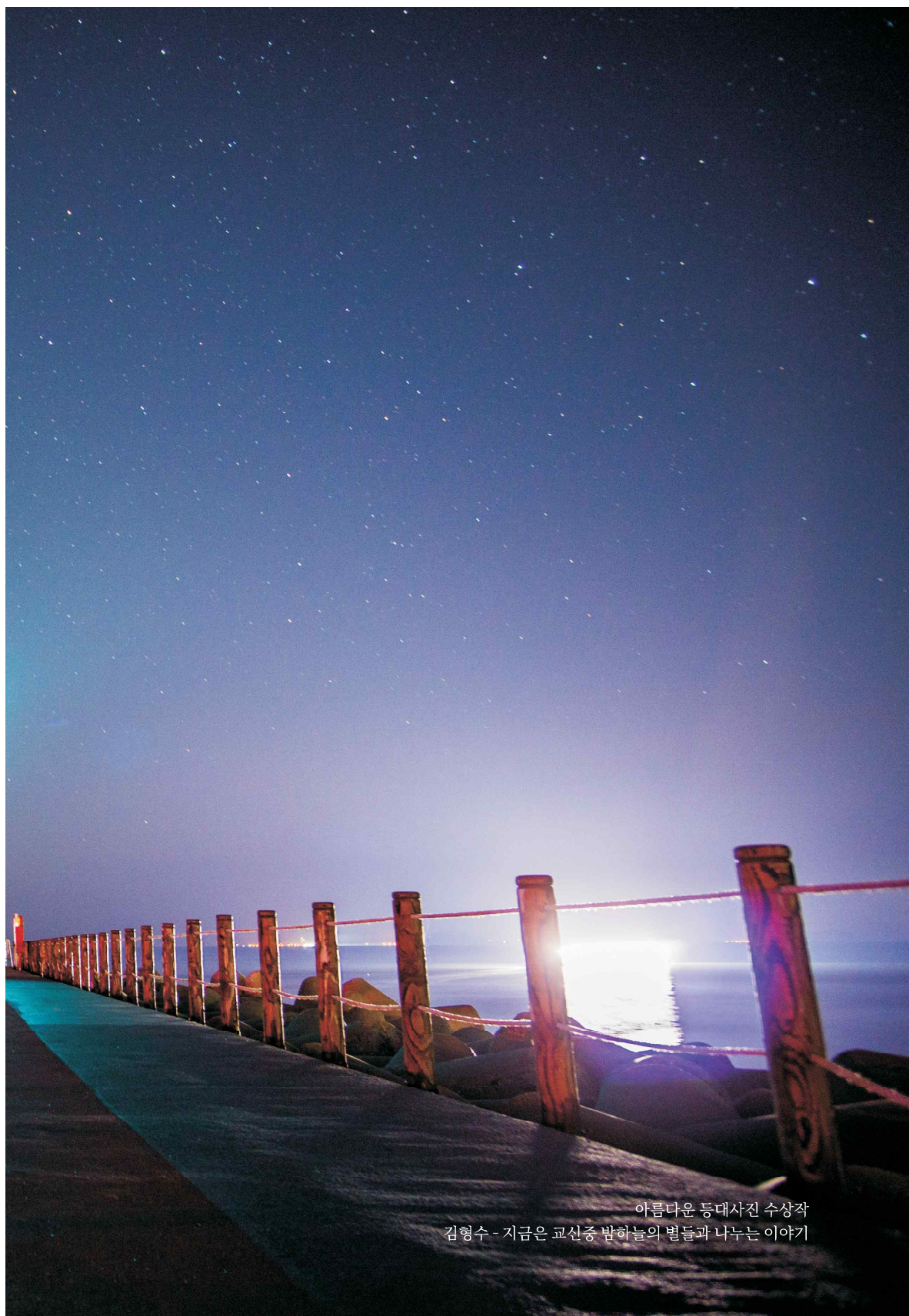
최우수상 소설 양혜영 늙은 어부의 등대
수필 김정예 내 마음의 빨간 등대

우 수 상 시(시조) 이영숙 간절곶
시(시조) 최선주 울기등대를 찾아왔다
시(시조) 김진순 등대와 등대 사이에 문이 있다
소설 윤재민 고래 사냥
소설 박남규 등대와 밍크고래
소설 최인호 유형의 섬
수필 정경숙(정수연) 밸러스트
수필 김미자 굽은 등대
수필 유명숙 던짐줄



수상작





아름다운 등대사진 수상작
김형수 - 지금은 교신중 밤하늘의 별들과 나누는 이야기



제7회 등대문학상

대 상



이 희 경

경기도 성남시

프로필

1969년 강원도 인제 출생
성남 송신여고 졸업
어린이집 보육교사
현)노인생활보호사

수상내역

2018 산림문학상, 동서문학상
2019 산림문학상 독도문화예술제
시 부문 수상

당선소감

황량한 바다를 홀로 지키며 뱃길을 밝혀주는 등대와 마주
쳤을 때 빈자리 없이 자전하는 내 삶이 보였습니다. 나를
들여다볼 여유 없이 바쁘게만 살아오던 중 찾아온 암 선고,
아주 오랜만에 침상에 누워보는 휴식 아닌 휴식, 나 대신
암과 싸워준 건 다름 아닌 시였습니다.

오랫동안 깊이 묻어놓았던 시를 꺼내 안겨준 투병 시간,
홀로 가는 문학의 길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1년 전 본격
적인 시 쓰기가 시작된 후 방전된 미래가 깜빡이기 시작했
고, 그동안에 작은 상들은 희망의 불을 지퍼주었습니다.

이렇게 큰상은 처음이라 아직도 어리둥절하기만 합니다.
꿈은 아닐까 싶어 당선 소식을 알려주신 주무관님 음성을
자꾸 되짚어봅니다. 이제 험준한 고개 하나 넘은 듯 숨이
차오릅니다. 여전히 줄어들지 않는 짐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는 건 문학이라는 목표를 향해 내딛는 발걸음 때문
이겠죠.

부족한 작품을 귀하게 선택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버팀목
이 되어준 가족들, 그리고 시에 날개 다는 법을 가르쳐주신
선생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다 설계사



제7회 등대문학상 대상 / 시
이 희 경

파랑보다 빠른 속도로 뱃길을 탐독하는 등대
해종일 배가 남긴 자국을 빠짐없이 머리에 새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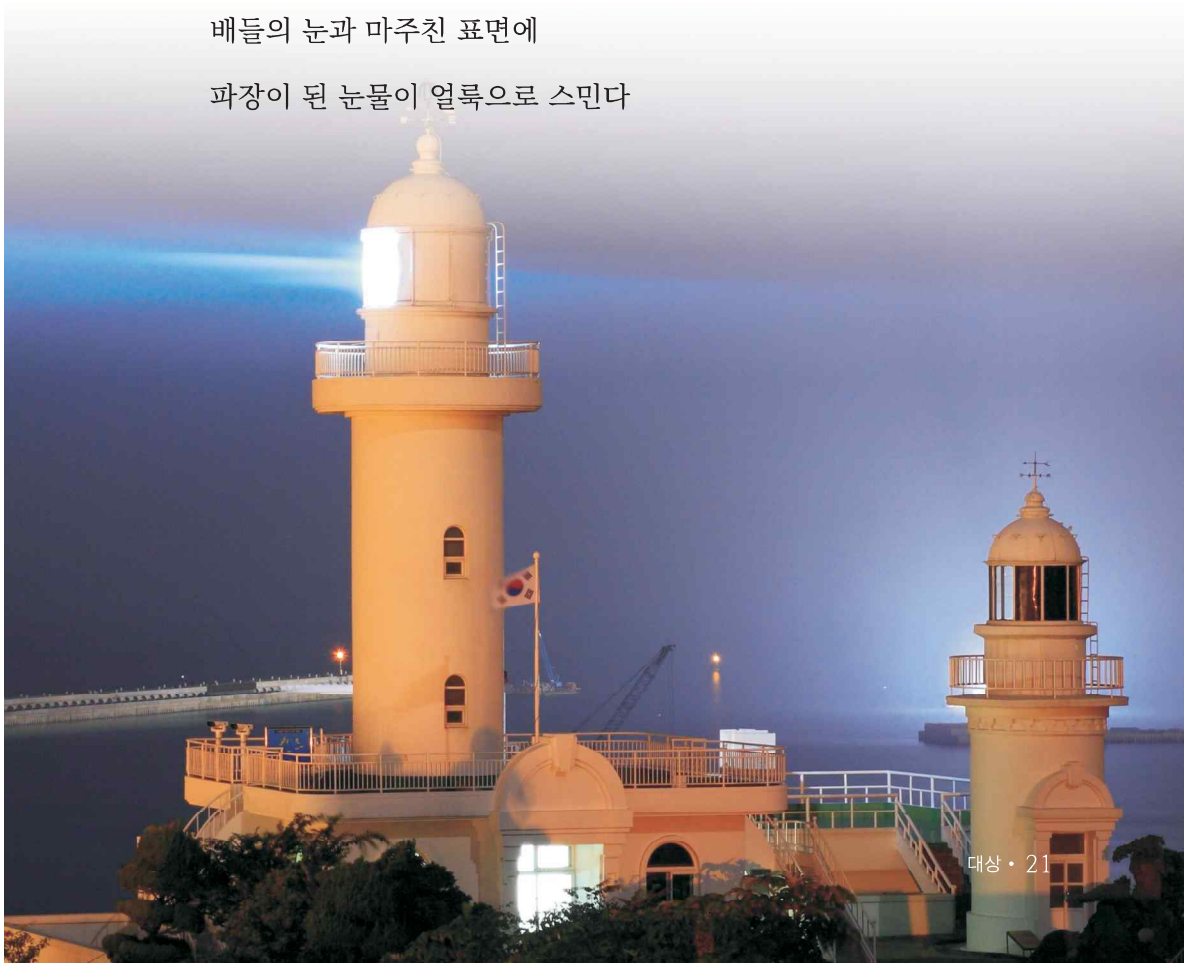
깊은 수심을 눈치챈 별들이
까만 도화지 밖으로 나와 수신호를 보내면
뭉툭해진 심에 불을 밝혀 등고선을 그린다
배만 알아보는 지도는
지우개도 나침반도 필요 없는 대 축적

거센 파도에 후려 맞은 방파제들
밤새도록 갯바위에 신음을 흘려보내지만
한 번도 작업을 멈춰본 적 없는 파수꾼
파고를 기준으로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함선의 음파를 빛의 길이로 나누면
크고 작은 계곡선과 주곡선이
구불탱한 지문처럼 그려진다



멀리서 부표를 감지한 낚선 배가
지도를 훑쳐보기라도 하면
경고음을 내는 가느다란 파선
좌표를 모르는 돌섬은 하늘의 나이트라 불러주었다

통통 부은 무릎을 들여다보면
주름진 길마다 소금에 절여있다
배들의 눈과 마주친 표면에
파장이 된 눈물이 얼룩으로 스민다





제7회 등대문학상
최우수상



양혜영

제주시

프로필

1972년 제주 출생
2002년 제주작가 신인상 소설
당선으로 작품활동시작
2018년 소설집 『고요한 이웃』(발간
현) 한국작가회의 회원

수상내역

2004년 박화성 탄생 100주년 기념
현상공모 우수상
2005년 제주 4·3문학상 당선
2007년 경남신문 신춘문예 당선
2017년 경북일보 문학대전 입상

당선소감

한낮의 등대에선 빛이 보이지 않는다.
태양 아래 우뚝 서서 파도를 내려다보는 등탑이 잘 빛은
조각처럼 위풍당당하다.

한밤의 등대에선 불빛만 보인다.
그리스 조각 같은 탑은 사라지고 독기로 가득 찬 광선만
남아 뜨겁고 강렬하게 공해를 비춘다.

그렇게 등대는, 작아질수록 환해지고 멀리 닿는다.

그렇게 사람도, 작으면 작아질수록 생각이 깊어진다는 것을
등대에게 배운다.

급류를 떠도는 낙배처럼 자주 흔들리고 방향하는 제가 무사히
항해할 수 있도록 등대가 되어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늙은 어부의 등대



제7회 등대문학상 최우수상 / 소설

양혜영

배를 가르자 고름같이 노란 액이 흘렀다. 칼끝이 내장을 건드린 모양이었다.

좀처럼 하지 않는 실수였다. 박은 칼자루를 내려다보았다. 해마다 조업에 나가기 전 새 칼을 장만하지만 이 칼은 유독 손에 익어 버리지 못하고 생선을 장만할 때마다 꺼내 들었다. 불빛에 칼날을 비추니 군데군데 흠이 패여 있었다.

박은 칼날을 바짝 세워 축완이 달린 머리 부분까지 한 번에 그었다. 펑, 하는 둔한 소리와 함께 먹물 주머니가 터졌다. 죽은 듯 가만히 있던 한치가 갑자기 몸부림 쳤다. 먹물이 박의 이마까지 튀었다 순식간에 눈으로 흘러내렸다. 소금을 뿌린 것 같이 뜨거운 열기가 눈동자를 덮쳤다. 옆에 있던 생수병을 열어 재빨리 얼굴에 물을 부었다.

여러 번 씻어낸 뒤에야 짜디짠 통증이 사라졌다.

그 새 갑판이 엉망이 되었다. 먹물이 사방으로 튀어 손질해 둔 생선들마저 까만 얼룩을 뒤집어썼다. 박은 두레박으로 바닷물을 퍼 생선들을 헹궜다. 물간에 넣은 한치들을 빼면 풀치 두 마리와 고도리 여섯 마리, 별 쓸모없는 간재미 한 마리가 수확량의 전부였다. 마지막 조업치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박은 더 이상 미동 없는 한치를 마저 손질하고 갑판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일추 청소를 마치니 새벽 3시가 넘었다. 일출까지 4시간쯤 남았다. 마지막으로 주낙을 바다에 던져 넣으려다 박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출항할 때부터 뼈격대던 발목이 강한 전기충격을 받은 듯 찌릿거렸다. 박은 비명을 삼키며 양손으로 발목을 쥐었다. 갓 찢낸 감자처럼 발목 전체가 핫핫했다. 찬 손바닥으로 열기를 식히려 했지만, 곧 숨 쉬기 곤란할 정도로 뜨거운 통증이 온몸으로 퍼졌다.

하악하악. 병원에서 당장 뱃일을 그만뒀야한다고 한 지 10년이 지났다. 어느새 한줌에 가까운 분량의 약을 매일 먹지만 요즘처럼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다리 관절 마디마디를 불로 지지듯 아팠다.

며칠 동안 아예 운신을 못한 적도 있었다.

박은 갑판에 누워 통증이 수그러들길 기다렸다. 바다를 수놓은 집어등처럼 하늘에서 별들이 반짝거리며 박을 내려다보았다. 눈가에 맺힌 눈물 탓인지 별빛이 평소보다 아롱져 보였다. 박은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렇게 바다 위에서 별을 보는 게 마지막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찬회를 태우기 전까지 박은 혼자 바다를 다녔다.

오랫동안 뱃일을 해서 근해 조업은 혼자로도 충분했다. 그리고 무엇

보다 한의 빈자리를 메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한은 박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사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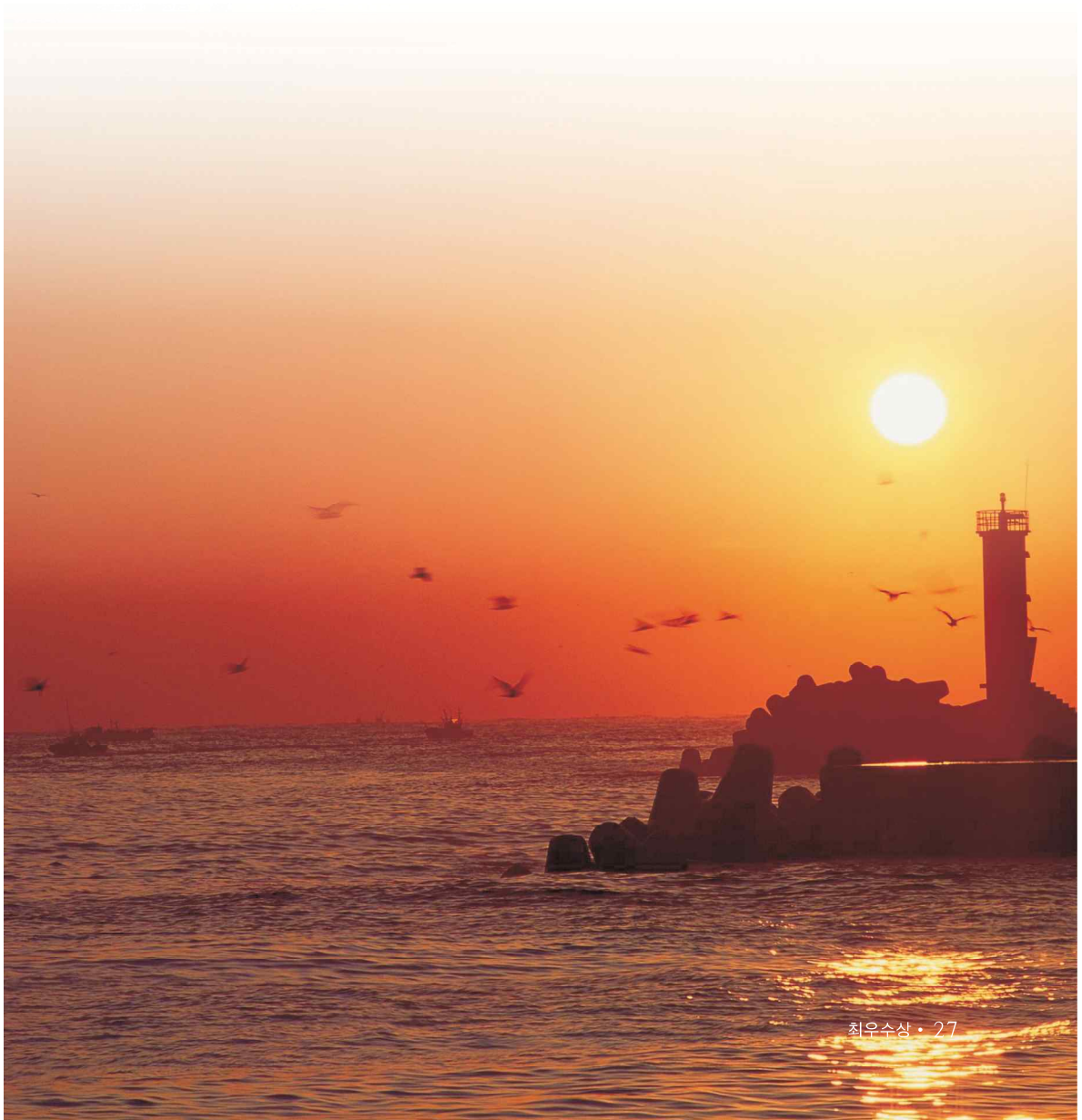
박은 머리 위 하늘에서 가장 반짝이는 별을 찾았다. 국자 모양으로 반짝이는 두 개의 별자리 가운데 작은 국자 손잡이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 옛날에는 뱃길을 잃어버렸을 때 한결같은 자리에서 반짝이는 북극성을 보며 방향을 가늠했다. 요즘은 별자리보다 성능 좋은 레이더와 모니터가 있지만, 박은 여전히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음 날의 날씨를 예측하고 북극성을 찾는 일이 좋았다. 자신이 아는 별 하나가 변함없이 한 자리를 지킨다는 것만으로도 망망대해를 떠도는 동안 위로가 되었다. 하지만 이제 북극성을 올려다보는 일도 마지막 일 것이었다. 같은 하늘인데도 물에 오르면 별은 죄다 사라져버렸다. 수평선 위로 하얀 띠가 내려앉았다. 일출이 멀지 않았다. 선실에 들어가 찬회를 깨웠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어깨를 힘껏 흔들어야 겨우 눈을 떴다.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고 하품 하는 찬회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 박은 매일 해장국집에 들러 반주하는 찬회의 습관이 맘에 들지 않았다. 멀미가 잦아 미식거리는 속을 달래기 위해 먹는다지만 찬회는 해장국보다 소주를 더 많이 먹었다. ‘제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술을 줄여야 할 텐데.’ 조수덕 생각을 하니 가슴 한쪽이 답답했다. 어제 배웅 나온 조수덕은 할 말이 있는 듯 배 뒷전에서 안절부절했다. 박은 조수덕이 무슨 말을 할지 눈치챘지만 모른척했다. 찬회가 말짱할 때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다. 조수덕은 자꾸만 치마폭 안에 찬회를 품으려 하지만 이제 찬회도 스스로 제 앞길을 찾아야 했다. 조수덕과 박이 찬회를 언제까지나 품을 수는 없는 일

이였다.

연신 하품을 하며 방향키를 운전하는 찬희 어깨 너머로 포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찬희는 제법 능숙하게 방파제가 이어진 박캐를 지나 선착장이 있는 안캐로 단번에 들어갔다. 박의 배가 정박하는 곳은 안캐에서도 가장 안쪽에 있는 도대불 옆이였다. 포구를 처음 짓던 날 함께 세운 도대불은 오래 전 태풍으로 등을 올리던 상단부가 날아가고 외벽만 남았지만 박은 항상 그 자리에 배를 정박했다.

배가 자리를 잡는 동안 박은 도대불을 바라보았다. 마을로 불어드는 거친 해풍을 가장 먼저 맞는 도대불의 모습이 마치 나이 든 자신을 보는 것처럼 안쓰러웠다. 얼마 전 마을회의에서 흥물스럽다며 도대불을 철거하자는 말이 나왔다. 그럴 만도 한 게 불을 켜지 않은 50년의 시간 동안 해풍과 파도로 외벽 곳곳이 깨져 언제 붕괴될지 알 수 없었고,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면 안으로 물이 고여 하수도 냄새 같은 악취를 풍겼다. 하지만, 박은 철거하자는 말을 꺼낸 청년회장의 얼굴에 맞대 주먹을 불끈 쥐고 소리를 질렀다.

“저 불이 어떤 불인데, 내 목숨은 물론 조업 나갔던 어르신들 목숨 지키던 불인 걸 몰라. 마을지켜주는 불 없애고 마을이 무사할 거 같아.” 마음 같아선 그동안 쌓인 것을 다 터트리고 싶었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뜨겁게 달아올라 말을 잊지 못했다. 청년들은 얼굴이 벌겍게 달아오른 박을 살피며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슬쩍 넘겼다. 그들은 박을 비롯한 노인들이 쉽게 승낙하지 않을 거란 걸 이미 알고 있는 눈치였다. 박은 회의에 참석한 노인이 자신과 최 뿐 이란 것이 원통했다. 바다 생활을 함께 한 동년배 중엔 멀쩡한 사람이 거의



없었다. 갖가지 병명을 달고 시름시름 앓았다. 회의에 나온 최도 통풍을 심하게 앓아 추운 날에는 외출을 삼갔다. 이제 포구에 남은 배는 고작 7척이었다. 그나마 그중에 꾸준히 조업하는 건 박을 비롯해 아들이 조업을 이어 받은 5척뿐이었다. 2척은 어쩌다 놀러온 관광객들이 낚싯배로 이용했다.

안개에 마려된 밧줄을 동여매자 조수택이 뛰어왔다. 밀짚모자 아래 얼굴이 새까맣다. 물때마다 보말이나 톳을 줍겠다고 바다를 뒤지고 다니기 때문이었다. 박은 조수택의 작고 까만 얼굴을 보자 마음이 잔했다.

“뭘, 거들 거 있다고 나오지 말래도 나왔수.”

박의 입에서 통명스레 말이 튀어 나왔다. 조수택은 못들은 척 고무장갑을 끼고 뱃전으로 올라왔다. 파도가 없는데도 가냘픈 몸이 휘청거렸다.

“이따 목간 끝나면 식사 하러 옵서. 차린 건 없지만 아침이라도 같이 먹게 마시.”

어제까지 아무 말이 없어 배에서 내리는 것을 잊어버렸다 생각했는데, 예상 못한 식사 초대에 박은 쑥스러워 고개를 숙이고 갑판 아래 물간을 열었다. 박은 달아오른 얼굴이 식을 때까지 물간에서 헤엄치고 있는 한치를 보았다. 양이 예상보다 적었다. 물간에 적응 못해 몸 색깔이 변하기 시작한 한치를 빼면, 도매상이 가져갈 싱싱한 한치는 얼핏 10킬로그램이 안 돼 보였다. 킬로그램당 만원씩이니 깎해야 손에 잡히는 돈은 10만원이 채 안될 거였다. 그래도 박이 거래하는 도매

상은 다른 곳에 비하면 값을 후하게 쳐주는 편이었다. 한치가 많이 잡힐 때는 킬로그램당 6천원 밑으로까지 떨어졌다. 지금 거래하는 도매상은 한치가 많이 나든 적게 나든 정해진 가격을 깎지 않았다. 5년 넘게 그곳하고만 거래하는 것도 그 이유였다. 마음 맞는 도매상을 잡기가 어려웠다.

자기들이 아쉬울 때는 잡아 오라고 등 떠밀고, 한치가 잡힌다 싶으면 가격부터 내렸다. 뚜렷한 판로가 없어서였다.

찬희가 뜰채를 저어 물간에서 물 위로 떠오른 한치들을 건졌다. 싱싱하지 않아 도매상으로 넘기지 못하는 한치는 얼음상자에 재워 수협에 넘겼다. 숨이 붙어 있지만 일단 얼음에 닿으면 한치값은 10분의 1로 떨어졌다. 10킬로그램 한 상자가 2만원을 넘기 힘들었다.

그러니 웬만하면 살려서 도매상에 넘기려 애쓰지만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치를 넘기려 찬희는 수협으로, 조수댁은 집으로 가고, 배에 남아 도매상을 기다리기로 한 박은 마을 안으로 사라지는 모자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어깨를 수그리고 땅을 보며 걷는 모습이 비슷해 멀리서도 가족인 걸 알아볼 수 있었다. 찬희는 제 아비인 한보다 조수댁을 많이 닮았다. 찬희가 올해 마흔 아홉이던가. 한은 늙장가를 든 덕에 첫 아이를 서른 넘어 얻었다. 잘 걷지 못해 뒤통거리는 찬희를 어깨에 올리고 포구를 돌던 한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했다. 찬희 때문에 돈 많이 벌어야 된다고 술이 들어가면 입버릇처럼 되뇌었다. 비천한 놈한테 시집와 준 각시와 아이 생각하면 제주 바다 전체를 그물로 건져도 부족하다 했었다. 그때, 찬희가 없었다면 그렇게 무리해서

배를 지어 오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박은 한숨을 쉬며 먹물이 말라붙은 뱃전을 쓰다듬었다. 뱃놈에게 배는 집보다도 귀했다. 집은 집일뿐이지만 배는 집을 살 수도 넓힐 수도 있는 보물이었다. 바다에 나가면 뱃놈 목숨 줄을 쥐고 있는 것도 배였다. 찬희가 두 돌 됐을 무렵, 한과 공동명의로 목선을 샀다.

고아인 자신과 치매 걸린 노모 한 명만 있어 고아나 다름없는 한은 그때까지 모은 전부를 목선에 털어 넣었다.

목선이 포구에 도착하던 날이 지금도 눈앞에 보듯 흰했다. 웬만한 동네 경사 못지않게 밤새 잔치를 벌였다. 열네 살에 뱃일을 시작해서 마흔 넘어 목선을 갖게 된 박과 한은 아무리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다. 자정 너머 동네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뒷정리를 하던 조수덕도 먼저 집으로 보낸 뒤, 박과 한은 갑판에 나란히 누웠다.

“안방보다 편하네.”

한이 갑판에 등을 비비며 실실 웃었다. 머리 위로 양팔을 쭉 뻗어 휘저으며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처럼 한은 비비고 또 비볐다. 박은 아무 말 없이 쏟아지는 별을 바라보았다. 하늘에서 별들이 금방 잡힐 것처럼 반짝거렸다. 머리 위쪽에서 가장 밝고 선명하게 빛나는 별을 찾는 건 조금도 어렵지 않았다. 북극성 위로 하나 둘 반짝이는 별을 이어 국자 모양을 만들었을 때, 갑자기 별 하나가 꺾적을 그리며 떨어졌다. 별똥별이었다. 소원을 빌어야 한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지만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 소원을 생각하기도 전에 별똥별은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성질도 급하긴. 꼭 네 놈 닮았네.”



박은 소원 빌지 못한 게 아쉬워 중얼거리며 고개 돌려 한을 보았다. 조금 전까지 똥 마려운 개처럼 갑판을 비비적거리던 한이 모로 누워 있었다. 얼굴을 갑판에 묻은 한의 어깨가 흔들렸다.

“너무 좋아.. 이 냄새..너무 좋다.”

“미친놈, 20년 넘게 맡아 온 배 냄새가 뭐시 좋다고...”

핀잔을 주는 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 고개를 쳐들자 북극성이 뿌옇게 번졌다.

“뭐 할라고 이렇게 많이 차렸수과.”

박은 상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올라온 찬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여태, 신세만 졌는데, 이런 밥 한 끼 대접 못할까 마씨. 솜씨는 없지만 맛나게 드십서.”

“고맙수다.”

조수택은 박 앞에 막걸리 대접을 내밀었다. 박은 양손으로 막걸리 잔을 받았다. 찬희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입을 꼭 다물고 막걸리를 넘기는 찬희를 보니 박은 가슴 한편이 무거운 뭔가로 짓눌린 듯 뼈근했다.

“게나 저나 이제 배는 어떻게꺼우파.”

조수택이 걱정스런 눈빛으로 물었다.

“그러지 않아도 이야기하젠 해신디.”

박은 미리 준비해 온 말을 머릿속으로 정리하며 운을 뗐다.

“제수씨, 찬희한테 주젠 햄수다.”

찬희 손에서 수저가 떨어졌다. 조수택 눈이 놀란 토끼처럼 커졌다.

“배 팔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고, 찬희가 벌영 주면 그게 나을 것 같아마씨.”

“그래도...”

조수택은 쉽게 말을 잊지 못했다.

“찬희 너 생각은 어떻하니? 잘 해지크냐?”

박은 찬희에게로 말머리를 돌렸다. 찬희 역시 조수택 못지 않게 놀란 듯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삼촌.. 경해도...”

찬희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같았다. 박은 막 걸리를 쭉 들이켰다. 오랜만에 마시는 술에 혀끝이 찌릿했다.

“열심히 잡앙 갚으믄 된다. 공짜로 주는 거 아니라.”

“알았수다. 게믄 경 하쿠다. 매일 바당에 나강 부지런히 잡아 오쿠다. 경행 배 갚 치르쿠다. 매달 얼마씩이라도 갚으쿠다.”

목이 메인 듯 찬희 목소리가 갈라졌다.

“알았쨌. 월급 받는 거처럼 매달 돈 받아 가켜. 열심히 잡아오라.”

조수택이 슬쩍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다. 눈물을 보이기 싫어 그런 것 같았다. 박은 밥을 한 숟갈 떠 입에 넣었다. 쌀알이 모래를 씹는 것처럼 까끌거렸다. 박은 수저를 놓고 찬희에게 술을 따라 주었다.

찬희가 고개를 모로 돌리고 술을 받아 마셨다.

‘그래, 이렇게라도 돌려주는 게 맞는 거겠지.’ 불쾌한 찬희 얼굴을 보자 한에 대한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찬희야, 하나만 부탁하켜. 너무 조금하게 욕심일랑 내지 말라. 부지런히만 다녔시믄 고기는 절로 찾아온다.”

박은 선실 열쇠를 밥상에 올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조수덕이 정성껏 차린 밥상을 반도 먹지 못했지만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잘 부탁했쎄.”

“네.”

대답하는 찬희 목소리 끝이 심하게 떨려 돌아보지 않고 박은 곳곳하게 집으로 걸었다. 도착하자마자 피로가 한 번에 몰려왔다. 그저 눕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이부자리에 눕자 눈물이 왈칵 솟았다. 박은 엎드려 껴끼끼 소리 내며 울었다. 예전 한이 울었던 것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한껏 울었다.

박은 출항시간에 맞춰 포구로 나와 찬희를 배웅했다. 찬희 혼자 배를 몰고 나가는 게 아직까진 불안했다. 그러나 날이 꽤 추워졌고 요새 들어 부쩍 심해진 통증으로 박이 동행하면 짐만 될 게 뻔했다. 무엇보다 이제 선주는 찬희였다.

박은 찬희에게 뱃동서를 서둘러 알아보라고 했다. 찬희는 알았다고는 하지만 무슨 생각인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동서를 태우지 않았다. 근해에서 한치나 붙이는 작은 배니 건장한 사람 아무나 태워도 될 것 같은데, 박은 찬희가 이해되지 않았다.

짧은 겨울해가 지고 하늘을 붉게 물들였던 노을이 물속으로 사라졌다. 까맣게 변해가는 물결 위로 가로등에서 흘러나온 불빛이 어른거렸다. 포구를 어슬렁거리는데 불턱에서 나오는 조수덕이 보였다. 박은 반가운 마음에 성큼 다가가려다 물통 든 동네 아낙이 뒤따르는

걸 보고 움찔 놀랐다. 박은 재빨리 몸을 돌려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안개로 들어갔다. 초승달처럼 입구가 휘어 바깥에서 잘 보이지 않는 안개가 이때만큼 반가운 때가 없었다. 그걸로도 부족해 박은 도대불 뒤에 몸을 숨겼다. 불빛이 닿지 않는 곳이었다. 박은 여자들의 웃음 소리가 허공으로 사라질 때까지 도대불이 만들어준 어둠 속에 웅크리고 꼼짝하지 않았다.

배를 찬희에게 넘겨준 후 마을에 박과 조수택에 대한 소문이 다시 돌기 시작했다. 예상한 일이지만, 두 모자가 소문에 시달리는 것은 견딜 수 없이 싫었다. 젊은 과부와 늙은 총각 사이를 두고 그런 소문이 도는 것을 탓할 순 없지만 조수택이 괜한 추문으로 맘 고생하는 게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이제 배를 넘겼으니 당분간은 지푸라기에 불붙은 것처럼 소문이 무성할 거였다.

가슴이 답답해 끊은 담배 생각이 간절했다. 박은 담배 대신 도대불에 등을 기대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뻗었다. 아랫배가 당겨질 정도로 깊이 들이마셨다 내쉬었다. 몇 번 그러고 나니 속이 좀 편안해졌다. 불빛이 없는 도대불인데도 몸을 기대고 있으니 편안했다. 박은 손을 내밀어 도대불 몸통을 더듬었다.

도대불 몸통에는 무수한 시간만큼 많은 구멍이 나 있었다. 구멍에 손가락을 대자 다스한 공기가 새어나왔다. 바깥에서 휘몰아치는 바람과 달리 돌 안에서 부는 바람은 차갑지 않고 따듯했다. 돌이켜보면 도대불은 언제나 온기를 품고 있었다. 오래 전 불을 밝히던 그때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저녁에 낙배가 조업 나가면 마을에는 노인과 소년만 남았다. 바다로

나간 배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대불을 밝히는 불칙이 당번은 당연히 남은 이들이 할 일이었다. 일찍 고아가 된 박도 밥을 먹여 주고 재워주는 삼촌을 위해 한과 함께 불칙이를 여러 번 섰다. 깊은 밤중에는 까무룩 잠들어 배를 놓칠까봐 도대불 외벽 계단을 올라 꼭 대기에 앉아 있곤 했다. 그 위에 앉으면 바다에 떠 있는 삼촌의 낙배가 보였다. 출렁이는 물결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사라졌다 나타나는 낙배를 보면 삼촌을 지키는 게 자신이라는 우쭐함마저 느꼈다. 박이 당번을 서는 날이면 한이 함께 했다. 혼자일 때는 외롭고 무섭지만 한이 옆에 있으면 조금도 두려울 게 없었다. 그렇게 박과 한은 함께 바다를 보고 자랐고, 자연스레 같은 배를 탔다. 평생 곁에서 함께 나이 들어갈 거라 생각했는데, 박은 요즘 들어 한이 부쩍 생각났다. 그럴 때마다 그날, 한을 말리지 못한 게 두고두고 후회되었다.

안개 안으로 밀려드는 물결이 제법 거칠었다. 한은 태풍이 올라온다는 소식을 듣자 표정이 어두워졌다. 며칠째 조업을 나가지 못해 미끼를 다 버려야 할 판이었다. 수평선에서 일렁이는 파도를 노려보던 한이 결심을 굳힌 듯 단단한 표정으로 주낙을 챙겼다.

“아직 주의보도 내리지 않았잖아. 남들 놀 때 다 놀든 별지 못해.”

박도 이자 갯을 날이 다가와 초초하던 참이었다. 게다가 모슬포 바다에 방어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출항을 부추겼다.

“오늘 한 방에 때려잡고 태풍 오면 폭 쉬게.”

한의 각오에 박도 고개를 끄덕이며 배에 올랐다. 포구 앞바다는 예상보다 고요했다.

바다로 나가는 길목에 여가 있어 웬만해선 높은 파도가 들이치지 않는 탓이기도 했지만, 한의 말대로 이 정도라면 해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방어가 터졌다는 모슬포 바다가 가까워질수록 상황은 역전되었다. 성난 파도들이 허영게 뒤집혀 날뛰었다. 뱃전을 넘을 듯 기세등등한 파도를 넘을 때마다 머릿속이 출렁거렸다. 선미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는 한의 얼굴이 어두웠다. 사방에서 부딪혀 오는 파도 때문에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배 전체가 좌우로 심하게 요동쳤다. 이대로는 조업은커녕 돌아갈 일도 까마득해보였다. 박이 배를 돌리기 위해 선실로 향하는 순간, 배가 갑자기 기우뚱했다. 박은 중심을 잃고 갑판에 고꾸라졌다. 뱃전에 매어 놓은 밧줄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다. 비명 지를 틈도 없이 눈앞에서 갑판이 불쑥 솟아올랐다. 후미에 있던 한이 박을 향해 걸어오다 비명을 질렀다. 박의 시야에 거대한 파도가 뱃전을 넘고 한의 머리 위로 새하얀 포말이 날리는 장면이 영화처럼 느리게 보였다. 물보라가 박의 얼굴을 적시고 곧 정신이 아득해졌다.

눈을 떴을 때에는 해무와 어둠이 배를 뒤덮었다. 배가 유령선처럼 불도 켜지 않은 채 검은 바다를 어둠 속을 떠돌고 있었다. 박은 아직도 얼얼한 머리를 양손으로 감쌌다. 손바닥에 주먹만 한 혹이 만져졌다. 혹 중심에 뿔죽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끈적한 걸 보니 피가 흐르는 것 같았다. 눈앞이 어질어질하며 현기증이 일었다. 박은 비틀거리며 간신히 일어나 집어등 스위치를 올렸다. 집어등이 켜지자 난장판이 된 선체가 드러났다. 주낙 연장과 집기들이 바닥에 흩어져



나뒹굴고 있었다. 박은 한을 불렀다. 대답이 없었다. 박은 육신거리
는 몸을 일으키고 배 구석구석을 돌아보았다. 한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박은 몸을 내밀어 바다를 보았다. 거센 물결이 뱃전
을 향해 몰려왔다.

박은 바다를 향해 한의 이름을 목청껏 부르고 또 불렀지만 성난 파도
가 박의 목소리마저 집어 삼켰다.

그 날 어떻게 포구로 돌아왔는지 오랜 세월이 흐른 지금도 아득했다.
배를 몰고 포구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다. 한을 삼킨
것으로도 부족한 지 파도는 배를 자꾸만 끌어당겼다. 해무가 짙어
지고 거친 파도 위로하면 포말이 날려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안개 속을 반복해 도는 기분이었다.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무렵, 눈앞에 빨간 불빛이 보였다. 두터운 해무를 뚫고 흐릿하게나마
반짝이는 도대불이 박에게 손을 내밀었다.

뒷날 태풍이 들이닥치고 한을 찾는 일이 지연됐다. 박과 조수택은
발을 동동거리며 해경 사무실을 오갔지만 태풍이 널뛰는 바다로 나가
수 있는 배를 구할 수 없었다. 태풍이 3일이나 바다를 들쭉시키고 지나
간 포구로 나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다.

“아이고, 등이 날아갔네.”

누군가의 탄식에 일제히 도대불을 바라보았다. 도대불 상단이 사라
지고 없었다. 날카로운 뭔가에 잘려 나간 듯 등을 거는 도대불 윗부
분이 말끔히 떨어져 나갔다. 사람들은 혹시나 싶은 심정으로 안개
안을 살폈지만 깨진 돌 조각조차 발견할 수 없었다.

박은 잘려나간 돌덩이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이 무겁고 아파 숨을 쉴 수 없었다. 자신을 살린 도대불이 사라진 게 꼭 자신의 불찰인 것 같았다.

잔잔해진 바다로 한을 찾으러 나간 해경이 아무 성과 없이 일주일을 소비하자, 박은 조용히 마을을 빠져나갔다. 시내 여인숙에 들어가 밤낮없이 술을 마시고, 취하면 한을 부르고, 죽일 놈의 바다라고, 소리 소리 질렀다. 여인숙 주인이 신고를 해 경찰에 끌려갔다. 연락을 받고 온 동네 이장이 한의 집이 넘어갈 지경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으면 마을로 영영 돌아오지 않으려 했다. 줄지에 남편을 잃은 조수택이 이자라도 갚으려 배를 내 놔도 아무도 사람 죽여 나간 배를 사지 않았다. 이자 기일을 넘기자 은행에서는 담보로 잡은 집을 경매에 넘기겠다고 했다. 박은 두 모자를 길바닥에 나앉게 할 수 없었다. 박은 다시 배에 올랐다. 이자를 갚고 수입의 절반을 한의 몫으로 조수택에게 넘겼다.

매달 돈을 갚다 주면서도 박은 조수택 얼굴을 쳐다보지 못했다.

한이 가고 나서 한꺼번에 늙어 버린 듯 머리가 하얗게 세어버린 조수택의 눈빛이 박을 원망하는 것 같았다.

“뭐라고? 어디라고?”

찬희가 술 한 잔 하자고 기분 좋게 따라나섰던 박은 모슬포와 방어란 말이 나오자 정신이 아찔했다.

“너 거기가 어딘 줄 알람나?”

날이 바짝 선 말에 찬희는 시선을 내리깔았다.

“너 같은 초짜가 갈 디가 아니라. 거기 바당이 어떤데...”

박은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한 번도 찬희 앞에서 한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찬희가 제 아비 죽은 곳을 모를 거라고는 생각 하지 않았다.

“알아 마씨, 삼촌이 무사 경 말리는지. 경해도 어떻 합니까? 한치만 으론 돈을 못 만지는 디. 나도 이제 결혼도 하고 어명도 모셔야 할 거 아니우파!”

쉬는 날이면 읍내에 자주 나간다 싶더니 만나는 여자가 생긴 모양이 었다. 그동안 여자 소개시켜주겠다고 해도 나 같은 놈한테 누가 오냐 고 일언지하에 거절하던 녀석이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걸 보니 대견한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필 모슬포 바다로 방어를 잡으러 간다니. 박은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다. 모슬포 바다는 물살이 매우 거칠고 변덕스러운 곳이었다. 찬희 같은 초보는 사고를 당하기 십상이었다. 박은 찬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곳을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 조바심이 났다.

“안 된다, 찬희야. 거기는...”

“삼촌, 경 압씨. 벌써 거기 바당 다니던 뱃동서도 구했수다. 술술 다니크메 걱정 맙씨. 나 감수다.”

찬희는 박의 말을 더 듣지 않고 나가버렸다. 두 팔을 휘저으며 씩씩 하게 걸어 나가는 찬희를 보며 박은 단단한 벽을 마주한 것 같았다.

이제 박이 말릴 나이가 지나도 한참 지난 것이다. 밖으로만 돌던 녀석을 달래고 설득해서 배에 태운 지 3년이였다. 바다 생활 3년이 긴 것 같아도 사실 바다에서의 시간은 물과는 달라 3개월에 불과하

다. 그런데 하필 모슬포라니, 박은 배를 넘겨 준 게 후회되었다. 말릴 수 없는 일이란 걸 잘 알기에 더 속상했다. 한번 쏜고 지나간 파도는 물속으로 사라져 다시 돌아오지 않듯이 사람 사이의 일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찬희가 모슬포 이야기를 꺼낸 이후, 박의 시계는 바다를 벗어나지 못했다. 매일 새벽녘까지 잠을 이루지 못해 뒤척였고, 어찌다 창에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들리면 까무룩 든 선잠마저 번쩍 깼다. 밤마다 무시로 포구를 들락날락했다. 추위로 빨갛게 부어오른 발을 절룩이며 포구로 나가 찬희가 들어올 때까지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았다. 직접 바다로 나가 작업할 때보다 물에서 지켜보는 심정이 더 불안하다는 것을 박은 깨달았다. 왜 아침마다 조수덥이 방파제 끝에 위태롭게 서 있었는지도 알 것 같았다.

저녁부터 바람 소리가 심상치 않아 박은 내쳐 창밖을 내다보았다. 바람을 타고 안개비가 내리고 있었다. 온 마을이 짙은 안개의 장막에 갇혔다. 박은 손전등을 들고 포구로 향했다. 며칠 전 안개를 걷다 크게 미끄러진 박은 그 후 밤에 나올 땐 손전등을 챙겼다. 가로등이 흰한 박개와 달리 안개의 구석은 불빛이 들어오지 않아 어두웠다.

포구에 나가보니 몇 시간 전까지 잔잔하던 파도가 들썩거리고 있었다. 겨울바다는 변덕스러워 무시로 거칠어졌다. 박은 안개에 가린 수평선을 불안하게 바라보았다.

마을 쪽에서 조수덥 목소리가 들렸다.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며 박이 서 있는 포구로 오고 있었다. 박은 서둘러 손전등을 끄고 안개로 들

어갔다. 불빛이 비치지 않는 도대불 부근에 앉아 포구로 걸어 나오는 조수덕을 지켜보았다. 함께 나온 이장덕이 돌아가고 나서도 조수덕은 안개비가 날리는 박캐에 한참 서 있었다. 박은 조수덕의 마른 몸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심장이 오그라들었다. 안개와 달리 박캐는 바람 한 점 피할 막이가 없었다. 그럼에도 조수덕이 들어오지 않는 건 찬희가 있는 먼 바다를 보고 싶어서일 거였다. 박캐보다 지대가 낮은 안개에서는 먼 바다가 잘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예전에 박도 먼 바다로 나간 삼촌의 낙배를 보려면 도대불 위로 올라가곤 했다.

빗살이 굵어졌다. 조수덕이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마을로 뛰어갔다. 박은 빗줄기 사이로 사라지는 조수덕의 뒷모습을 보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팔을 뻗어 안아 주고픈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박은 그럴 수 없었다. 행여 누가 울고 있는 자신을 볼까봐 몸을 작게 말아 도대불 뒤로 숨었다. 박은 조수덕 앞에 설 자신이 없었다. 한의 일은 말할 것도 없고, 찬희를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게 모두 박의 책임이었다. 찬희가 공고를 중퇴하고 공사판을 전전하다 배를 타겠다고 할 때, 말리지 않고 뱃일을 가르친 것도 박의 죄였다. 남편을 삼킨 바다로 하나뿐인 아들을 날마다 보내는 심정이 어떨지, 박은 차마 가늠할 수조차 없다. 아마 죽는 날까지 용서를 빌어도 죄값을 다 치를 수 없지 않을까. 박은 어둠 속에서도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박은 손전등으로 앞을 비추며 도대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안개 너머 찬희가 있는 바다를 보려면 도대불 위로 올라가야했다. 젖은 신발 속에서 툭툭 부은 발목이 저려왔지만, 박은 멈추지 않았다. 절룩대며 계단 끝에 다다랐을 때, 차가운 바람이 박의 몸을 휘감았다.

물에 붙어 무거웠던 발이 가볍게 떠올랐다. 박은 몸이 붕 뜨는 것을 느꼈다. 검은 장막이 박의 눈을 가렸다. 빗소리가 멀리 사라졌다.

“삼촌!”

뿌연 안개 너머로 찬희 목소리가 들렸다. 박은 무거운 눈꺼풀을 애써 올렸다.

“삼촌! 정신 들었수과!”

찬희가 박을 보며 웃었다. 박은 영문을 모르지만 따라 웃었다. 입술을 벌리자 턱이 아팠다. 아픈 부위를 만지려 손을 올리자 손목에 꽂힌 주사바늘이 따라 올라왔다. 찬희가 박의 손목을 끌어 내리며 더 쉬라고 권했다. 박은 괜찮다고, 말하려 했는데 이상하게 졸음이 몰려왔다. 오래 잔 것 같은데도 눈을 뜨기 힘들 정도로 졸렸다. 박은 다시 잠의 세계로 빠져 들었다.

꿈결에 찬희 목소리가 들렸다. 찬희와 조수택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찬희가 안개 때문에 일찍 귀향하다 안개에 쓰러져 있는 박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고, 다리가 부러지긴 했지만 크게 다친 곳은 없고, 뇌진탕 때문에 며칠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조수택은 이만 해서 다행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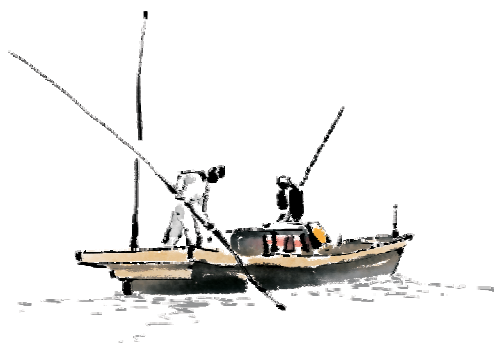
“경헌디, 이상한 게 있수다.”

찬희 목소리가 갑자기 심각해졌다.

“그 날, 안개가 너무 짙었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감으로 키를 조정하멍 들어오는 디, 어디서 주황색 불빛이 비치는 거라 마씨. 방향이 포구인 것 같아서 불빛 쫓아서 천천히 들어와 보난 도대불 아래 삼촌

이 누워 있는 거라마씨. 거긴 불 비칠 게 하나도 없는 디 정말 희한한 일이지 예. 꼭 도대불이 삼촌 살린 거 닮아 마씨. 아무래도 도대불 없애지 말고 복원해야 되쿠다. 사람 살리는 불을 없앨 순 없지 마씨.” 평소와 달리 찬희는 수다스러웠다. 조수댁도 신기한 일이라며 맞장구쳤다.

박은 찬희를 불러들인 불의 정체를 알 것 같았다. 한결같은 곳에서 누군가를 지켜주는 마음. 사람들은 북극성을 가장 밝은 별이라 이야기하지만, 사실 북극성은 2등성이다. 그럼에도 캄캄한 밤바다에서 가장 밝게 보이는 건, 한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려는 별의 마음이 깃든 때문일 것이다.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손수 횃불을 들고 서던 늙은 어부들의 등대처럼 말이다.





제7회 등대문학상
최우수상



김 정 예

부산광역시

프로필

1993년 부산 출생
한국해양대학교 해운경영학과 졸업
프리랜서 마케터 활동 후
현재 독립출판 잡지 에디터로 활동중

수상내역

2019 필범문학상 소설(산문부) 최우수상
2019 독포문학상 수필부 본상
2019 건설문학상 수필부 우수상
2019 양성평등 콘텐츠 공모전 특선

당선소감

부산에서 태어났고 관련 학문을 전공으로 삼았다 보니 바다와 등대는 꽤나 가깝게 자리 잡은 존재였다. 좋은 기회에 나의 진솔한 생각들을 수필로 담을 수 있어서 큰 상을 받게 됐다. 수필에 담은 내용은 내가 한창 심적으로 방황하고 평온하지 못할 때의 이야기지만 돌이켜보니 그마저도 영광스러운 수상으로 갈무리됐다. 나의 지나간 삶 모든 순간이 하나의 기록과 경험이 된다는 점을 이번 문학상을 통해서 깨달았다. 힘이 들고 슬플 때의 감정을 단지 먼지처럼 나쁜 것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치열하게 경험하고 부딪혀서 또 하나의 양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에 정말로 빨간 등대를 심자고 말하고 싶다. 스스로의 위험을 경고해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잡아주는 등대 말이다.

올 한 해의 끝자락에 온전한 나의 경험으로 값진 결실을 맺어서 참으로 기쁘다. 더불어, 개인에게 이토록 큰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준 등대문학상에 감사하다. 마음에 심은 등대를 언제나 잊지 않고 살겠다. 나의 글이 아직 마음에 등대가 없는 누군가의 삶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내 마음의 빨간 등대



제7회 등대문학상 최우수상 / 수필

김 정 예

하필이면 그날 비가 왔었다. 모처럼 마음먹고 떠난 거제도 여행인데 이슬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바람에 한 손에 우산을 꼭 쥐고 다녀야만 했다. 원래대로라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종종걸음마다 기록을 남겨두려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우산을 쓰지 않기엔 분명히 젖어 버리는 날씨, 여행까지 와서도 불운이 따르는 건가 싶어 괜스레 마음 한편에 서운함이 짙 밀려왔다. 일정을 도와주지 않는 하늘과 거무튀튀한 먹구름에 시원하게 소리라도 치고 싶었다.

'왜 나는 되는 일이 없을까.'

사실 그 여행은 내게 도피였다. 불안한 20대 중반을 겪으며 가끔

시소처럼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던 일상은 어느 순간 거센 파도처럼 마구 일렁이기 시작했다. 행복과 우울의 순환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겠지만 그때의 난 달랐다.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불운이 연달아 겹칠 때마다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정신이 아득해졌다가 또 해소되면 미칠 듯이 기뻐지곤 했으니까.

취업, 학업, 사랑 모든 요소들이 꼼꼼히 어깨를 짓눌렀고 나는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뗏목처럼 마구 흔들렸다. 너울의 파고가 높아질 때마다 엄습해오는 불안에 떨며 덜컥거리기를 몇 달째, 난 그만 고장나 버렸다.

새벽 4시가 되도록 뜬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며 지내니 몸이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했다. 이대로 버텼다간 크게 아플 거란 생각이 들어 잠깐 여행을 떠나기로 했다. 억지로라도 한 박자 쉬어가면, 잠시 부표처럼 항해를 멈춘다면 다시 일상을 잘 조타할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였다. 그리하여 떠난 곳이 거제도였다. 첫날은 밤늦게 도착을 해 바로 잠을 잤고 둘째 날부터 외도로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고 한건데 하필이면 비가 온 것이다.

'하늘도 도와주지 않나봐.'

장승포항에 도착해서도 비는 그치지 않았다. 차라리 거세게 내렸으면 아예 포기해버리지, 애매모호하게 내리는 빗줄기는 은은한 답답함을 불러일으켰다. 유람선이 출항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기에 정해진 시간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됐지만 우중충한 날씨 탓에 기분은 썩

상해있었다. 신경질적으로 카메라를 가방에 욱여넣었다. 그리고 적당히 앉을 곳을 찾아봤으나 이미 삼삼오오 사람들이 자리를 꿰차고 있어 내가 앉을만한 곳은 없었다. 참으로 서운한 일들만 벌어지는구나! 어째 마음먹고 떠난 여행마저 일상을 똑 닮아버렸냐는 생각이 스멀스멀 피어올라 서글퍼지려했다.

적당히 쉴 곳을 두리번대던 와중에 등대를 하나 발견했다. 방파제 옆의 등대는 새빨강고 작았다. 뒤쪽에는 이름 모를 산이 등대처럼 작지만 완전한 초록빛으로 우뚝 서있었다. 날씨가 좋았다면 구경꾼이 많았을 텐데, 너도 오늘 운이 없구나! 나는 그 작은 등대로 터덜터덜 걸어갔다. 낚시꾼 하나 없는 길에는 빗방울 소리만 있었다.

바다 수면에 떨어지는 방울들이 툭툭거리며 만드는 연속적인 소리 외에 아무런 구경거리가 없는 짧은 길을 지나 등대 앞에 섰다.

'빨간색이면 뭐해. 이렇게나 볼품없어서는.'



가까이서 본 등대는 참으로 작았다. 보통 등대라하면 멀리서 입항하는 배들의 바닷길까지 밝혀주기 위해 흰칠하다지만 어째 장승포의 빨간 등대는 그것의 반 정도 돼 보이는 키였다. 새빨간 옷을 입었어도 웬지 볼품이 없어보였다.

그 모습이 꼭 나 같았다. 그래서 더 마음이 움직이더라. 혹시라도 사람들이 불까싶어 등대의 뒤편으로 돌아가 작은 계단 위에 고인 물을 손수건으로 닦아 낸 다음 풀썩 주저앉았다.

시야에는 오직 등대 뒤편 바다뿐이었다. 바다위에 토도독 떨어지는 빗물들이 여전히 수많은 동심원을 만들었고 나는 그 동심원의 수만큼이나 그간 겪어온 불운을 떠올렸다. 거기에 오늘의 날씨까지 추가, 별것 아닌 걸로 괜히 눈물이 내려했다. 아무도 안 본다지만 이런 곳에서 어떻게 울 수가 있어, 절대 안 돼! 하지만 마음이 말랑해지면서 눈가에 그렇그렁 눈치 없는 눈물이 고이는 게 아닌가. 비오는 날 등대 밑에 앉아 울고 있는 여자라니 얼마나 청승맞을까. 눈꼬리에 맺힌 물방울을 빗물인척 털어내며 한숨을 푹 쉬었다. 새빨간 등대는 말이 없었고 나는 괜히 오늘의 날씨 탓을 등대에게로 돌려버렸다. 하늘처럼 파랗든가, 산처럼 초록이든가 눈치 없이 이 와중에 왜 이렇게 새빨강고 난리람. 누가 이 등대를 빨간색으로 칠한 거야. 어차피 출항까지 시간도 많거니와 괜히 상념에 잠겼다간 자꾸만 눈물이 내려하니까 쓸데없는 거라도 알아보자는 생각이 들어 빨간 등대를 검색해보았다. 놀랍게도 빨간 등대에는 이유가 있었다.

'흰 등대는 왼쪽에 장애물이 있다는 뜻이며 빨간 등대는 오른쪽에

장애물이 있다는 뜻 - 국제항로표지협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빨간색을 좋아하는 누군가가 칠해 놓은 거라 생각했는데 빨간 등대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 키도 작고 사람들의 발걸음도 적은 곳에 외로이 서있는 못난 등대라 판단한 게 무안해졌다. 적어도 이 등대는 오른쪽에 장애물이 있음을 꾸준히 경고해왔다. 배들이 양 옆에 장애물 없이 안전하게 항해하려면 흰 등대와 빨간 등대사이를 통과해야 한다. 작은 유람선들은 장승포항에 들어올 때 빨간 등대를 필요로 하고 있었던 셈이다. 안전하고 무탈한 항해를 위하여 빨간 등대는 항상 온 빛깔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다.

별 이유없어보이는 등대, 비를 추적추적 맞아가며 파란바다와 초록산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빨강으로 묵묵히 제 역할을 해왔구나. 나는 반성했다. 우습게 여기고 무시했던 대상조차도 나름의 존재이유가 있고 그 일을 꾸준히 행하고 있었는데 내 판단을 어둡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왜곡된 마음 때문이었다. 작고 외로운 등대보다 못한 마음을 꾸짖으며 불현듯 스스로를 성찰하게 됐다.

어쩌면 그간 불운하고 힘든 일상을 살아왔다는 것도 그 원인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닐까. 사실 일상의 파도는 언제나 비슷한 높이, 잔잔한 수면을 유지해왔는데 조타수인 내가 키를 잘 잡지 못해 휘청거리지는 않았을까. 생각해보니 참 그렇다. 죽을 일이 있지도, 가진 것을 모두 다 잃지도 않았는데 나는 무엇을 그리 힘들다 외쳤다. 하물며 이 작은 빨간 등대도 묵묵히 제 역할을 지켜나가고 있는데 난 매번 기쁜 일만

을 바라고 작은 파도에도 이내 조타를 포기하며 항해할 수 없다 판단
하지는 않았던가.

'삶의 항해는 내 몫이야. 언제나 안전하도록 마음에 빨간 등대를 심어
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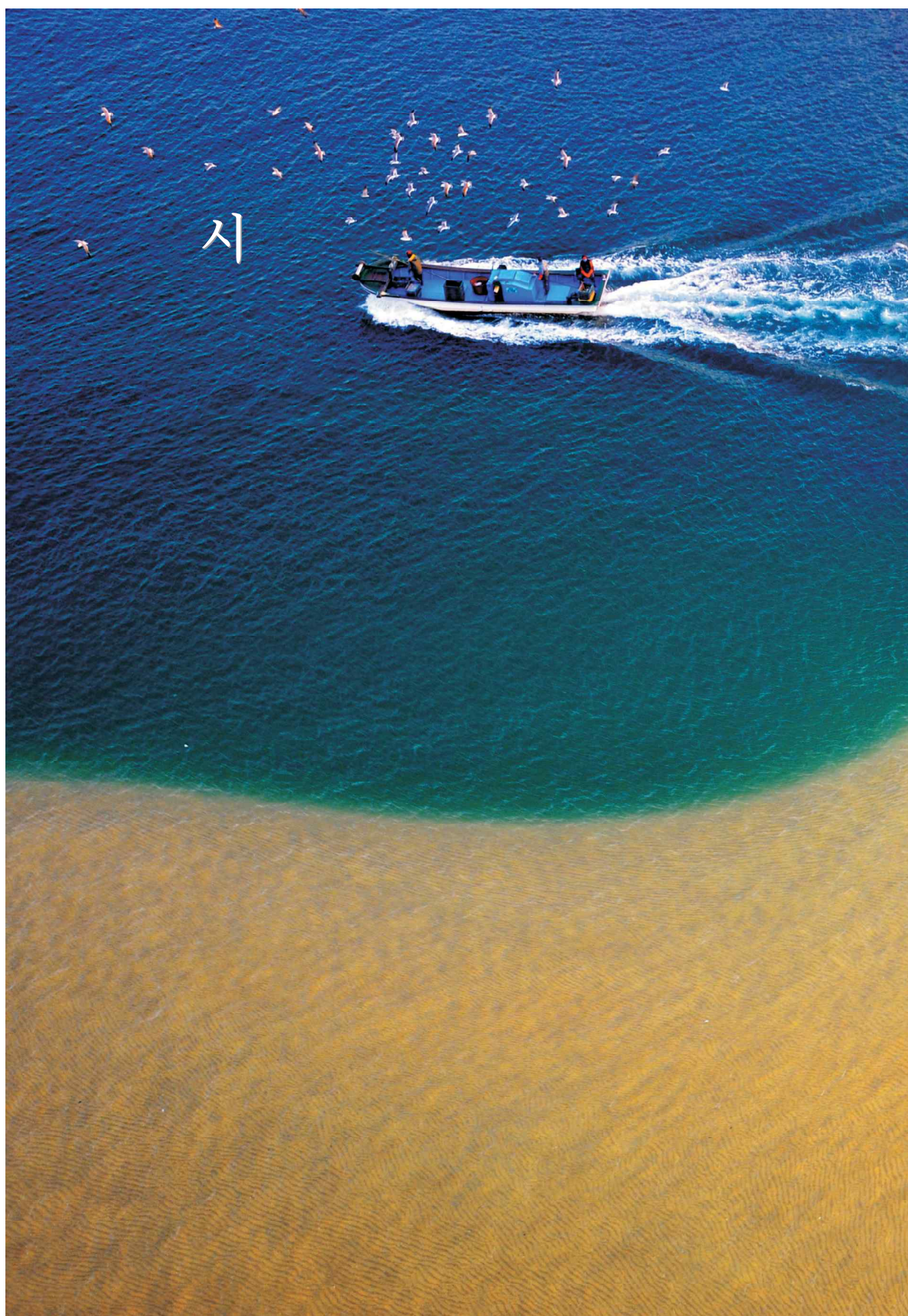
삶이 바로 보였다. 모든 일에 큰 문제가 없음에도 지나치게 일희일비
하여 일상의 평화를 해친 건 내 탓이구나. 그래서 마음에 빨간 등대
를 심어두기로 했다. 등대가 말하는 위협의 방향은 다름 아닌 내 마음
중심부이다. 등대 불이 깜빡하고 켜질 때마다 스스로의 기저에 또
우울함과 좌절이 몰아치고 있는지를 늘 살펴야겠다. 그 어떤 일상도
내게 문제가 되지 못한다.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렸으니 말이다.

작고 새빨간 등대를 심어 앞으로는 어떤 내일이 닥쳐와도 안전하게
항해를 하리라. 나는 일상의 키를 다시 잡아 쥐었다.

출항이 다가왔다. 유람선에 올라타 외도로 향했다. 빨간 등대가 시야
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눈을 감으니 등대 하나가 더 있었다. 그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만의 점유물이다. 이 등대를 벗 삼아 앞으로는
삶을 위협하는 진짜 파도를 경계하며 살아야겠다. 나를 슬프게 하고
좌절시키는 것, 우울과 불안의 너울을 피해 일상을 지키는 사람이 돼
야겠다. 빨간 등대를 심자, 마음에 심자. 나의 삶도 이제부터 진짜
출항 시작이다. 빨간 등대와 함께 안전하게 항해하리라.



아름다운 등대사진 수상작
이재국 - 꽃보다 아름다운 제부도 등대





아름다운 등대사진 수상작
최관식 - 등대가 있는 풍경

간절 곳



제7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시
이영숙

나는 나에게까지 비껴갔으니
철저히 간절곳이 되었다
이곳에서 통보도 없이 버려진 이의
눈물이 흔하다
바다를 향해 툭 튀어나온 곳의 끝자리에
그래서 우두커니들이 많다
망가진 배들을 수리하느라 바쁜 것은
태풍의 탓만은 아닐 거다
예보된 태풍과 예고된 이별의 차이를
어부들은 너무나 잘 안다
준비되지 못한 마음의 슬픔은
배가 지나간 흔적처럼 긴 물길을 남긴다

가지도 오지도 못한 폐선들은
또 하나의 우두커니
구멍 난 배에 보이지 않는 슬픔이 차오른다
얼마나 바다의 바닥을 보아야 뜰 수 있을까
얼마나 바닷물에 젖어져야 털어낼 수 있을까
카론*의 배로 앞서간 사람
수평선 너머에서 새떼들과 미소 짓는 듯한데
계절이 바뀌어도 끝까지 정박해 있는 생각은
갈피를 잡지 못한다.
해가 저물기를 수만 번
얼마 전 죽은 이가 살아 있는 꿈을 꾸었다
기억을 지울수록 선명해지는 간절함이 있어
우두커니들은 아무도 모르게 꿈속에서
폐선 위에 올라가 출항을 서두른다

*카론 : 저승으로 가는 스틱스 강의 나룻배를 짓는 사공

울기등대를 찾아왔다



제7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시

최 선 주

금물결 꽃잎처럼 한없이 아름다워
포말이 낙원인양 힘줄처럼 당겨지고
고래의 아랫도리엔 예쁜 새끼 두 마리

은은한 푸른 바다 유혹에 반했는지
물안개 피는 바다 포경은 녹이 슬고
은은한 통통 장단이 자장가로 들린 듯

보름에 한 번씩은 물길이 바뀌어도
사나운 거친 파도 살갓을 쓸어가도
포효도 울부짖음도 가족애로 꽃핀다

이제는 고즈넉해 새살림을 차리려나
불빛이 황홀해서 위쪽을 닮아 가나
포말이 금빛이 되어 반짝반짝 빛났다




등대와 등대 사이에 문이 있다



제7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시
김진순

바람의 그림자가 문을 두드린다
먼 바다로 나간 배들이
불빛을 싣고 돌아올 때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미는 햇살,
밤을 뒤척이던 물고기들을 재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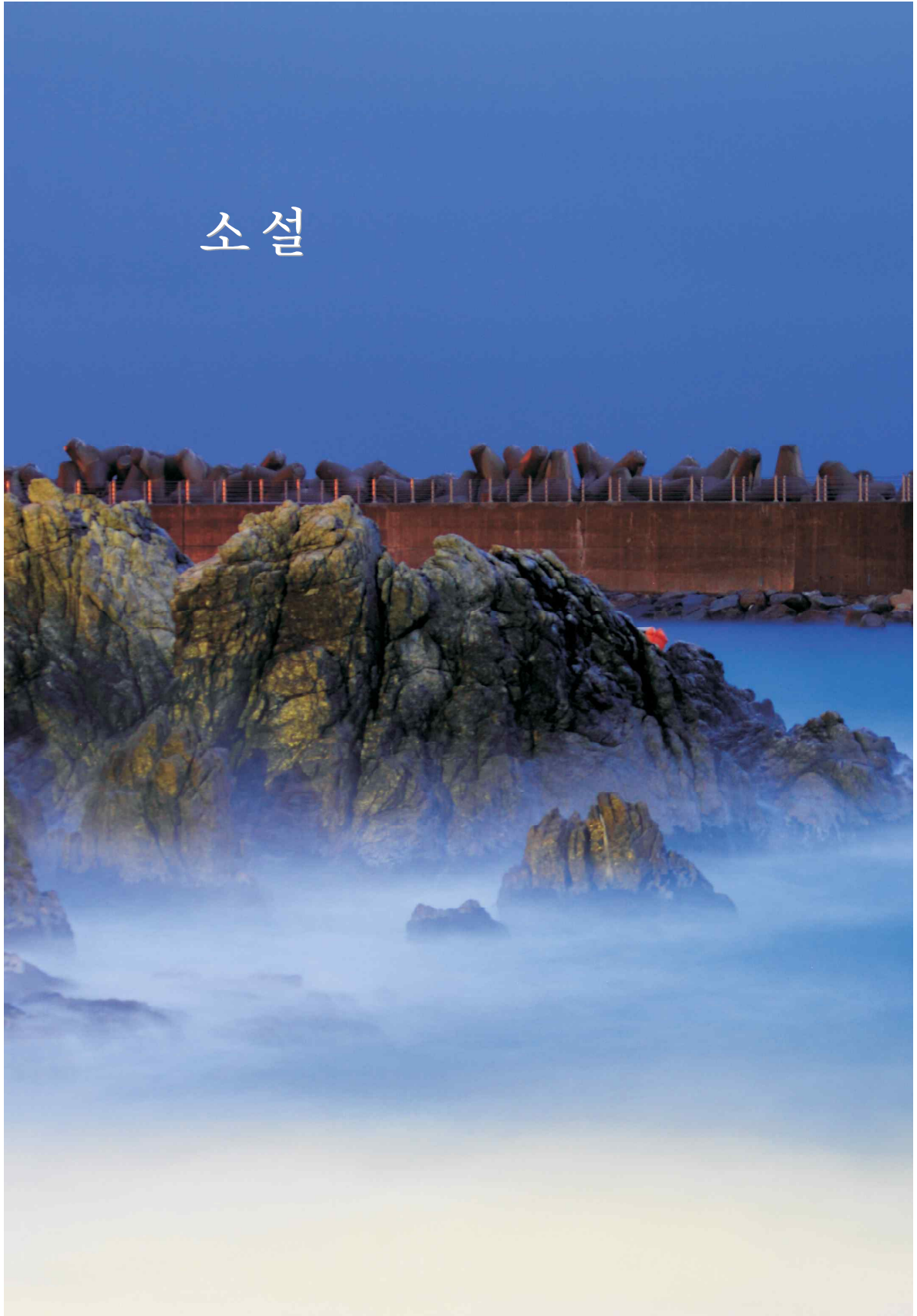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물결이 있다
사랑을 잊은 사람들도
해변을 걸을 때면
문틈 사이로 들리는 물새의 노래를 들으며
두 개의 등대를 닮은 연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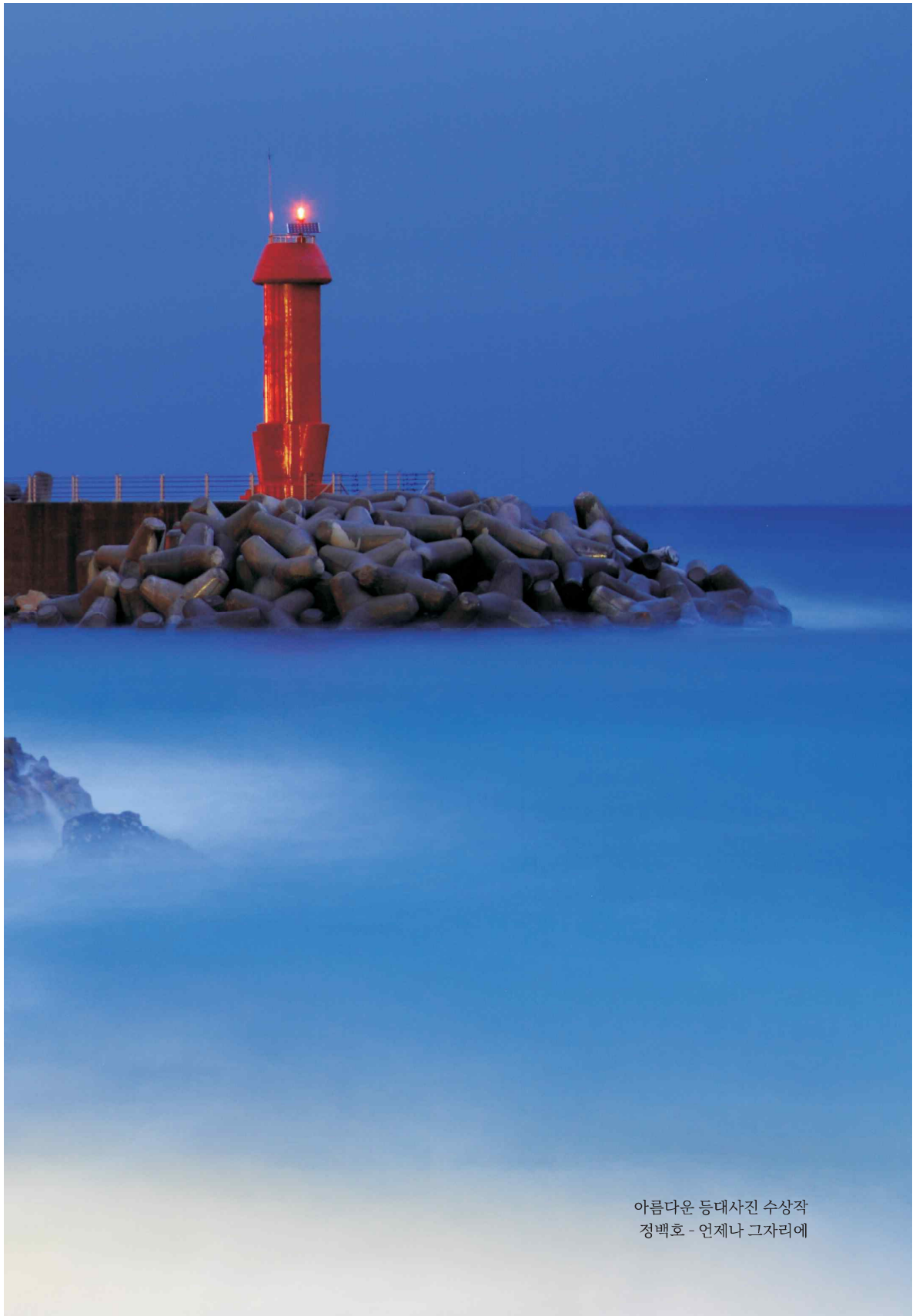


바다의 문을 연다
해를 끌고 오는 고깃배,
등대 사이의 바람이
문틈 사이로 일렁일 때
터질 듯 하늘을 담은 눈동자

하늘과 바다 사이에도 선이 있다
친구를 잃은 사람들도
바다를 걸을 때면
하나의 선으로 만나지는
푸르고 따뜻한 물결이 있다

소 설





아름다운 등대사진 수상작
정백호 - 언제나 그자리에

고래사냥



제7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소설

윤재민

꿀 보기 싫은 놈들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고래가 필요하다.
고래면 된다. 아니, 고래여야 한다. 방법은 오직 고래뿐이다.

갑수는 오늘도 어시장 화투판에서 돈을 잃고 집으로 돌아왔다. 분명
광팔이가 그 대목에서 광을 팔면 안 되는 것이다. 자기만 빼놓고 다들
한통속으로 자신을 속이려 든다.

「잘난 거 하나도 없는 놈들이 누굴 바보로 알고.」

생각하면 할수록 분통이 터졌다. 오늘로만 벌써 석 달째 돈을 잃고
있는 것이다. 노름을 하다보면 돈을 잃을 때도 있고 딸 때도 있는 법
인데, 이건 어떻게 된 게 늘상 잃기만 하니 이상하단 말이다.

「내가 그놈의 고래만 잡기만 하면-」

갑수는 신고 있던 장화를 툭 벗어던지고는 마당 평상에 발라당 누워



버렸다.

무심코 올려다본 밤하늘에 별들이 빼곡히 자리를 잡고 반짝이고 있었다. 눈을 감으면 40년 전 포경선이 줄지어 서 있던 장생포항이 떠올랐다. 잊을 수 없는 그때의 설렘과 흥분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았다. <그때 장생포가 진짜 장생포지.> 갑수는 눈을 뜨고 다시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도망가는 향유고래를 향해 뱃머리에서 작살을 쏘던 젊은 날의 자신의 모습이 저기, 별들처럼 선명히 밤하늘에 각인돼 있었다. <갑수야~안 돼. 쏘지 마!> 돛대 위 툽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던 석구의 모습이 떠오르면 갑수는 또 자신이 악몽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을 알았다. <왜 그랬어? 왜?> 석구는 오늘 밤도 피를 토하며 갑수를 노려보고 있었다.

400톤급 포경선이 부두에 들어왔다는 소문은 금세 퍼졌다. 배 앞머리에 포경포를 천막으로 덮어씌우고 아무리 일반어선이라 말을 돌려대도 다른 배들보다 뱃전이 낮고 유난히 높게 솟은 돛대 위에 툽까지 달려있는 것을 보면 물질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것이 포경선인지 알 수 있었다.

「요즘 누가 고래를 잡는다고 그러나?」

엔진 고장으로 잠시 부두에 들어왔다는 기관장은 기름에 찌든 옷에 손을 닦으며 말했다. 갑수는 차마 배에 올라볼 엄두는 내지 못하고 부두 끝에서 기웃기웃 오랜만에 보는 커다란 포경선을 올려다보고만 있었다. Rise East 호, 크기만큼이나 멋진 이름이었다.

갑수가 미련을 버리고 자신의 배로 돌아와 출항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밥은 먹은 게야?」하며 노모가 다가왔다. 뒤에 누가 올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던 갑수는 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밥은 먹고 나가는 거냐구?」

「좀 전에 어머니가 챙겨주셨잖아요.」

「내가 언제?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네.」

갑수는 답답한 마음에 다시 등을 돌리고 장비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포경선 Rise East 호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5톤 고깃배였지만 그래도 한 번 출항하려면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았다.

「근데 오늘은 어째 석구가 안 보이네?」

간 줄 알았던 노모의 목소리가 다시 등 뒤에서 들려왔을 때 갑수는 참아야 한다는 생각과 들춰 업고라도 집에 가둬놓고 와야겠다는 생각을 정확히 반반씩 하고 있었다.

「석구가 어딴어요? 석구가?」

갑수는 소리를 있는 대로 죽인 채 이를 꽉 깨물고 말했다. 옆에 선 배들도 다들 출항을 준비하느라 쳐다보는 사람은 없었지만 좀체 그 석구라는 이름은 입에 다시 올리기가 싫었다.

치매가 걸린 여든의 노모는 물끄러미 갑수를 올려다보았다. 진즉에 뱃머리에 자리를 잡고 퍼질러 앉은 상태였다. 잠시 그런 노모를 내려다보고 있다가 배를 끌고 나가서 확 그냥 바다에 버려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천인공노할 짓이고 패륜적인 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루에도 여러 번 그런 생각들이 머리를 스쳤다. 가만히 다가가 앉은 채로 노모를 들어 올렸을 때 「왜 그러는 게야? 아이고~이 녀석

이。」장난을 치는 줄 알고 좋아하는 노모의 얼굴을 보고 또 한 번 죄스러운 자신을 탓했다.

팔뚝만 한 생선 몇 마리만 잡은 채 부두로 돌아왔을 때, Rise East 호는 엔진을 고쳤는지 더그덩더그덩 소리를 내며 시험 운전을 하고 있었다. 400톤이나 되는 포경선의 엔진 소리를 듣는 것도 아주 오랜만의 일이었다. 일부러 갑수는 늘 대던 자리가 아닌 포경선의 옆으로 자신의 배를 가져다 댔다. 포경선의 엔진 소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갑수의 심장도 두근두근 스무 살의 그때로 돌아가는 것만 같았다.

「어이~김 선장.」

부두에 배를 대고 막 밧줄을 묶을 때쯤 등 뒤에서 묵직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저 밧줄을 묶고 돌아본 곳에 키가 훗칠하고 덩치가 큰 남자 하나가 담배를 입에 물고 서 있었다. 나이는 자신과 비슷해 보였지만 머리가 하얗게 세고 눈매가 날카로운 사람이었다.

「당신이 예전에 작살을 좀 쏘았다지?」

남자는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모를 말을 던졌다. 갑수는 그런 남자를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지기 싫은 마음에 「그래서...요?」 말끝을 흐리며 대답했다.

「그래서긴 뭐가 그래서야? 그 실력 한 번 보자는 거지.」

남자는 분명 반말을 하고 있었다.

「고래도 없는 곳에 작살을 쏘는 거는 애송이나 하는 짓이지.」

그 실력 한 번 보자는 말에 화가 난 갑수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적어도 살아생전 자신보다 작살을 잘 쏜다는 사람은 본 적이 없었다. 장생포 하면 고래잡이, 고래잡이 하면 김갑수 하던 시절이 엇그제 같았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 5톤 고깃배로 연명하고 있어도 고래잡이로 놀림을 당할 내가 아니다.

「비쩍 마른 주제에 배짱 하난 좋구만.」

잠시 땀을 흘리며 사람을 기분 나쁘게 아래위로 훑어보던 남자가 말했다. 갑수는 배짱 좋게 반말을 툭 던져놓기는 했지만 괜한 짓을 한 건 아닌가 하는 걱정 때문에 남자의 눈을 외면하고 있었다.

「내일 새벽에 배로 오소. 괜한 소리는 퍼트리지 말고.」

남자는 피우던 담배를 손가락으로 툭 튕겨 바다에 버리고는 돌아가버렸다.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을 봤나 생각했지만 갑수는 다시 포경선에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자 두근두근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1986년에 고래잡이가 금지되고 한두 번 몰래 조업에 나섰던

것 말고는 근 33년 만의 항해였다.

갑수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Rise East 호는 근해어업을 하는 평범한 고깃배였다. 딱히 정해놓은 어종은 없었지만 연안어업보다는 멀리, 원양어업보다는 가까운 곳에서 조업을 한다는 규칙만 명목상으로 지키면 되는 것이다.

〈지금 그 나이에 무슨 고래를 잡는다고.〉

〈그러다 감옥 가는 수가 있어. 조심해.〉

〈네가 고래를 잡아오면 내가 성을 간다. 성을 갈아.〉

지난밤 자신을 비웃던 인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잘난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들이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아주 상종 못할 것들이었다. 자신이 최고의 작살수였다는 얘기를 좀체 믿으려고도 하지 않는 몹쓸 인간들이었다. 갑수는 뱃머리에 서서 새벽 무렵 자신을 따라 나서던 노모를 떠올렸다. 「어딜 따라나서요? 금방 올 거라고요. 예?」 노모는 그런 말에도 아랑곳 않고 주섬주섬 바지춤에 돈주머니를 챙겨 넣으며 꾸부정하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제발, 가만히 좀 있어요. 제발!」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갑수는 그만 버럭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기저귀까지 찬 풍성한 엉덩이로 뻗뻗 자신을 따라나서는 노모의 행동에 순간 짜증이 났다.

영문을 알 리 없는 노모는 끔벅끔벅 순박한 눈으로 갑수를 올려다 보았다. 아들의 소매를 붙잡았던 거친 손은 이미 슬며시 뒤로 뺀 상태였다. 〈제발, 그런 눈 좀 하지 말아요. 예?〉 차마 갑수는 더 이상 말을

잊지 못하고 노모를 다시 이불 위에 앉혔다. 혼이 난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노모는 금세 또 갑수의 손을 만지작만지작하고 있었다.

「고래 잡아와서 어머니도 나도 땡땡거리고 살자구요. 예?」

갑수는 슬며시 노모의 손을 놓고 돌아섰다. 구부정하게 일어서 막문을 나설 때쯤 들려온 목소리에 갑수는 멈칫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다.

「고래는 함부로 잡으면 안 되는 것인데..」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는 멀쩡한 노모의 목소리였다.

출항을 한지 삼 일째 되던 날 새벽, 누군가 자고 있던 갑수의 몸을 툭툭 발로 찼다.

잠이 덜 깬 얼굴로 올려다본 머리 위에 처음 보는 사내 하나가 심드렁한 얼굴로 갑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준비하소..」

자기보다 열 살은 어려보이는 사내는 갑수가 반쯤 몸을 일으키자 문을 닫고 어딘가로 사라져버렸다. 선장도 아니고 기관장도 아니니 갑수는 항해사나 톱에서 감시하는 놈쯤 되겠지 생각하고 말았다.

갑수가 뱃머리에 나가 서기도 전에 배는 이미 빠른 속도로 고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언뜻언뜻 물 위로 머리를 내미는 고래의 모습에 갑수는 숨이 턱 막히는 것만 같았다.

「뭘해? 자리 잡아!」

그때, 돛대 위 톱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허겁지겁 포경포 자리로 달려가며 올려다본 톱에 조금 전 자신을 발로 툭툭 건드리던

사내가 우뚝 솟아 있었다. <재수 없는 놈 같으니라고.> 갑수는 구시렁거리며 포경포의 천막을 걷고 작살에 손을 얹었다. 차가운 쇠에 손이 닿는 느낌은 새벽 바다 이슬을 맞는 것처럼 아리고 소름이 돋았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어디 보자. 어디 보자.」 갑수는 터질 것 같은 흥분을 가라앉히며 주문과도 같은 말을 중얼거렸다. 전속력으로 달리는 밍크고래 곁에 언뜻 크기가 작은 물체 하나가 더 그림자를 드리운 것은 바로 그때였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사흘 밤낮을 두들겨 맞은 갑수는 퉁퉁 부은 눈으로 간신히 선장의 바짓단을 붙잡았다.

「한 번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오. 내, 내 다음번에는 꼭 고래를 명중시키리다.」

갑수는 살짝 열린 문틈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불빛을 보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 가랑이 사이를 기라면 기고, 바닥을 활으라면 활을 각오까지 돼 있었다.

「그러게, 온갖 잘난 척은 다하더니 고래 두 마리를 못 잡아서야 말이 되나? 안 그래?」

선장은 갑수의 머리채를 잡아채고 뺨히 겁에 질린 두 눈을 내려다보았다. 작살수라는 것들은 어찌나 변덕이 심한지 성질 같아서는 죄다 상어 밥으로 바다에 집어던지고 싶었다.

「마지막이야. 알아서 해. 한 번만 더 망설이면, 그땐 바다에 처넣어버릴 테니까.」

선장이 나가고 뒤이어 틈을 지키던 사내가 따라 나갔다. 지하 창고

에 남은 잡역부 두 사람이 갑수를 끌고 숙소로 돌아왔을 때, 갑수는 그제야 그들이 어린 동남아 청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 중 하나가 몰래 던져주고 간 주먹밥을 먹으며 갑수는 사흘 전 엄마고래 곁을 전속력으로 따라가던 아기고래를 떠올렸다. 왜 아기고래까지 쫓냐며 자신을 원망하던 석구의 눈빛이 아른아른 창밖 바다 위에 별이 되어 떠 있었다.

그 후 한 달 동안 고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식량도 조금씩 바닥이 나고 있었지만 선장은 도무지 물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살짝살짝 전파탐지기에 감지되었다가 사라지는 고래의 흔적에 바짝 날이 서 있었다. 그러다 며칠 뒤 포경선은 거대한 풍랑을 만나 반파되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배를 돌리겠다는 항해사와 아직 돌아가지 않는다는 선장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그나마 쓸 수 있는 식재료도 다 떨어졌다는 동남아 청년의 보고를 듣고 난 후였다.

「키가 말을 안 듣는다고요. 이렇게는 고래를 따라가지도 못해요.」

항해사는 방향타를 우측으로 꺾으며 선장의 눈을 피했다.

「멈춰. 멈추라고!」

선장은 죽일 듯한 눈빛으로 항해사를 노려보았다. 일순간 조타실에 깊은 정적이 흘렀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아니었다면 갑수는 숨을 쉴 수조차 없을 것 같았다.

선장이 포경포에 달려있던 작살을 들고 온 것은 몇 분 뒤였다. 조타실 문을 박차고 나갈 때부터 뭔가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았지만 갑수는 선장이 쇠사슬을 끊고 작살을 들고 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다시 좌현으로 들어. 어서!」

선장은 항해사를 향해 작살을 겨누고 있었다. 비록 쇠사슬이 낀 작살이었지만 던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람 몸을 관통할 수 있는 날카로운 무기였다.

「싫습니다.」

항해사는 꿈적도 않고 정면만 바라본 채 키를 조정하고 있었다.

적어도 그의 목소리에 선장을 두려워하는 떨림 같은 것은 없었다.

또다시 정적이 흐르고 선장이 정말 작살을 던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조타실 정면 창밖으로 무리를 지어 이동하고 있는 고래들이 나타났다. 그것은 등이 검고 눈 위에 뚜렷한 흰색 무늬가 있는 범고래 떼였다.

선장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작살을 던졌다. 갑수와 동남아 청년 둘, 그리고 작살을 던진 선장은 작살을 맞은 그 생명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등 뒤 목 아래에 정통으로 작살을 맞은 물체는 뒤를 돌아보는 것과 동시에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뭐해? 어서 빼!」

갑수는 선장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 물체에 달려들어 작살을 뽑았다. 곁에 서 있던 동남아 청년 둘은 가사를 알 수 없는 자기네 나라 민요를 중얼거리고 있었고 고래를 감시하는 사내는 이미 돛대 위 톱에, 기관장은 여전히 엔진을 점검하며 기관실에 머물고 있었다. 피에 젖은 작살을 들고 조타실을 나서며 갑수는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주문과도 같은 말을 뱉어내며 고래 떼를 찾고 있었다.

범고래 무리들은 상괭이 두 마리를 쫓고 있었다. 고래가 고래를 쫓는 것이다. 갑수는 키를 잡은 채 확성기로 고래고래 고함을 질러대는 선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돛대 위 툽에서는 재수 없는 사내가 우현으로, 좌현으로를 연이어 외쳐대고 있었다. 잡힐 듯 말 듯 범고래나 갑수의 무리나 답답하긴 매한가지였다.

범고래가 상괭이를 쫓고 포경선이 범고래를 쫓는 상황은 오후까지 계속되었다. 상괭이가 사라졌다 싶으면 범고래가 나타났고, 범고래가 사라졌다 싶으면 상괭이가 나타났다. 피할 그늘 한 점도 없는 바다 위에서 몇 시간을 땀별과 싸우며 고래를 따라다니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뱃머리에 선 갑수는 핑 심지어 어지러움을 느꼈다.

「지금이야. 싸!」

눈부신 햇살 아래에서 갑수는 마침내 작살을 쏘았다. 핑 어지러움도 잠시, 작살은 녹슨 와중에도 햇살을 받으며 검은 범고래의 등을 향해 곧게 날아갔다.

고래의 등을 찢고 들어간 작살이 고래의 등에서 몇 줌 피를 토해내게 하자 그 뒤로는 녀석이 지칠 때까지 따라가는 일밖에는 남지 않았다. 작살을 맞은 범고래가 스스로 지쳐 멈출 때까지, 쫓던 상괭이는 놓치고 인간에게는 잡히고 말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까지, 갑수가 할 일은 기다리는 일밖에 없었다.

10톤 남짓의 범고래를 끌어올리고 동료로 잃은 범고래 떼에게 상괭이 대신 항해사를 던져 주었다. 알 수 없는 자기네 민요를 불러대던 동남아 청년 둘은 옷에 피를 묻히고는 반쯤 낮이 나가 버렸다. 「이까

짓 짓 아무것도 아니야.」

애써 청년들을 다독이는 갑수의 손도 벌벌 떨려 왔다.

그날 밤 선장은 범고래의 살점을 몇 점 때 나눠주며 술을 권했다.

식량은 거의 바닥나 있었지만 포경선에 술이 떨어지는 일은 없었다.

「혼획됐다고 하면 그만이야. 어서들 먹어 뒤.」

갑수는 익히지도 않은 고래 살점을 내려다보다 괜히 선장에게 밍보 일까 살점을 들고 우걱우걱 씹어댔다. 곁에 앉은 동남아 청년 둘은 커다란 눈망울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며 선장의 눈치만 보고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앉아 선장이 따라주는 소주만 훌쩍훌쩍 마셔대는 톱을 지키는 사내가 갑수는 영 탐탁지 않았다.

몇 시간 뒤 술이 얼큰하게 오른 갑수는 사내와 선장, 불쌍한 동남아 청년 둘을 남겨두고 바람을 쐬기 위해 갑판으로 나왔다. 뱃머리에 올라서 내려다보니 바다는 어둠을 집어삼킨 듯 잔잔히 검은 물결만 넘실대고 있었다. 쏟아질 듯 별들이 가득한 하늘과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바다, 그 적막을 깨고 바다 위를 나아가고 있는 포경선의 엔진 소리가 갑수가 보고 듣는 전부였다.

「가만있어!」

그때, 등 뒤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돌아본 곳에 조금 전까지 선장이 따라주는 소주를 쪽쪽 들이켜고 있던 사내가 서 있었다.

「가만있으라고!」

사내는 최대한 목소리를 낮춘 채 신경질적으로 갑수의 소매를 붙잡았다. 사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 검은 바다 위에 바다보다 더 짙은 물체 하나가 머리를 빼꼼 내놓고 있었다.

숨을 죽이고 바라본 것은 몸체에 하얀 따개비가 붙은 귀신고래였다. 그래, 분명 저 고래는 회색 몸체에 흰 따개비들이 붙은 귀신고래야, 라고 갑수는 생각했다. 밤이 깊어 검게 보일뿐 분명 몸체는 회색일 거라고 갑수는 확신했다. 열다섯 살 때 아버지를 따라 나간 바다에서 마지막으로 보고 45년 만에 보는 것이었다.

「작살 잡아. 작살 잡으라고!」

사내는 귀신고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갑수를 포경포 자리로 툽 밀었다. 잠시 머뭇거리며 서 있는 갑수를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뭐해? 어서 가서 안 잡고.」 사내는 이를 짹 깨물고 당장이라도 갑수를 칠 것처럼 노려보았다. 하지만 갑수는 작살을 잡고 싶지 않았다. 세 발짝만 가면 작살을 잡을 수 있었지만 귀신고래를 본 순간부터 갑수의 귓가에는 <고래는 함부로 잡는 게 아닌 데.> 하던 노모의 목소리만 들려오고 있었다.



「이런 허접한 새끼 같으니라고.」

참다못한 사내가 갑수를 밀치고 작살을 잡았을 때, 갑수는 조용히 그의 뒤로 다가가 가지고 있던 칼로 옆구리를 찔렀다. 언제부터 칼이 자신의 주머니에 있었는지는 떠오르지 않았다. 단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면 쓰겠다는 생각뿐이었다.

〈귀신고래는 한 마리가 작살을 맞으면 가족들이 자리를 떠나지 않아. 그러다가 모두 죽고 말지.〉

갑수는 뱃머리에서 아버지가 들려주던 이야기를 떠올렸다. 〈그러면 한꺼번에 여러 마리를 잡고 좋잖아요.〉라는 아들의 말에 아버지는 갑수의 머리를 툭 밀며 말했다.

〈네가 작살에 맞으면 아빠도 엄마도 모두 다 죽는다고. 그래도 괜찮아?〉

갑수는 멀어져가는 귀신고래 가족을 보며 씩씩한 입맛을 다셨다.

머릿속으로는 돈이 없어 굶어죽으나 작살을 맞아 죽으나 매한가지일 텐데, 늘 빈손으로 물으로 돌아가는 아버지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버지의 말대로 귀신고래는 모두 세 마리였다. 길이는 10미터가 훌쩍 넘고 무게는 족히 40톤은 돼 보이는 두 마리 곁에 아직 어린 고래 한 마리가 장난을 치는 듯 이리저리 헤엄을 치고 있었다. 언뜻 그들을 비추는 달빛에 갑수는 톱을 지키던 사내를 바다로 밀어 던지고 잠을 자기 위해 선실로 내려갔다.

다음날, 선장은 늦게까지 일어나지 않았다. 갑수는 선장을 대신해 조타실에서 키를 잡고 있었고 동남아 청년 둘은 뱃머리에서 서로의

손을 잡은 채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조타실까지 들려오는 그 노래는 아마도 집으로 돌아가길 바라는 내용일 거라고 갑수는 생각했다.

오후부터 추적추적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고에 다녀온 동남아 청년 하나는 물까지 모두 떨어졌다고, 이제는 정말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간곡히 말했다. 엔진이 꺼졌다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급기야 엔진이 꺼졌다고 기관장이 조타실에 올라왔다. 웬만해선 기관실을 비우지 않는 그가 조타실에 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말이었다.

「밍크고래 한 마리는 잡고 가야지. 범고래는 돈도 안 돼.」

그때, 조타실 간이침대에서 잠이 깬 선장이 말했다. 떨어져 있어도 그에게서는 아직도 술 냄새가 진동했다.

「딱히 모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더 고래를 실었다가는 엔진이 박살이 나고 말아요. 고칠 수 있는데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더는 안 된다는 듯이 기관장이 말했을 때 선장은 들은 체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섬주섬 바지를 챙겨 입었다. 목이 타는지 곁에 놓인 생수통을 들어서는 왈각왈각 목구멍 속으로 물 한 통을 다 털어 넣었다.

저녁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고치라는 선장의 얘기를 듣고 기관장은 기관실로 내려갔다. 키를 맡길 테니 물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는 그의 물음에 기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틈을 지키던 놈은 보지 못했다는 갑수의 대답에 선장은 또 한 놈 갇구만, 마치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중얼거리며 조타실을 나섰다. 그는 한참 동안 포경

포 주위를 어슬렁거리며 갑수의 속을 태웠다.

저녁이 되자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다. 엔진의 시동이 몇 번 걸리는 것 같더니 다시 꺼지기를 여러 번 반복했다. 선장은 술이 마저 깨기도 전에 다시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동남아 청년들이 여전히 그치지 않는 빗속에서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고 있을 때, 조타실 위쪽의 헤드라이트가 번쩍 들어오며 마침내 시동이 걸렸다. 「재수 없으니까 제발 재들 좀 치워라.」는 선장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포경선은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갑수는 딱 한 마리만, 엄니랑 내랑 먹고 살 수 있게 딱 한 마리만, 하며 밧줄 사다리를 밟고 돛대를 오르고 있었다.

고래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돛대 위 톱에 올라오고 보니, 어디가 수평선인지도 모를 만큼 짙은 어둠이 하늘과 바다를 뒤덮은 채 속절없이 태풍과도 같은 빗줄기만 거세지고 있었다. 포경선은 엔진을 켜는데도 점점 높아지는 풍랑에 이리 휘청 저리 휘청 갈피를 잡지 못하고, 도대체 무슨 노래를 저리도 열심히 부르는지 갑판에 선 동남아 청년들은 이제는 오히려 더 큰 목소리로 고래고래 고함을 치고 있었다.

상괭이 떼가 나타난 것은 바로 그때였다. 톱에 올라와 있던 갑수는 동남아 청년들이 갑자기 노래를 뚝 멈추자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곳에서 포경선 양옆을 에워싸고 있는 상괭이의 무리를 보았다. 적어도 열두셋 마리는 될 것 같은 수였다.

「뭐해? 보고 안 하고.」

확성기를 통해 얼큰히 취한 선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고 동남아 청년 둘은 갑수가 있는 돛대 위 톱을 올려다보았다.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갑수는 선장이 찾는 고래는 상괭이가 아니니 괜찮다고 애써 위로하며 그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 대답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포경선 오른쪽 뒤편에서 범고래 네댓 마리가 나타났다. 분명 범고래 무리는 상괭이 떼를 뒤쫓고 있는 것이다.

뒤늦게 범고래 무리의 공격을 눈치 챈 상괭이 떼들이 슈욱, 슈욱 소리를 내며 포경선 왼쪽으로 대거 이동했다. 열두셋 마리의 상괭이 떼들이 포경선 왼쪽으로 쭉 이동하고 범고래 네댓 마리가 포경선들 사이에 두고 상괭이 떼들을 쫓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이었다. 갑수는 톱 위에서 그 모든 광경들을 바라보며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리고 그 순간, 번쩍하는 번개와 함께 조타실 위 헤드라이트가 나가고 엔진 시동이 모두 꺼져버렸다. 동남아 청년들의 노래 소리까지 끊긴 포경선은 일순간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작살 잡아.」

다음 번 번개와 함께 나타난 것은 선장이었다. 뒤편에 요란한 천둥 소리가 들리고 갑수가 내려다본 갑판에 공포에 질린 얼굴로 동남아 청년 둘이 선장을 피해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저기 봐. 저렇게 고래가 많은데 다들 뭐하는 거야? 응?」

선장은 뱃머리를 등진 채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청년 둘을 향해 다가갔다. 그때, 뒷걸음질 치던 동남아 청년 하나가 다시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돛대 위 툽에서 그 노래를 듣고 있던 갑수는 단조의 구슬픈 가락에 그 노래가 아마도 민요일 거라고 짐작하고 있었다.

「어서 잡으라고!」

선장의 고함소리가 천둥처럼 귓가를 울렸다. 더 뒷걸음질 치지 못하고 포경포 앞에서 걸음을 멈춘 동남아 청년 둘은 다시 서로의 손을 잡았다.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천둥과 번개에도 좀처럼 그 민요를 멈추지 않았다. 선장이 주머니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냈을 때에도, 한 발 두 발 다가가 그 번뜩이는 칼날을 하늘 위로 쳐들었을 때에도 좀체 두려워하지 않고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재수 없는 새끼들.」

선장은 칼을 쥔 채 동남아 청년들을 향해 걸어갔다. 동남아 청년들은 마침내 노래를 멈추었다.

「Tolong, sila.」

그때, 동남아 청년 중 키가 작은 청년이 나직이 말했다. 선장은 처음 듣는 그들의 말에 멈칫, 잠깐 걸음을 멈추었지만 금세 코웃음을 치며 한 발 더 다가갔다.

「Tolong, jangan bunuh ikan paus.」

작은 청년보다 손바닥만큼 키가 크던 청년이 선장을 향해 외쳤다. 뒤편은 거야, 한 발 한 발 더 다가가는 선장의 얼굴은 시퍼런 번개 불빛 안에서 차갑게 웃고 있었다.

*

동남아 청년 둘이 바다로 뛰어든 것은 향유고래 한 쌍이 나타난 순간이었다. 머리가 몸길이의 1/3을 차지하는 향유고래는 우스울 만큼 아주 작은 가슴지느러미를 달고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고 회색이 짙은 향유고래를 향해 선장은 작살을 쏘았다. 발사된 작살이 고래를 향해 곧게 날아가고 선장은 명중을 확신하며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크기가 작고 회색보다는 흰색에 가까운 다른 한 마리가 물 위로 날아올랐다. 무게가 거뜬히 40톤은 되어 보이는 녀석이 날아오르자 돛대 위 톱에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던 갑수도 입을 떡 벌리고 녀석의 움직임을 눈으로 좇았다.

「맞았다!」

선장의 짧은 회열이 들림과 동시에 날아오른 녀석의 옆구리에 작살이 명중했다. 작살을 달고 다시 물속으로 곤두박질치는 녀석을 따라 크기가 큰 녀석도 바다 속으로 사라졌다. 그것은 아주 찰나의 일이었다. 향유고래가 바다 속으로 사라지고 동남아 청년 둘이 물 위로 떠오른 것은, 또한 피를 흘리며 전속력으로 내달리던 녀석의 옆구리에 박힌 작살이 포경포 곁에서 환호하고 있던 선장까지 모두 바다 속으로 데려간 것은, 멀쩡하던 엄마가 댁은 누구슈, 라고 물어보던 순간 만큼 아주 짧은 순간의 일이었다.

폭풍우가 지나가고 새벽이 올 때까지 갑수는 돛대 위 톱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 간신히 몸을 얹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았을 때 하늘

과 바다는 온통 푸른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갑수는 톱 난간을 짚고 일어서 다시 잠잠해진 바다를 내려다보았다. 정작 자신이 무엇을 감시하기 위해 이곳에 올라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고래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고래를 잡지 못했다고 아버지가 죽은 것은 아니다. 화투판에서 자신을 놀리는 인간들은 화투로 이기면 될 일이다. 광팔이에게 어떤 뇌물을 받치더라도 내 편으로 만들면 그만인 것이다.

갑수가 팬스레 실실 웃고 있던 순간에 멀리 수평선 근처에서 고래 한 마리가 다가왔다. 등이 검은빛 회색을 띠고 가슴지느러미 중앙으로 흰 문양이 가로지르는 영락없는 밍크고래였다.

녀석은 평화롭게 포경선 주위를 헤엄쳐 다녔다. 마치 적은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아는 것만 같았다. 아니면 적어도 갑수가 적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눈치였다. 유유히 헤엄쳐 다니는 녀석을 보고 있을 때, 어디션가 불쑥 또 한 놈이 물 위로 모습을 드러냈다. 몸길이가 채 3미터도 되지 않는 녀석의 새끼였다.

갑수는 밧줄 사다리를 밟고 천천히 돛대를 내려왔다. 내려와 뱃머리에 다다랐을 때 수평선 멀리에서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 엄마와 아기 고래는 서로에게 의지해 유유히 붉은 바다를 떠다녔다. 갑수는 문득 바닷가에서 수영을 가르쳐주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다. 물에 빠진 자신을 들어 올리며 웃던 젊은 날의 그녀의 모습은 지금과는 너무나 달랐다. 장난스레 엄마의 곁을 맴도는 아기고래의 모습은 물장구를 치며 엄마를 따라가던 지난날의 자신의 모습과 닮아 있었다.

갑수는 조타실로 올라가 엔진에 시동을 걸었다. 엔진은 몇 번 시동이

걸리는 것 같더니 꺼지기를 반복했다. 하지만 갑수는 걱정하지 않았다. 지난밤 폭풍우가 치던 순간에도, 오늘 새벽 바다가 그렇게 잔잔하던 순간에도 기관장은 열심히 기관실에서 엔진을 고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마침내 시동을 걸고 갑수는 꼬박 사흘이 걸려 부두로 돌아왔다.

고장 난 냉동고에는 썩어버린 범고래 한 마리만이 처참히 누워 있었다. 그렇게 도착한 부둣가에서 갑수는 두 달 동안 아들을 기다리던 노모가 바다에 빠져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등대와 밍크고래



제7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소설

박남규

저 멀리 동쪽 바다에 아침해가 둥근 정수리를 내밀자 잔잔한 바다는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최만도 노인은 등대를 향해 거룻배의 노를 힘차게 저었다. 어장으로 나가 고기 잡는 일을 어부들은 ‘물보러 간다’고 한다. 이른 아침에 등대 앞에 있는 정치망으로 물보러 가는 일을 만도 노인은 육십 년이 넘게 해오고 있었다. 그야말로 이골이 난 일이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물보러 다니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따라 다녔었다. 그러니까 그는 그 일을 3대째 해오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자신의 자식들은 어부의 삶을 마다하고 모두 도시로 떠나 버렸다. 그래서 그는 그 일이 자신으로 끝난다는 생각 때문에 마음 한 구석은 늘 허전했다.

몸살 때문에 어제 하루 물보기를 거른 터라 마음은 더 바빴다. 물보

기를 거르는 일은 좀체 없었다. 그가 워낙 부지런해서 그렇기도 했지만, 하루라도 거르게 되면 그물에 든 고기들이 죽거나 상하기 때문이었다. 그의 정치망은 별로 크지는 않았다. 그렇긴 해도 거룻배로 혼자 물을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한동안은 마누라 밤골택을 데리고 다니기도 했지만, 마누라가 무릎에 관절병이 생긴 뒤로는 그럴 수도 없게 되었다.

곧 거룻배는 등대 앞에 도착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높게 솟아있는 하얀 등대를 바라보았다. 등대는 그의 오랜 벗이었다. 그가 바다에서 일하는 것을 늘 지켜보는 것도 바로 그 등대였다. 그래서 그는 혼자서 뱃일을 해도 결코 외롭지 않았다. 바다 위에 그의 정치망을 표시하는 하얀 부표가 떠 있었다. 그는 끝에 갈고리가 달린 샷대로 노련하게



부표를 건져 올렸다. 그리고는 밧줄을 당기기 시작했다. 밧줄은 물 아래 정치망과 연결돼 있었다. 밧줄이 평소보다 좀 묵직했다. 묵직하다는 것은 그물 안에 고기가 많이 들었다는 뜻이었다. 그의 주름 가득한 얼굴에 설핏 미소가 지나갔다.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힘차게 밧줄을 당겼다. 그런데 당길수록 그물은 더 무거웠다. 당연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쳤다. 그는 뭔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간혹 그물 아래쪽에 돌이나 홍수 때 떠내려온 커다란 나뭇가지가 걸려 있으면 그물이 지나칠 정도로 무거워졌다. 만약 그렇다면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고생을 좀 해야 될 판이었다. 그는 기쁨 반 의심 반의 얼굴로 시선은 바닷속을 살피면서 손은 밧줄을 당기고 있었다. 드디어 그물 윗부분이 나타났다. 그런데 이상했다. 보통 그물이 위로 올라오면 그 속에 든 고기들이 당황해서 이리저리 부산스럽게 돌아다녀야 하는데, 이번에는 그물 안이 텅 빈 듯 조용했다. 그는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그물을 좀 더 당겨 올렸다.

그때 거대하고 시커먼 물체가 시야에 확 들어왔다. 그는 놀라서 하마터면 엉덩방아를 찧을 뻔했다. 수십 년 동안 뱃일을 했지만 그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그는 겁이 나면서도 대체 그게 뭔지 조심스럽게 살폈다. 거대한 물체는 조금씩 위로 떠올랐다. 밑에서 받쳐 올리는 그물의 힘과 부력에 의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것이었다. 드디어 그 정체가 드러났다. 그것은 고래였다. 만도 노인은 다시 한 번 깜짝 놀랐다. 고래가 자신의 그물에 들어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자신의 눈앞에서 벌어졌으니, 그가 놀라고 당황하는 것도 당연했다.

그는 가슴이 마구 뛰었다. 그러면서도 눈을 떼지 못하고 고래를 살폈다. 녀석은 눈대중으로도 5미터는 넘을 듯했다. 꽤 큰 놈이었다. 가슴지느러미에 흰 줄이 있었는데, 그것은 놈이 밍크고래라는 뜻이었다. 오래전이긴 하지만 그는 밍크고래를 본 적이 있었다. 잡은 고기를 팔기 위해 시내에 있는 위판장에 들렸었는데, 그곳 한편에 커다란 고래 두 마리가 나란히 놓여있었다. 사람들 말로는 어떤 어장에서 잡힌 밍크고래라고 했다. 그런데 그놈들도 양쪽 가슴지느러미에 흰 줄이 나 있었다.

녀석은 미동도 없이 부유하는 것으로 봐서 의식이 없는 것 같았다. 다른 고기들이 안 보이는 것은 그 녀석을 피해 구석으로 숨어버렸기 때문일 터였다. 어느새 만도 노인의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으로 오만 생각이 떠올랐다. 이제 나도 벼락부자가 되는 것인가 하고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다. 흔히 사람들이 고래를 ‘바다의 로또’라고 한다는 걸 그도 알고 있었다. 또 다 자란 밍크고래라면 수천만 원을 호가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는 다시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당황하는 자신을 진정시키려고 두어 번 심호흡을 했다. 그때 펄떡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만약 고래가 살아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었다. 그는 곤혹스러웠다. 고래가 살아있다면 보통 골치 아픈 일이 아닐 것 같아서였다. 그물에 스스로 들어와 있어도 살아있으면 방면해야 된다는 것을 그도 들어서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법이 아니라도 만약 고래가 살아있으면 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래를 팔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는 무식했지만 고래를 물고기roman 보지는 않았고, 자신처럼 생각이 있는 생명체처럼

여겨졌다. 그런 녀석을 살았는데도 식용으로 판다는 것은 양심상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다행인지 어쩐지 고래는 여전히 아무 미동도 없었다. 확실히 고래는 이미 죽은 것 같았다. 그렇다면 녀석을 그물 밖으로 내보내 봐야 상어나 다른 포식자들의 먹이밖에는 안 될 터였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는 한결 마음이 편했다. 이제 그는 녀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자신이 감당하기에는 녀석은 너무 컸다. 녀석을 배에 건져 올릴 수 있다고 해도 거룻배는 가라 앉고 말 터였다. 녀석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장비를 갖춘 큰 배와 일손을 구해 와야 했다. 그는 물보는 것을 포기하고 급히 마을에 돌아가기로 했다.

그는 마을로 가면서 소문이 안 나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자신에게 주의를 주었다. 그리고 누구 도움을 받아야 소리소문 없이 썩사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어림짐작으로 봐도 고래는 5톤이 넘을 듯했다. 그런 녀석을 끌어올리자면 우선 크레인이 설치돼 있는 배부터 구해야 했다. 또 고래를 팔아넘기자면 거간꾼도 필요했다.

좋은 거간꾼만 찾아낸다면 일은 한결 쉬울 터였다. 그러나 마을에는 크레인이 설치돼 있는 큰 배도 없었고, 거간꾼 노릇을 할 만한 사람도 없었다. 모두 시내에서 구해 와야 한다는 말이었다. 세상물정에 어두운 그로선 낭패스러웠다. 그런데 마을로 들어가면서 선창가를 살펴보니 얼핏 영도가 눈에 들어왔다. 만도 노인은 그가 무척 반가웠다.

영도는 집안 동생뻘 되는 60대 초반의 사내였다. 그는 원양어선을 탄 경력이 있어서 고래 같은 대형 고기에 대해서도 잘 알았고, 또 그

것들의 유통 구조에 대해서도 밝은 편이었다. 만도 노인은 거룻배를 도박시키고는 배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영도 쪽으로 다가갔다. 영도는 선창가에서 그물을 손보고 있었다. 선창가에는 서너 명의 마을 사람들이 역시 그물이나 어구를 손보고 있었고, 시내에서 낚시하러 온 사람들도 몇 명 보였다. 만도 노인은 그들이 신경 쓰였다. 그래서 그는 멈춰 서서 뒷짐을 지고는 영도와 눈이 마주치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영도 눈길은 그물에만 고정돼 있을 뿐이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다시 영도한테로 다가갔다. 그가 코앞까지 다가갔을 때에야 겨우 영도는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형님, 좀 전에 물보러 가더니 빨리 돌아왔네요. 고기가 통 안 들었던 모양이지요?”

만도 노인은 주위 사람들을 한번 살피고는 대답 대신 영도 팔소매를 잡고 은근히 끌었다. 그런데도 이 눈치 없는 사람은 멀뚱히 쳐다볼 뿐 따라올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만도 노인은 그가 알미워 잠시 눈으로 나무라고는 다시 소매를 끌었다. 그제야 그는 잡고 있던 그물을 놓고 엉거주춤 따라왔다. 그때는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눈으로 이미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다. 좀 떨어진 곳으로 오자 만도 노인은 영도 귀에다 대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우리 그물에 고래가 들어왔네. 내 좀 도와도라.”

“머라꼬요! 형님 그물에 고래가 들어왔다꼬요?”

놀란 영도가 자신도 모르게 이 특급 비밀을 큰소리로 발설해버리고 말았다. 영도보다 더 놀란 만도 노인이 눈총을 주며 손으로 그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 한둘은 이미 그 말을 들어버린 것 같았다. 영도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알아채고는 더 먼 곳으로 먼저 걸었다. 만도 노인은 허적허적 그를 따랐다. 이쯤이면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곳까지 왔을 때 영도가 돌아서며 불쑥 만도 노인의 손을 감싸 쥐었다.

“형님, 고래를 잡았다는 기 참말입니까?”

“내가 와 거짓말하겠노. 나는 그놈 보고 놀라서 아직도 가슴이 벌렁 거린다.”

영도가 감싸쥔 만도 노인의 손에 힘을 넣었다.

“이제 형님은 팔자 고친 겁니더. 그래 이제 우짤랍니까?”

“그걸 몰라서 자네를 이리 찾아온 거 아이가. 그놈이 하도 커서 우째야 될지 요량이 안 선다. 배에 신자면 끌어올릴 기계 달린 큰 배도 있어야 할 끼고, 또 그놈을 팔려고 해도 거간꾼이 필요할 끼고……”



“당연하지요. 그거는 내한테 맡겨놓고 일단 고래부터 한번 보입시다.”

그들은 영도 배가 도박대 있는 선창으로 다시 갔다. 선창에 있는 사람들이 아까보다 더 관심 있는 눈초리로 두 사람을 살폈다. 만도 노인은 그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두 사람은 그들의 눈을 피해 서둘러 배에 올랐다. 곧이어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가 싶더니 배는 등대를 향해 내달렸다. 그들은 금세 등대 앞에 도착했다.

배를 멈추고 갑판으로 나온 영도는 샷대를 들고 정치망 부표를 건져 올렸다. 마치 제 어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같았다. 두 사람은 앞뒤로 서서 힘을 모아 밧줄을 당겼다. 곧 정치망이 나타났다. 그리고 비좁은 그물 속에 들어있는 커다란 고래도 나타났다. 영도는 놀란 눈으로 고래를 살폈다. 만도 노인은 그런 영도를 쳐다보며 어떻게 해야 될지 눈으로 물었다.

“밍크네요! 이미 죽은 것 같으니 유통에도 별 문제없을 것 같고, 형님은 이제 로또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집니다. 축하합니다, 형님! 그나저나 이 배 가지고는 택도 없고, 펄럭 시내에 있는 브로커한테 연락해서 크레인 달린 큰 배를 가져오라고 해야 되겠습디.”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러더니 잡은 고래에 대해 이런저런 설명을 늘어놓았다. 만도 노인은 불안한 표정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한참 동안 이야기를 주고받던 영도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전화를 끊었다.

“브로커가 하는 말이 요즘은 감시가 심해서 해경한테 고래유통증명

서를 받아내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하다네요.”

“그라도 우째야 하노.”

“그물에 제 발로 들어온 놈이고, 이미 죽었으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심더.

해경에 신고부터 하십시더.”

“내가 고래 팔면 수고비는 섭섭지 않게 쳐줄 테니까 동생이 좀 나서서 일을 처리해주면 좋겠네. 아예 자네 배로 같이 시내로 들어가세.”

“그럼시더. 그 전에 일단 고래는 그물에서 빼내가지고 등대섬으로 옮겨놓읍시더. 그래야 큰 배를 구해오더라도 빨리 실을 수 있을 겁니더.”

그들은 고래 꼬리에다 밧줄을 묶어 가라앉지 않게 고물에 있는 말뚝에다 걸었다. 그러고는 그물에 연결된 밧줄을 풀었다. 그물이 가라앉으며 자연스럽게 고래가 그물로부터 분리되었다. 그들은 배를 천천히 전진시켜 등대섬 북편에 있는 자갈밭으로 고래를 끌고 갔다. 배가 섬에 도착하자 그들은 고래를 묶은 밧줄을 가지고 뛰어내렸다. 그러고는 온 힘을 다해 고래를 당겼다. 고래는 너무 무거워 두 사람 힘으로는 물에 올릴 수 없었다. 그러나 가장자리에다 걸쳐놓는 데는 성공했다. 그들은 고래가 떠내려가지 않게 꼬리에 묶은 밧줄을 바위에다 단단히 둘러맸다. 그런데 그때 시내 쪽에서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동시에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쳐다보았다. 저 멀리 쾌속선이 하얗게 물살을 가르며 달려오고 있었다. 해경이었다. 만도 노인은 겁먹은 얼굴로 영도를 쳐다봤다.

“어떤 놈이 그새 해경에 신고를 한 모양이네요.”

“그러게 아까 선창에서 말조심하라고 했잖은가.”

“어차피 해경에 가려던 참인데, 오히려 잘 됐심더. 이참에 경찰한테 정당하게 허가받고 팔면 더 좋지요, 뭐.”

“일이 그렇게 쉽게 된다면야 좋긴 하겠네만……”

두 사람이 불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중에 어느새 해경 순찰선은 코앞에 다가와 있었다.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는 사이렌 소리가 두 사람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다. 순찰선은 영도 배 좌현에 멈춰 섰고, 기분 나쁜 사이렌도 꺼졌다. 근무복을 입은 경찰 세 명이 순찰선 이물로 나오며 만도 노인과 영도, 그리고 물가에 드리누운 고래를 살폈다. 그들 중 두 명은 영도 배로 건너가더니 갑판 아래에 있는 어창을 살폈다. 혹시 거기에도 불법으로 포획한 고기가 있는지 의심하는 거였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그들은 이물에서 자갈밭으로 뛰어내렸다.

“당신들이 이 고래를 잡았소?”

말이 꽤 고압적이었다. 만도 노인은 마치 취조를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좀 불쾌했다.

“잡긴 누가 잡았다고 그랍니께. 지 발로 정치망 안으로 들어온 거라 니까요.”

“어쨌든 고래가 당신들 그물 안에 있었다면 당신들이 잡은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서 영도가 급하게 손사래를 쳤다.

“저는 아입니다. 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저는 단지 이 형님이 고래가 그물 안에 들어왔다면서 좀 도와달라기에 따라온 것뿐입

니다.”

이 말에 만도 노인은 살짝 섭섭함을 느꼈다. 저 혼자 살겠다고 자신을 내팽개치고 달아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것이다. 경찰 둘은 고래한테로 다가서더니 여기저기 살피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고래 옆구리에 난 작은 상처를 찾아내고는 자신들끼리 속닥속닥 의견을 주고받았다. 만도 노인과 영도는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고 귀를 쫓긋 세웠다. 그들은 그 상처가 작살이나 다른 포획 도구에 의해 생긴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건 누가 봐도 작살 같은 도구에 의한 상처는 아니었다. 아마 조금 전에 고래를 섬으로 끌어올릴 때 날카로운 바위에 찍혔거나, 아니면 바위에 붙은 조개류 껍데기에 긁힌 게 분명해 보였다. 어쨌든 경찰은 가져온 카메라로 고래 사진을 여러 장 찍었고, 역시 가져온 줄자를 꺼내 길이나 몸통을 재고는 그것을 수첩에다 기록도 했다. 만도 노인과 영도는 마치 고래가 자신들이 훔친 장물이라도 된다는 듯이 죄인처럼 묵묵히 경찰들이 하는 행동을 지켜보고 있었다. 만도 노인은 경찰로부터 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실감하고 있었다. 그는 고래 옆구리에 난 상처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싶어 입이 근질거렸다. 그러나 경찰은 사진을 찍고 저들끼리 의견만 주고받을 뿐 거기에 대해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만도 노인은 답답했다.

묵묵히 자신들의 일에만 몰두하던 경찰이 드디어 몸을 일으켜 시선을 만도 노인한테로 돌렸다.

“일단 우리는 경찰서로 돌아가서 수집한 자료를 검토하고, 상부에 보고도 해야 합니다. 그 뒤 당신들의 주장대로 고래가 스스로 들어와

죽은 게 맞다는 결론이 나오면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겁니다. 그때까지는 절대로 이 고래를 해체하거나 옮기거나 처분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있는 상태 그대로 놓아두세요.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법에 의해 처벌받는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는 경찰은 자신들의 순찰선에 올라타고 시내 쪽으로 내달렸다. 만도 노인은 황당한 기분이었다. 바다의 로또에 당첨되어 벼락부자가 되는 줄 알았더니 고래한테는 손도 못 대게 할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범죄자로 몰릴 판이었다. 어쩔 수 없이 두 사람은 고래를 그대로 놓아두고는 배를 타고 마을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헛헛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술을 한잔하기로 했다. 장소는 마을 어부들이 종종 들르는 선창가 근처 허름한 선술집이었다. 술만 시키면 따라 나오는 마른 멸치와 김치 쪄가리로 두 사람이 권커니 잣 거니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웬 낯선 사내 하나가 들어섰다. 사내는 어깨에 카메라를 메고 있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만도 노인은 그 카메라에 긴장했다. 아까 경찰이 들고 있던 카메라와 연상작용을 일으킨 것 같았다. 사내는 두 사람한테로 다가왔다.

“혹시 최만도 어르신 되십니까?”

사내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오자 만도 노인은 눈이 동그래졌다. 만도 노인의 긴장감을 알아차렸던지 사내는 손사래를 치며 놀라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모 지방지 기자라며 자신을 소개했다. 사실 그도 해경과 비슷한 시간에 마을 어촌계장으로부터 고래를 잡았다는 제보를 받았다. 다만 그는 해경처럼 빠른 쾌속선이 없어서 한발

늦게 도착했을 뿐이었다. 사내는 표정과 말투가 사근사근했다. 이미 경찰이 왔다갔다는 말을 듣고는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위로까지 해주었다. 그러나 곧 기자의 본색을 드러냈다. 수첩을 탁자 위에 꺼내 놓고는, 고래를 어떻게 잡았느냐, 얼마나 큰 고래냐, 무슨 종류냐, 죽었느냐 살았느냐, 이런 질문을 쏟아냈다. 그렇다고 아까 그 해경처럼 위압적으로 말하지는 않았다. 더구나 자신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도 노인이나 영도가 하는 말을 귀담아듣기도 했다. 그게 만도 노인을 조금 기분 좋게 했다.

만도 노인의 기분을 알아챈 기자가 현장에 가서 직접 고래를 보고 싶다고 했다. 만도 노인은 흔쾌히 승낙했다. 그리고 세 사람은 영도 배를 타고 다시 등대섬으로 갔다.

섬에 도착해보니 썰물 때라 고래는 자갈밭에 덩그렇게 누워 있었다. 배에서 내린 기자는 아까 그 해경처럼 고래 이곳저곳을 유심히 살피며 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해경과는 달리 만도 노인과 영도를 없는 사람 취급하지는 않았다.

자신의 일을 하면서도 두 사람에게 이것저것 묻고 귀담아들었다. 그게 두 사람을 또 기분 좋게 했다. 자신들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게 그렇게 만든 거였다. 그런데 고래는 다가온 햇살에 등과 뱃가죽이 바짝 말라있었다. 그게 안타까운 만도 노인은 배에서 가지고 온 바가지로 바닷물을 퍼 날라다 고래 몸뚱이에 뿌리기 시작했다. 그때의 만도 노인 표정은 가뭄으로 엉그름이 저가는 논바닥에다 등짐으로 지고 온 물을 들이붓는 농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형님, 구마 마이소. 그렇다고 죽은 고래가 다시 살아날 것도 아닌데

헛고생 와 합니까.”

그러나 영도의 만류를 만도 노인은 듣지 않았다. 그는 몇 번이나 바닷물을 퍼 나르며 고래의 커다란 몸뚱이 구석구석 빠지지 않고 물로 적셨다. 그런데 어느새 기자가 그걸 부지런히 카메라에 담고 있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만도 노인에게 이런저런 행동을 해달라고 요청까지 했다. 그래서 만도 노인은 고래 머리 옆에 쪼그려 앉아 고래와 눈을 맞추기도 하고 고래 몸뚱이를 안타까운 표정으로 쓰다듬기도 했다. 그것은 일종의 연출이었다. 그러나 만도 노인은 전혀 불쾌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분이 좋아 기자가 시키는 대로 군말 없이 행동하고 있었다.

“이 땡벌에 고래를 방치하면 많이 상할 텐데요.”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기자의 걱정예 영도가 거들었다. 그리고 만도 노인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동의를 표했다.

“무슨 방도가 없겠심꺼?”

“내일 아침에 발행되는 신문에다 고래는 포획된 것이 아니라고 기사를 써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경도 좋은 방향으로 빨리 결정을 내리겠죠.”

“감사합니다, 김 기자님!”

만도 노인은 젊은 기자가 고마워 거친 손으로 그의 두 손을 꼭 잡았다.

약속대로 다음날 조간신문에 고래와 만도 노인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마을 어촌계장은 아침 댓바람에 신문을 들고 만도 노인 집으로

달려왔다. 그러고는 만도 노인을 마루에 앉혀놓고 기사를 줄줄 읽어 주었다. 만도 노인은 자신의 이름이 신문에 난 게 신기했고, 또 기사 내용도 마음에 들었다. 기자가 좋게 기사를 썼으니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만 같았다.

만도 노인은 서둘러 선창가로 내려가 자신의 거룻배를 타고 등대로 갔다. 정치망에 물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고래를 살피보기 위해서였다. 등대로 가는 동안 밤새 누가 고래를 흠쳐갔으면 어떡하나, 혹시 떠내려가지는 않았을까, 이런 불길한 생각이 자꾸 들었다. 그러나 고래는 여전히 자갈밭에 드러누워 있었다. 다만 싱싱함을 잃고 흐물 흐물 늘어진 게 마음을 쓰리게 했다. 그것은 돈 욕심 때문만은 아니었다. 하루가 다르게 상해가는 고래를 보기가 안타까워서였다. 아무 소용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는 또 물바가지로 바닷물을 퍼 와서 고래 위에다 흩뿌리기 시작했다.

그날도 애타게 기다리던 연락은 오지 않았다. 만도 노인은 애꿎은 술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을 맞이했다. 그는 잠자리에서 일어나며 오늘은 기어코 결판을 내겠다고 작심했다. 그러면서도 약한 마음 때문에 오전까지는 기다려보자고 자신을 달랬다. 그러나 정오가 다 돼 가도록 여전히 해경한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그는 전화기 옆으로 다가앉았다. 그리고 메모해놓은 해경 전화번호를 앞에 놓고 조금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버튼을 눌렀다. 저쪽에서 전화를 받자 그는 자신이 누구라는 걸 밝히고 엇그제 등대섬으로 조사를 나왔던 경찰을 바꿔달라고 부탁했다. 잠시 뒤 그 경찰이 전화를 받았다. 만도 노인은 왜 빨리 연락을 안 주느냐고 다짜고짜 따졌다. 그게 내 맘대로

되는 일이냐며 경찰도 신경질을 부렸다. 만도 노인은 금방 태도를 바꿔 빨리 좀 선처해달라고 사정을 했다. 경찰은 알았으니 기다리라고 무성의하게 대답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결국 그날도 고래 유통 허가는 나오지 않았다. 겨우 허가가 떨어진 건 다음날이었다. 만도 노인은 ‘고래유통증명서’가 나왔다는 전화를 받자마자 부리나케 영도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빨리 브로커를 부르라고 채근했다.

브로커를 호출해놓고 두 사람은 영도 배를 타고 등대섬으로 갔다. 그런데 밀물 때라 고래는 바닷물에 반쯤 잠긴 채 밀려오는 파도에 매를 맞고 있었다. 색깔도 허옇게 변색돼 있었다. 멀리서도 고래 상태가 안 좋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두 사람은 서둘러 배를 도박하고는 고래 쪽으로 다가갔다. 고래 위에 파리떼가 날고 있었고, 몇 놈은 상처를 헤집고 있었다. 만도 노인은 신경질적으로 손부채질을 하여 파리떼를 쫓아냈다. 파리떼가 날아오르자 썩는 냄새가 확 끼쳐왔다. 영도가 잔뜩 얼굴을 찌푸리며 늦게 허가를 내준 해경 욕을 해댔다. 이제 물을 뿌려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던지 만도 노인은 고래한테 물도 뿌리지 않았다. 두 사람은 썩는 냄새를 피해 좀 떨어진 너럭바위 위에 앉았다. 그러고는 시내 쪽을 바라보며 브로커를 태운 배가 나타나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렸다.

브로커가 탄 배는 1시간 30분쯤 뒤에나 도착했다. 갑판 위에는 브로커와 서너 명의 사내들이 서 있었다. 아예 고래를 해체할 사람과 중간상인까지 데려온 것 같았다. 그건 반가운 일이었다. 만도 노인은 썩는 냄새를 감추고, 또 고래가 조금이라도 싱싱하게 보이도록 하려고 뒤

늦게 바닷물을 고래 위에다 뿌렸다. 배에서 주르르 내린 브로커 일행이 고래 쪽으로 몰려들었다. 그들은 고래를 살펴보고는 고개를 젓거나 인상을 찌푸렸다. 만도 노인과 영도가 걱정했던 대로 물건이 영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이었다.

“이렇게 썩은 거를 어떻게 유통합니까?”

“원래 바다 생물이라는 거는 물 밖에 나오면 그 정도 냄새는 다 나는 법입니다. 엇그제 잡은 놈인데 썩기는 뭐가 썩었다고 그러니까.”

영도가 얼른 농쳤지만 브로커 일행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다. 영도가 브로커를 한쪽으로 데려가 뭔가 이야기를 주고받고 돌아오더니 일단 고래를 배에 옮겨 싣기로 결정이 내려졌다. 곧 고래 꼬리에 밧줄이 걸리고 크레인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성능 좋은 크레인이라 고래를 배에다 싣는 일은 간단하게 끝이 났다.

고래를 옮겨 싣고 나자 브로커 일행은 담배를 피워 물며 느긋하게 잡담을 나눴다. 잡담 내용은 주로 고래 흠이었다. 그러면서도 쉽게 고래 가격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것은 상인들이 물건 가격을 후리기 위해 흔히 하는 작태였다. 만도 노인은 듣기가 불편하여 뱃전으로 나 앉았다. 브로커가 상인인 듯한 사람들을 갑판 한쪽으로 데려가더니 뭔가 쑥덕공론을 했다. 그리고 돌아온 그들은 일단 해체하기로 했으며 자신들이 내린 결정을 알렸다. 영도가 해체하기 전에 고래 가격부터 정해야 한다며 항의했다. 순서적으로 그게 맞았다. 만도 노인은 영도가 옆에 있는 것이 그나마 든든하게 여겨졌다. 브로커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사실 그들은 조금 전에 구석에 모여서 이미 가격을 정해둔 상태였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일을 진행시



키기 위해 해체부터 하려고 든 거였다. 브로커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원래 이렇게 상한 고래는 가격을 쳐줄 수 없는 거라며 불평을 쏟아냈다. 그가 불평 끝에 내뱉은 가격은 3백만 원이었다. 그저 먹으려 든다며 영도가 팔을 걷어붙였다. 선장인 듯한 사내가 말렸다. 만도 노인은 사내들이 옥신각신하는 것을 입을 동그랗게 벌린 채 남의 일처럼 보고만 있었다. 다시 가격이 조정되었다. 겨우 백만 원 더 올라갔다. 어쩔 수 없다는 듯 영도도 뒤로 물러섰다. 만도 노인은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손을 내저으며 알아서 처리하라는 표시를 했다. 이제 고래가 해체될 차례였다. 건장한 사내 하나가 끝에 칼이 달린 창을 들고 나섰다. 칼날은 제법 날카로웠다. 그는 배부터 세로로 길게 그었다. 두꺼운 뱃가죽이 쉽게 갈라졌다. 뱃전에 앉아 있던 만도 노인은 차마 그것을 보지 못해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그의 머릿속으로 오만 생각들이 오고갔다. 머리가 아팠다. 이제 사내들이 주고받는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얼마 뒤 영도가 다가와 뭐라고 말을 붙였다. 그는 겨우 눈을 떴다. 그는 영도의 부축을 받으며 사내들 틈으로 갔다. 이미 고래는 다 해체돼 있었다. 형체가 사라진 고래는 이제 몇 덩어리의 고기로 변해 있었다. 상인들이 사가지고 갈 부위도 대충 정해진 듯했다. 만도 노인을 세워놓고 체벌을 하듯 상인들이 또 한 번 썩은 고래 어찌고저찌고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았다. 썩은 고기라 식당에 팔기가 어렵다는 말이었다. 상인들의 수작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것을 듣고 있자니 만도 노인은 부아가 났다. 브로커가 만도 노인의 기색을 살피더니 상인들의 불평을 무마하고 나섰다.

만도 노인은 고래를 팔고 받은 돈에서 백만 원을 떼어내 영도에게

줘어주었다. 뱃삿과 그의 수고비였다. 이제 남은 돈은 3백만 원이었다. 그게 고래로 생긴 실제 수입이었다. 그러나 며칠 동안 정치망 물도 못 보고 그 안에 든 고기를 썩혔으니 그게 다 수입이라고도 할 수 없었다. 더구나 그동안 마음과 몸이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큰 적자를 본 셈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도 팔자소관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렇게 털어버리자 마음이 한결 홀가분했다.

영도와 같이 마을로 돌아온 만도 노인은 집으로 가는 대신 바닷가에 있는 횃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평소 그가 횃집으로 가는 일은 거의 없던 터라 영도는 뜬금없다는 표정으로 따라가고 있었다. 만도 노인은 횃집으로 가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같이 가자고 당겼다. 그는 남은 돈을 집으로 가져가느니 차라리 마을 사람들에게 인심이나 쓰기로 작정한 것 같았다. 어쨌든 대여섯 명의 남정네들이 바닷가 경치 좋은 곳에 자리 잡은 횃집으로 들어갔다. 만도 노인은 호기롭게 생선회 몇 접시를 주문했고, 술도 각자의 기호에 맞춰 주문했다.

술이 돌아 그들은 또 고래 이야기를 꺼냈다. 만도 노인은 그만하라고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술자리에서 한번 나온 이야기를 멈추게 하기는 쉽지 않았다.

다음날 만도 노인은 모처럼 늦잠을 잤다. 전날 과음한데다 큰일을 치르고 난 뒤의 방만함까지 끼어들어 그랬던 것 같았다. 양처 밤골덕은 그의 속을 달래줄 요량으로 생선국을 끓였다. 그러나 입이 텅텅해서인지 생선국은 개운치가 않았다. 그는 겨울이면 정치망에서 잡은 대구로 끓여먹곤 하던 국을 떠올렸다. 싱싱한 대구와 곤이를 넣고 맑게 끓인 대구탕 한 그릇이면 웬만한 숙취와 피로는 싹 달아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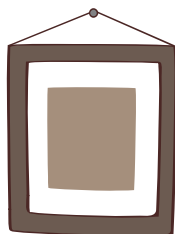
그는 대구가 날 철이 아닌 것이 못내 아쉬웠다.

늦은 아침을 먹고 난 뒤 만도 노인은 운동 삼아 마을을 한 바퀴 돌고 와서는 마루에 앉아 무심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서둘러 정치망에 가 봐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곳에 가면 고래 때문에 고생한 생각도 날 것 같았고, 또 그물 안에서 썩고 있는 고기를 보면 부아도 치밀어 오를 것 같아 쉽게 발걸음이 나서지지가 않았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의 방문을 받았다. 그것도 마을 사람이 아니라 말쑥한 차림의 외지인이었다. 그는 대문을 들어서면서 미소 띤 얼굴로 꾸벅 인사를 했다. 자세히 보니 며칠 전에 왔던 그 기자였다. 만도 노인은 반가운 마음에 별떡 일어나 어서 오라고 손짓을 했다.

밤골댁은 마실이라도 갇는지 보이지 않아 자신이 직접 부엌으로 가서 음료수와 컵을 챙겨오기도 했다. 김 기자는 고래가 혈값에 처리된 걸 알고 있었다.

해경이 조금만 더 빨리 유통증명서를 내주었어도 수천만 원은 벌었을 텐데, 하면서 그는 아쉬워했다. 내 복에 수천만 원은 무슨……, 하고 만도 노인은 냉소적으로 응수했다. 김 기자가 들고 온 봉투에서 뭔가를 꺼내 만도 노인에게 내밀었다. 만도 노인은 이게 뭔가 싶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았다. 그것은 여러 장의 사진이었다. 며칠 전 등대섬에서 김 기자가 찍은 것이었다. 만도 노인이 고래 옆에 쪼그려 앉아 눈을 맞추고 있는 사진도 있었고, 말라가는 고래 등에다 바닷물을 뿌려주는 사진도 있었다. 만도 노인은 잠시 감상에 젖었다. 그런데 몇몇 사진의 배경에는 등대가 있었다. 마치 등대가 뒤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듯했다. 만도 노인은 그곳에 등대가 있다는

걸 처음 안 것처럼 흠칫 놀랐다. 그는 그때 경황이 없어 등대 앞에 있으면서도 등대를 잊고 있었다. 자신이 힘들어하던 그때 등대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다고 생각하니 뒤늦게 흐뭇하고 든든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콧등이 시큰하고 자꾸 눈물이 나오려 했다. 만도 노인은 자신에게 귀한 감동을 선사한 김 기자가 너무 고마워 그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그 사진들이 좋았다. 그 사진들을 보고 있으니 그동안 고래 때문에 생긴 앙금이 다 풀리는 것 같았다. 그는 그 사진들을 액자에 넣어서 마루 벽에다 걸어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가 방으로 들어가더니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김기자 차를 얻어 타고 시내로 나가 액자를 사오려는 거였다.



유형의 섬



제7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소설

최인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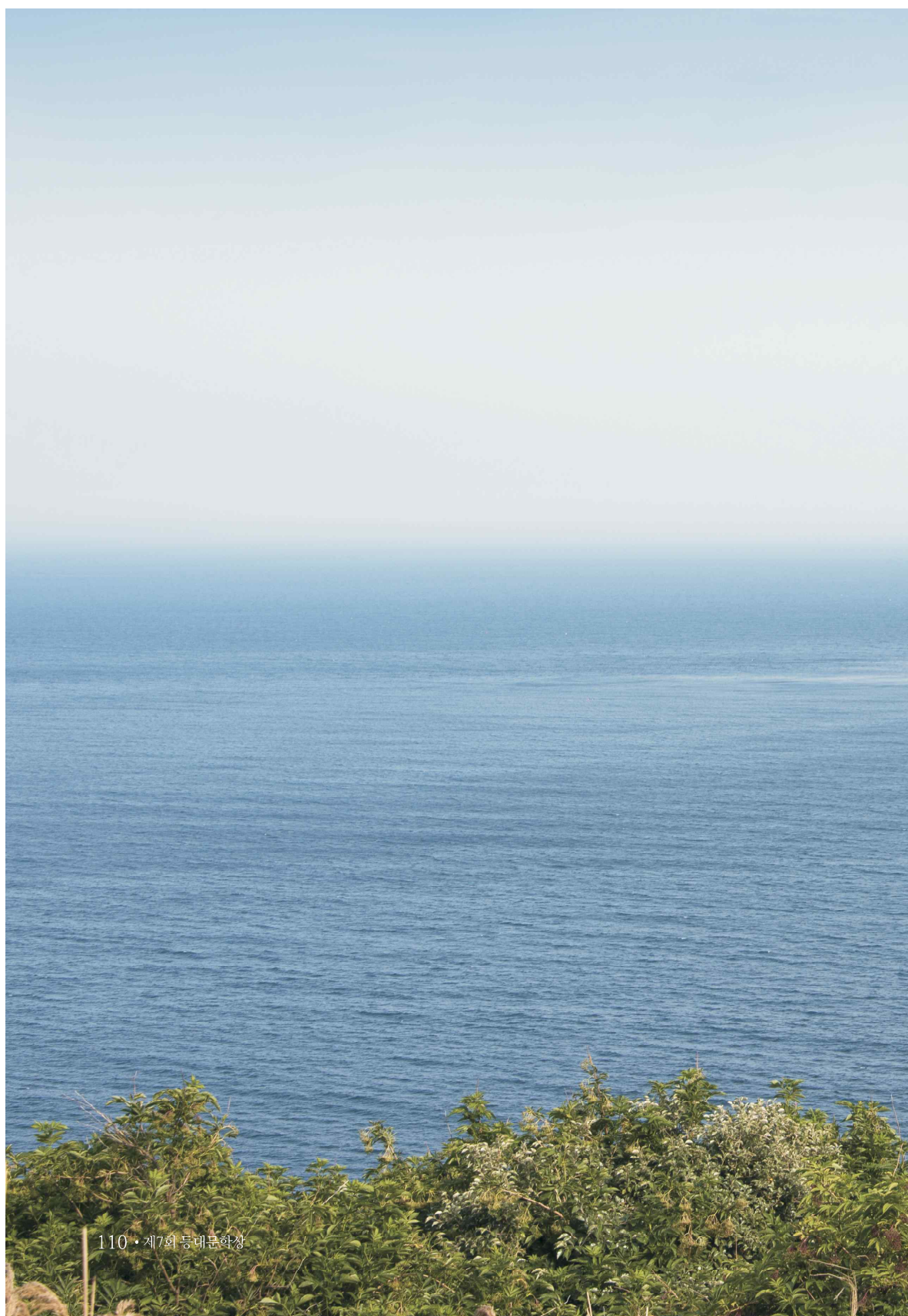
-오시코 사망-

어차피 죽음이란 그렇다고 해도 당신의 죽음이 나를 갑작스럽게 하지는 않습니다. 비통하거나 슬프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미 당신은 예견된 죽음과 함께 살아왔고, 오늘에야 당신의 사망 소식이 나에게 알려졌을 뿐입니다.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작정이 서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의 고향 노을도에 있고 나는 지금 서울 옥탑방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곳에 수감되었고 나는 당신이 있는 노을도만 갈 수 없는 연금 상태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당신은 그분에게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노을도에서 그것도 당신과 내가 함께 살았던 바다가 흰히 내려다보이는 산 중턱 초가집에서 말입니다. 그 집은 얼마 뒤 원형 집으로 바뀌었

고 당신은 거기에 감금되었습니다. 그 당시 당신은 식중독 리스테리아균에 감염된 상태였고 불구자였습니다. 양 손목들이 꺾여 있어 손은 사용할 수 없었으며, 다리는 바깥쪽으로 구부러져 걸을 수 없는 오다리(內反膝)였습니다. 입과 눈은 구안괘사에 걸려 빼돌어져 있었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동물 소리밖에 내지 못했으며 눈은 사팔뜨기였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당신의 형벌은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았고, 나는 당신이 감금된 이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노을도 섬 건너편 바위에서 나는 당신을 수없이 찾았습니다. 군 복무 시절, 나는 휴가도 반납하고 ‘초소에서 당신을 볼 수 없을까.’ 하며 당신의 집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택시 운전을 하다가도 당신이 그리우면 당신에게 무조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당신이 그 집에 존재하는데 당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괴기한 것은 돔 펜션 같기도 하고 이글루와 닮은 당신의 집이었습니다. 지붕 꼭대기에는 노트르담 대성당 같은 데서나 볼 수 있는 피뢰침이 깜박였고, 건물을 에워싼 유리가 빛을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집안에서 빛에 물든 시간 동안 나는 밖에서 이제나저제나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 괴기한 집은 낮에는 유리 빛이 반사된 역광선으로 내 시력을 상실시켰고, 밤에는 어둠이 집을 삼켜버려 캄캄했기 때문에 당신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바다를 헤엄쳐 당신에게 가다가 물살에 떠밀려 겨우 목숨을 건진 적도 있었습니다. 뗏목으로 노을 저어 당신에게 갔지만, 바다 폭포를 만나 간신히 돌아온 일도 많았습니다. 나는 집광력과 분해능이 높은 망원경으로 다시 당신 집을 올려다보





았지만, 역시 허사였습니다. 다음에는 투시경과 열화상 카메라를 준비해서 올 생각이었는데... 당신의 부음(訃音)을 이렇게 접했습니다. 노을도에는 당신을 장사 지내려고 누군가 선불리 나서려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욱이 당신 가족이 어디서 사는지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기가 누가 사형수의 시체에 관심이나 가지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몹시 걱정됩니다. 당신이 이승에서 받았던 고통을 편안한 곳으로 보내드려야 할 책임이 나에게는 있습니다. 지난번 항구에서 우연히 고향 사촌 여동생을 만났습니다. 어릴 때 드러내던 그녀만의 고유한 이미지를 알아채는 마음에 갑자기 선명하게 살아나 나는 그녀를 금금세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당신의 소식을 묻고 물었지만, 그녀는 엉뚱하게도 “지금도 오시코를 만난다면 오빠 그녀에게 말을 올릴 것어요.” 하는 것입니다. 나는 머뭇거리면서 “그게 뭐 어때서... 난 그녀를 지금도 사랑하고 있으며 영원히 함께할 사람이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청승이시오... 오빠가 사형수와 함께... 가당찮은 말씀을 하시오.

오시코는 그분들이 다 알아서 할 것어요. 신경 쓰지 말고 오빠나 잘 사시오.”라고 해서 나는 그녀가 미워졌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당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 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녀는 그분들이 시체를 수습할 것이며, 화장해서 뿌리든지, 바다 폭포에 던져 물고기 밥을 주든지, 오빠가 알 바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왜 당신 일에 방관하고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나는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시체라도 거두기 위해 노을도에 가야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를 밟을 수 없을뿐더러 아버지 구치소 면회마저도 그분들이 금지했습니다. 도무지 그분들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과 내가 견우와 직녀처럼 직무유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까? 궁녀 윤영이와 김 진사같이 신분을 동요시켜 사회 혼란을 일으킨 경우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다시 그분들에게 불가피한 사정을 정중하게 말하고 허락을 받아낼까 합니다.

당신을 만나지 못한다는 통보를 그분께 방금 받았습니다. 당신은 죽었지만, 아직 장례를 치르지 않은 관계로 절차가 복잡하다고 합니다. 당신이 완전히 소멸하였을 때 그분들은 나의 연금을 해제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놓고 수확하지 않은 채 농작물을 밭에 썩히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당신의 시신 썩은 냄새라도 말아야 내 비염의 원인인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울 듯합니다. 어쨌든 나는 당신에게 가겠습니다.

오빠, 사형선고 받은 그 날 그분들이 나를 감방에 처넣어 버렸지요. 나는 사형 집행 장소로 알고 두렵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팔목이 꺾어진 두 손등으로 눈을 가렸지요. 혹시나 교수형 목줄이 나를 끌어올릴까 봐 목을 다리 깊숙이 파묻었어요. 피부가 따끔거리기에 독극물을 투입할 줄 알았는데 내가 내 살을 꼬집고 있었던 거예요. 내 몸이 뜨거워지자 밀랍과 유황의 용해 물을 그분들이 붓고 있는 것 같아 기겁했어요. 정신을 차리다 보니 처음 이 방에 들어온 그대로 인 거예요. 살짝 눈을 뜨니 노을빛을 받은 방은 붉었고 둥글둥글한 것이 매춘 방 같았어요. 기지개를 켜자 둥근 벽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이번에는 네 마리 말이 잡아끌어 사지를 절단하려는 느낌에 기절하고 말았어요.

지금까지 내가 본 감방은 사각형인데 둥근 나의 방에는 무슨 의도가 숨어 있지 않을까에 대해 의심했지요. 그분들이 나를 독방에 가두고 가혹행위나 하지 않을까. 아니면 성폭행이나 저지르지 않을까 불안했어요. 야릇한 빛이 비친 방에는 퇴학당한 여고생 혼자 있지요. 하물며 독방은 섬마을과 동떨어져 있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분들이 나를 덮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밤에 감쪽같이 바다에 버리기만 해도 물살이 나를 휩쓸고 사라질 것이기에 노심초사하고 지냈지요. 하지만, 오빠를 영영 만날 수 없다는 일이 죽음에서 오는 공포보다 더 무서웠어요.

그렇다고 오빠, 내 방이 이상한 점이 아예 없진 않아요. 내가 거쳐하는 둥그런 방 안쪽에 또 다른 작은 공간이 있다는 의심이 생겨요. 내 방에서 밖을 볼 수 없듯이 거기도 유리로 되어 있는데도 깜깜했어요. 아무 기척도 들리지 않고요.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감이 와요. 나는 내 방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그들에게 보여만 주는 동물원에 동물 같다고나 할까요. 처음에는 상당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수치스러움을 느꼈지요. 그리고 자꾸 신경이 쓰여 머리가 아프더군요. 그분은 나를 들여다볼 수 있지만, 나는 그분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아마도 그분은 나의 내면이 잘 보여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의식과 영혼마저 수수하려는 그분들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나는 느껴져요. 그러면 나는 나의 나쁜 생각을 버리고 좋은 생각으로 고쳐먹죠. 또한 내 잘못을 뉘우치게 되고 그분

맘에 들도록 정숙하게 행동해요. 결국, 나는 내가 나를 스스로 통제하는 습관이 생길걸요. 비록 불구자이지만 내가 애완견처럼 이 방에 잘 길들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데 나는 왜 자꾸 그분들의 비위를 맞추는 걸 까요.

오빠, 의심은 의심을 낳고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해요. 일단 복잡한 일들은 잊어버리고 그분들이 요구하는 생각대로 살기로 했어요. 그러자 나는 점점 심신의 안정을 되찾았고, 빛을 받으며 혼자 사는 일이 즐거웠지요. 지난날 나에 관한 일들은 붉은 방의 빛이 흡수해버린 듯 사그라졌어요. 부러진 손목과 오므리지 못한 다리쫘미야 노동을 시키지 않아 오히려 더 편한 것 있죠. 뺨뚫어진 입으로 펜을 물고 달팽이처럼 괴발개발 글씨를 그릴 수 있었어요. 리스테리아균이 미동하는 느낌도 없어요. 적당한 온도와 소량의 음식 그리고 규칙적인 취침과 독서 시간은 나를 새사람으로 제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생체리듬을 알려주는 데이터 곡선은 항상 일직선으로 나타나 나를 기쁘게 한 거 있죠. 오빠, 사형수에게 이렇게 좋은 거처를 마련해 주어도 되는 걸까요?

오빠가 나를 보러 수없이 왔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어요. 군복을 입고 초소 근무를 썼을 때부터 중년의 나이가 되었을 지금까지, 오빠가 건너편 섬 바위에 우뚝 서서 나를 바라본 모습을 새벽에 나는 보았지요. 내 방은 하루에 조명이 다섯 차례 바뀌어요. 날씨가 특별히 짙기지 않은 한, 어두운 검은색에서 회색으로 바뀌고 다시 은색에서 노랗게 되었다가 붉은색이 돼요. 방이 어떤 색으로 변화하든지 밖은 보이지 않지만, 새벽에는 안과 밖의 색 농도 차이로 희끄무레하게 사물을 볼

수 있었어요. 오빠가 군복을 입고 있을 때는 왜 이곳에서 근무하는지 궁금했지요. 하지만 노란 택시 운전복을 입고 나 쪽으로 손을 흔들 때야 비로소 오빠가 나를 잊지 않고 이렇게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새벽마다 오빠를 내려다보면서 나는 행복했어요. 우리의 사랑도 지속하고 있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내가 뭐라고 오빠, 사형수에 불구자 그리고 감염자인 나를 오빠 그만 찾아요. 우리의 인연은 이미 너릿재에서 끝났어요. 나를 이제는 잊어버리고 제발! 바보 같은 행동 하지 말고 오빠를 위한 삶을 살아요.

나는 당신에게 가려고 용산역에서 무궁화 열차를 탔습니다. 택시라도 몰고 쏜살같이 가고 싶습니다만, 당신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행동 할지도 몰라 차후를 기약할 수 없을 것 같고, 다음 교대 운전사에게 먹고사는 일에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유리창 밖에는 함박눈이 날리고 그 속에 하얗고 가름한 당신의 얼굴이 보입니다. 당신의 꽃다운 청춘은 짧고 비참하게 마감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잘못도 세월의 탓도 아닌 내가 너릿재에서 당신에게 약속 시각이 늦어서 생긴 일입니다. 눈 덮인 설국열차를 탄 당신의 죄인이 논산을 지나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유리창 너머로 당신의 얼굴이 사라지자 나는 다시 코가 막혀오고 자괴감에 시달립니다.

당신이 노을도에 감금되고 얼마 되지 않아 나는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어차피 의무를 치러야 한다면 빨리 방어전에 임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논산 훈련소에서 자대배치를 앞두고 당신을 보지 못하면 총기 난사를 낼 것만 같았습니다. 당신을 만나는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훈련병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했습니다. 저녁 세면실이었습니다. 나는 빨랫비누를 먹고 거품을 뿜어 대며 세면실 바닥을 헤엄치고 다녔습니다. 훈련병들은 미쳤다고 간부들에게 알렸고 나는 의무관실에 격리되었습니다. 이것만으로 내가 미쳤다는 보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소홀한 감시를 틈타 나는 통행 금지 시간에 접근금지 구역을 확보하였고, 비누를 세 번을 더 먹고 연병장에 게거품을 토하며 달려 다녔습니다. 이제 나는 미쳤습니다.

군 복무 기간 당신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을 절호의 기회가 나에게 왔습니다. 군국병원으로 이송되어 나는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모든 검사 항목은 음성반응이었고, 비염만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군의관은 나를 영창을 보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나는, “제가 원하는 복무지역으로 보내주시면 저는 어떠한 충기 사고를 내지 않을 것이며, 휴가도 반납하고 해양초소 근무에 충실히 복무하겠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하자. 군의관은 서류를 뒤지더니 아무 말 없이 당신이 갇힌 노을도 건너편 초소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었습니다. 이제 당신과 함께 노을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밤낮으로 지킬 수 있게 되어 안심했지만, 당신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나는 우울했습니다.

당신과 내가 두 지붕 한 가족처럼 노을도에서 지냈을 때가 그립습니다. 당신과 나의 부모는 아무런 친척 관계도 아니면서 그 이상으로 친밀하게 지낸다면 섬마을 사람들은 부러워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는 의형제처럼 지냈고, 당신의 엄마는 나의 엄마를

대신하여 음식을 맛깔스럽게 했고 거기에 자상하고 친절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운명같이 마음이 통했습니다. 면 출장소 면서기였던 내 아버지는 당신과 나를 고등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해 광주 명문고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나의 실력은 아마 명문고를 뛰어넘을 거라며 아버지는 말씀했으니까요. 결국, 아버지는 남녀 명문고를 찾아내어 당신은 언니 집에서 다니게 하고 나는 친척 집으로 보냈습니다.

노을도에서 노을빛에 당신과 내가 물들었다면, 너릿재에선 서산마루에 걸린 해가 우리의 사랑을 달구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당신과 나는 비가 오나 눈이 내리나 너릿재 고갯마루 널찍하고 평평한 바위에 등을 맞대고 앉아 우리의 사랑을 키웠습니다. 붉은 노을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당신과 나는 해를 향해 고개를 돌렸고, 그때 당신과 나의 입맞춤을 해가 포근하게 달궜습니다. 그리고 나서 클로버 잎 하나를 찾아서 그것을 책 속에 넣고 당신과 나의 희망으로 삼았습니다. 두 개의 잎으로는 믿음으로, 세 번째 잎은 행운으로, 네 잎 클로버는 사랑으로 간직했습니다. 산마루 해가 당신의 검은 눈동자에 비추면 푸른 클로버 잎들이 보였고, 그때 당신과 나의 눈빛을 마주치면서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날, 자랑삼아 학교에서 친구에게 당신과 나의 너릿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놀았던 자리는 널(棺) 자리야. 원래 이름은 판치(板峙)인데 ‘판’은 판판하고 넓게 켜 나뭇조각인 널빤지를 뜻하고, 널재 또는 널의 재에서 너릿재가 되었다고, 하는 친구의 말을 듣고, 내 머리를 무엇인가 강하게 내리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술 더

떠 친구는 “동학농민군이 대규모로 처형된 곳으로 ‘넋재’라고 칭하는 설도 있어.”라고 말하자. 내 오관의 작동이 멈춰 버린 듯 감각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당신 학교 친구들과 너릿재에서 만나기로 한 날, 불길한 예감이 나의 주변을 뱅뱅 돌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담임선생님의 종례 시간은 지루하고 길기만 했습니다.

“지금 광주는 의혹의 안개로 뒤덮여 있다.

안개 속에 숨어 있는 그분들이 너희들을 언제 덮칠 줄 모를 일이다. 통금 시간도 저녁 9시로 당겨졌다. 학교 파하면 바로 집으로 간다. 절대로 나돌아 다녀서는 안 된다. 그분들이 못된 짓을 해도 함부로 행동하지 마라. 특히, 광주를 벗어나거나 인접 지역 경계선에는 절대로 가지 마라. 명심하고 또 명심해라.”

선생님은 같은 말씀만 수차례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나를 애타게 기다릴 당신 생각에 나의 귀는 선생님 말씀이 네팔의 오지 언어로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만나기로 한 약속 시각은 훨씬 지나버렸습니다. 당신 친구들을 데리고 와 너릿재를 구경시켜주기로 한 날 이게 뭐입니까. 나는 책가방 끈을 어깨에 메고 가방을 겨드랑이 끼고 달리고 달렸습니다. 너릿재가 보일 때는 산마루에 해가 설핏 보였습니다. 노을빛이 비친 오솔길을 들어섰을 때 ‘뽕뽕’ 소리가 울려 나는 당신과 친구들이 나를 환영하는 폭죽을 터트리고 있다고 생각에 힘껏 달렸습니다. 고갯마루에 도착했을 때는 어둠이 커져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친구들은 없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만나기 위해 너릿재로 오는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었습니다. 섬세한 당신은 무슨 방법을 쓰든지 나를 헛

걸음 시킬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덩석 바위에 주저앉아 사방을 두리번두리번했지만, 당신의 자취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개가 무겁게 땅바닥에 깔리더니 서서히 공중으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안개와 어둠이 너릿재를 칭칭 감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어디에서 찾아야 한단 말입니까?

나는 당신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당신이 없는 이 세상은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먼저 너릿재 시오 리를 어둠과 안개를 헤치고 당신의 이름을 고래고래 부르면서 휘젓고 다녔습니다. 화약 냄새가 나는 곳은 땅을 판 흔적이 있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둠과 안개는 당신의 이름을 삼켜버린 듯했고 화약은 당신의 모습을 지워버린 것 같았습니다. 짝 잃은 장끼처럼 주둥이를 쪼아대며 풀과 나무를 헤집었지만, 까투리는커녕 개미 한 마리도 찾지 못했습니다. 안개가 휘감은 당신 언니 집에 갔더니 당신 학교에서 연락이 와서 그녀도 사방을 수소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혹시 몰라 당신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는 당신과 친구들이 없어진 날 휴교령이 내려졌고, 교실에는 주인 잃은 책상과 의자만이 웅했습니다. 안개비가 내리는 운동장에는 검은 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습니다.

이제 나에게 남은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릿재를 가서 당신의 냄새라도 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고갯마루에는 햇빛이 배어들고 있었습니다. 당신과 나의 사랑을 달구어 주었던 해이건만 당신이 없는 이 자리는 서늘하고 차갑습니다. 당신과 꿈을 키웠던 우리의 네 잎 클로버는 어디로 사라졌단 말입니까? 당신이 앉았던 바위를 멍하니 바라보았는데, 거기 바위 위에 짓이긴 네 잎 클로버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짓궂어진 이파리를 엮드려 코로 흡입했습니다.
당신의 냄새가 나의 코로 들어온 듯합니다. 나의 코 막힘 비염은 당신이 사라진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오빠, 학교 친구들과 너릿재로 오빠를 만나러 갈 때, 친구들은 들뜬 모습이었지요. 하얀 이를 드러낸 입에서는 연달아 웃음이 터졌고, 발걸음이 사뿐했어요. 오빠의 외향을 묻는 친구들의 질문에 나는 침묵을 지켜야만 했어요. 잘생긴 오빠의 모습을 자꾸 말하면 닳아져서 못생겨질 것 같았기 때문이에요. 우린 너릿재 고갯마루에서 산마루에 걸린 해를 보면서 사춘기 여고생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왱자지껄 웃었어요. 그 순간에도 나는 네 잎 클로버를 만지작거리며 오빠를 생각했고 빨리 우리에게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 뒤통수에 날카로운 쇠붙이가 찔리는 아픔을 느꼈어요. 친구들도 외마디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어찌나 차갑고 뽀쪽한 것이 세계 밀치더니 뒤를 돌아볼 수 없었지요. 찰작하는 소리에 놀라 머리를 옆으로 비켜서 돌려 보았지요. 그분들이었어요. 그분들의 눈에는 맹수에게만 볼 수 있는 살기를 발견했어요. 피 냄새를 맡으면 끝까지 추적해서 물어뜯는 사냥개 이빨처럼 날카로운 매부리코를 가지고 있었어요. 뭉뚱한 턱은 엉큼함이 느껴져 왔는데 분명히 무언가 노리고 있었어요. 두툼한 입술은 욕망 덩어리를 차곡차곡 쌓아 놓은 것 같았어요. 총구에 걸린 칼끝으로 그분들은 장난삼아 친구들과 내 젖가슴을 콕콕 찌르더군요. 우린 그렇게 큰 잘못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오빠를

기다리면서 비밀스러운 이야기만 하고 웃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마치 우리들이 대단한 첩보를 숨기고 있는 간첩인 양 그분들이 총구를 겨누는 거 있죠. 왜 여기서 놓고 있니, 이곳은 특별한 곳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하는 말썸을 친절하게 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분들의 장기는 말을 하지 않고 연장으로만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었어요. 그분 중 한 사람이 턱 끝으로 자기들끼리 음흉한 신호를 보내더니 친구들의 젓가슴을 칼로 서너 차례 찌르고 고갯마루를 벗어나 그녀들을 데리고 사라진 거예요.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는 친구의 말이 멀어지고 있었지요. 친구들을 너릿재에 데리고 온 나는 그녀들에게 얼마나 죄책감이 들겠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친구들을 여기 오기 전 상황으로 돌려주어야만 했어요. 그게 오빠, 친구에 대한 나의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빠, 젓가슴을 찌르고 있는 칼을 손으로 잡고 총구를 몸 밖으로 나는 비틀었지요. 탕탕하는 총소리가 귀를 찔렀지요. 비겁하게 이건 뭐죠. 오빠 총을 쏘았어요. 설마 방아쇠를 잘못 당겼겠지요. 내가 움켜쥔 칼을 하늘로 추어올리자 이번엔 그분 군홃발이 내 손목을 걷어차더라고요. ‘우지직’하는 소리에 손목이 꺾이는 통증이 왔어요. 총은 바위 위에 떨어졌고 나는 꺾였던 반대 손으로 총구를 잡았지요. 그런데 그분은 민첩하게 나의 손목을 군홃발로 짓밟고 뒤틀어 버린 거 있죠. 뼈가 으깨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총소리가 연달아 터져 귀를 멍멍하게 했어요. 이쯤 되면 아무나 그분들의 총알받이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때 오빠가 노을빛을 타고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오빠, 우리의 클로버 첫 번째 잎, 아직 희망은 살아있는 것이죠. 나는 양 손

목이 꺾인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바위에 얹어져 있었어요. 그분은 대머리 판으로 나를 바로 눕히더니 교복 치마를 칼끝으로 걷어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총구를 내 생식기에 겨누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고 있었어요. 나는 발을 모아서 그분의 헬멧을 향해 내리찍었어요. 고갯마루에서 헬멧이 데굴데굴 굴러떨어졌지요.

오빠, 오고 있는 거죠. 왜 이리 멀기만 느껴지죠. 이제 그분은 나의 다리를 벌리고 양 무르팍 안쪽을 군홃발로 밟고 짓눌렀어요. 그리고 쭈그리고 앉더니 칼로 속바지를 걸레처럼 갈기갈기 찢었어요. 무르팍이 우두둑하는 소리가 들리는 걸 보니 뭔가 한참 잘못되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오빠, 내가 이 정도라면 이젠 우리의 클로버 잎은 사라진 거나 다름없지요. 그분의 머리카락이 비어있는 만큼 욕망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정도쯤 되었으면 봐 줄만도 하지 않을까요. 그분은 나의 마지막 속옷 끈을 칼로 도려내고 나를 덮치는 것이예요. 내 등골은 바위에 으깨지는 듯 아팠고 닫혔던 처녀성이 터지고 찢겼어요. 그분은 내 입안으로 미끈미끈한 액체를 넣으려고 안달이었지요. 난, 이제는 저항할 수 있는 기력이 소진해 받아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오빠, 우리 행운과 사랑은 이제 졌어요. 나는 오빠의 네 잎 클로버가 다시는 되지 못해요. 나는 오빠에게 나의 모든 사랑과 행운을 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오빠보다, 그분이 나를 예측화 시켜버린 것 같아요. 그분은 자신의 연장을 꼼꼼하게 챙기더니 나그네처럼 홀연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자 오빠가 헐떡거리며 너릿재에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이젠 우리의 사랑을 위해서는 이별만이 있어야 해요. 이런 몰

골로 오빠에게 기댄다는 건 나의 사랑 방식이 아니어요. 오빠가 내게로 오는 숨소리가 들리고 냄새가 풍겨왔어요. 나는 오빠 곁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고갯마루에 반송장처럼 퍼질렀던 몸을 바위 아래로 굴렀지요. 그리고 풀숲으로 몸을 숨겼어요. 안개가 산을 휘감고 어둠이 가득가득 괴어들도록 오빠는 너릿재를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고개를 숙여 입으로 무릎을 물고 신음을 참아냈지요.

무너졌던 처녀성으로 뭔가 뚫고 들어왔는지 장이 꼬이면서 아랫배가 찢어질 듯 아팠어요. 그분이 입속에 넣었던 액체가 혀를 휘감더니, 입에 마비 증상이 조금씩 느껴졌지요. 차디찬 칼바람이 피부를 찢고, 짓무른 곳에 스며들어 뼈가 쓰렸어요. 오빠, 널 속이라도 들어가야만 고통이 사라질까요? 그분은 왜 나를 이렇게 매이게 해 버린 걸까요?

오빠가 너릿재를 사흘째 뒤집고 있다는 걸 알아요. 아마도 내가 다녔던 곳은 다 찾았을 테지요. 하지만 오빠 난 이제 불구자가 됐어요. 이젠 오빠 앞에 나타날 수도 나타나서도 안 돼요. 오빠가 찾으려 찾을수록 꼭꼭 숨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노을도 밖에 없어요. 그곳에서 오빠와 노을빛에 스며들었던 터에서 노을을 보며 오빠를 그리워할게요. 오빠는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노을도는 밟지 마세요. 우리의 운명은 여기까지인가 봐요. 오빠, 난 노을도로 노을 보러 가요.

일주일 걸려 힘겹게 노을도 집에 왔어요. 오빠와 우리 집은 초상집이었지요. 엄마는 까무러쳐서 일어나지 못했지요. 섬마을 사람들도 내 모습에 겁에 질렸어요. 오빠 아버지가 동네 안 의사에게 엄마와 나의 진찰을 맡겼지요. 안 의사는 엄마의 상태를 보더니 그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리고 나를 반나절 동안 세밀하게 진찰하고, “안면 마비 현상인 구안괘사는 볼니피쿠스균이 입속에 들어와서 일으킨 것입니다. 이놈은 비브리오 패혈증 현상을 일으키는 것인데 아마 감염자에게 옮긴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식중독 리스테리아균이 처녀성이 뚫리고 침투한 것입니다. 이 균은 영하 18도에 생존하는 놈이고 몸속 장기를 하나씩 점령해서 기능을 정지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 생명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지만, 그것이 장기에서 어떤 병리 현상을 일으킬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세균이 보이지 않게 세력을 조직화시켜 한 세대 동안 잠식해 있다가 그 이후 어느 시기에 갑자기 분해가 급격히 이루어지면서 온 장기를 파멸시킬 것입니다. 뚜렷한 처방법이 없으니 그냥 이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안 의사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굵고 차갑게 말했어요. 침울한 표정의 오빠 아버지는 고민이 깊어가고 있었지요.

오빠 아버지는 빨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균이 불구자가 된 나를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마 광주 학교와 언니 집 그리고 우리가 다녔던 곳에 대해 요모조모를 알아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의 본명을 지우고 오시코로 바꾸었어요. 호적도 오빠네 가족으로 옮겼더군요. 물론 나의 엄마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었겠죠.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있으시고 꼼꼼하신 오빠 아버지는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자꾸, ‘손톱이 손이 될 수 없고, 손도 손톱이 될 수 없는 일이야.’ 하는 말만 했어요. 아무튼 나는 오빠 이름 아래 나의 새 이름을 보고 서글펐어요. 오빠의 클로버가 되고





싶었는데. 동생이라니... 오빠와 한 가족이 된 호적 등본 이름이 저녁 노을에 물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리 슬픈 거죠. 이름만 물들면 뭐 하겠어요. 오빠와 함께 노을빛에 물들고 싶은데.....

너릿재에서 당신이 사라진 십여 일 동안 당신의 발자취를 찾아다녔지만, 손으로 안개를 움켜잡는 격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싯한가닥 잡을 요량으로 노을도 배를 탔습니다. 배에 상여를 닮은 원형 집을 보고 나는 섬뜩 놀랐습니다. 설마 당신이 무슨 변고라도 당했다면, 노을도에 닿기 전에 나는 바다폭포 길로 사라져 당신을 먼저 기다릴 생각입니다. 사실 노을도 사람들은 당신도 알다시피 가난하고 애환이 깊습니다. 섬사람들은 바다 폭포 때문에 고기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당신 아버지도 학비 마련을 위해 한두 번 노을도 앞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세 번째 갔을 때는 가랑눈이 훑날리는 폭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진 날, 폭포처럼 흐르는 당신 눈물이 나의 가슴을 세차게 때려 쓰렸습니다.

갯바닥도 마찬가지였답니다. 당신과 내가 갯벌에서 펄을 온몸에 뒤집어쓰고 하늘을 보고 누웠을 때, 찰진 펄 속으로 당신과 내가 빨려 들어가 기겁을 했습니다. 또한, 펄로 덧칠한 얼굴로 당신 몰래 입맞춤을 하려고 했을 때, 다섯 자나 된 듯한 구렁이가 슬금슬금 기어오자 나는 당신의 손을 끌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그러나 당신과 나의 정서를 하나로 이어준 것은 노을도의 들노래였습니다. 간척지를 개간한 논길을 따라 당신이 달리면 나는 몇 발짝 뛰지 않아도 당신을 잡을 수 있을 만큼의 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당신과 내가 계단식

밭에서 토끼몰이하면, 귀여운 그놈은 도망갈 곳을 찾지 못하고 당신에게 안겨버렸습니다. 들판다운 들이 없는 노을도의 들노래가 전국대회에서 국무총리를 받은 날, 나는 당신에게 기쁨의 첫 입맞춤을 했고, 그것은 나의 내면 깊이 당신이 자리 잡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을도에 배가 닿자 침통한 아버지와 후줄근한 당신의 엄마가 나를 맞이하였는데, 당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니다. 당신 생각이 절로 나는데 당신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오빠, 그분들이 와서 내가 살던 초가집을 걷어내고 둥근 집을 지은 다음 나를 방에 감금하더라고요. 너릿재에서 충기를 난사해 그분 식구 두 명을 죽였다고, 나는 사형 선고로 받았어요. 사형수는 감금된 상태에서 살다가 언제 집행될지 모르는 일이지요. 이제 나는 박제된 인간이 되어 버린 걸까요. 너릿재의 서산마루 해가 나를 달군다거나, 노을도의 노을이 물든다고 해도 박제는 이런 감흥을 느낄 수 없겠죠. 오빠 아버지는 사문서유조 죄로 육지로 이송되었고, 오빠와 내 엄마는 노을도에 평생 올 수 없도록 그분이 묶어두었어요. 성하지도 않은 엄마를 그분들이 질질 끌어갔고, 오빠도 아마 노을도 선착장에서 육지로 돌려보냈겠지요. 사형선고로 나만 유폐시키면 되지 굳이 가족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오빠, 너릿재에서 했던 우리의 포근한 입맞춤은 오빠 뇌수의 기억에서 지우면 안 될까요? 사형수는 사형수의 삶을 살고, 오빠는 오빠 나름대로 삶을 사는 것이 각자의 길이 아닐까요.

오빠, 둥근 방에서 희끗희끗한 섬마을을 새벽마다 보고 있지만, 요즘

노을도가 이상하게 변하고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떠난 집 자리에 새로운 집을 짓고 있는 거 있죠. 그 집은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별반 다르지 않지만, 집의 규모도 크고 화려했을 뿐만 아니라, 크기와 모양, 색깔이 모두 똑같아요. 흡사 하얀 눈 위에 지어진 이글루와 같다고나 할까요. 예전 집들은 누가 사는 집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겉모습만 보면 아는데, 이번에 지은 집의 정체를 모르겠어요. 혹시 그 집이 오빠와 나를 위한 신혼집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노을빛이 신혼 방을 노랗게 물들면 오빠와 난 등을 기대고 오빠가 들노래 한 구절 메기면 내가 받아내고... 그러다가 노을빛이 우리의 얼굴을 달구면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빠랑 함께라면 얼마나 가슴 미어지는 일이겠어요.

안개가 겹겹이 뒤덮인 항구에서 당신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나 나나 당신을 만날 수도 볼 수도 없다는 처지는 매양 같았습니다. 당신이 유폐된 날 그분들은 노을도에 엄마와 나를 가지 못하도록 규정해 버렸습니다. 여객선 터미널에서 당신에게 가기 위해 노을도 배를 타려고 무수히 시도했지만, 그때마다 그 터미널은 엄마도 나도 그렇게 알아봐 주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가르쳐 주어도 우리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우리가 도표 속에 숫자나 그래프 위의 점 하나로 표기되고, 바코드 줄무늬 조합으로나 QR코드의 특수기호와 상형문자가 우리를 인식한다고 그것들이 나나 엄마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엄마와 내가 노을도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분들이 그 건물들이 그 인식기들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아무리 촌촌한 그물로 씌웠다고 하더라도 빠져나갈 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 당신에게 가서 당신의 시신이라도 내 품에 안길 것입니다.

안개가 가라앉은 바다를 보면서 당신의 엄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나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나의 엄마 이름이 당신과 같은 오시코라고 합니다. 엄마 오시코에 나의 연인 오시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듭니다. 아버지 대학 친구, 엄마가 그분들에게 쫓기게 되자 이름을 오시코로 아버지가 개명해주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엄마가 체포되었고 복역 중에 나를 교도소에서 출산했다고 합니다. 엄마 오시코는 육지에서 장기수로 당신은 섬에서 사형수로 나의 고향은 교도소, 이게 패러독스입니까? 아이러니입니까? 헛웃음이 납니다. 웃고 있을 내가 아닙니다. 당신이 무엇으로 규정되어 있던 나의 영원한 노을이고 네 잎 클로버입니다. 당신 조그만 참고 기다려 줄 수 있겠습니까?

오빠, 리스테리아균이 분해하고 있나 봐요. 이틀 전부터 분당 2배수로 세균이 내장부터 확장되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은 장을 완전히 장악하여 복부가 팽만해졌고, 균이 다른 장기로 이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빠가 나의 몸쓸 몸을 거두어주면 안 될까요? 그분들에게 나의 몸을 맡기고 싶진 않아요. 식중독균이 박멸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주거나, 불에 태워 세균 씨를 말살시켜 주세요. 아니면 시간을 거슬러 오빠와 나의 청춘이 살아있는 너릿재로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오빠와 나의 꿈을 거기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젠 그들이 위를 점령한 것 같아요. 다음이 심장인데... 오빠 장에서 부글

부글 죽 끓이는 소리가 들려요.

당신이 사는 원형 집 앞에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노을도 길을 그분들이 열어주지 않아, 항상 다녔던 우회의 배를 타고 건너편 섬에 왔습니다. 나는 이곳에 예견되지 않은 당신의 죽음을 대비해서 널을 준비해두었습니다. 널 배를 여러 개 잇고 널을 실은 다음 바다에 띄웁니다. 문제는 바다의 물길을 찾아내는 것인데, 나는 당신에게 가려고 바다를 건너기 위해 목숨 걸고 수차례 도전했고, 뗏목으로 폭포 낭떠러지까지 간 적도 있습니다. 결국, 최근에야 바다 폭포 길을 알아냈습니다. 나는 지금 열화상 카메라와 투시경 그리고 적외선 감지기를 이용하여 잠금장치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있습니다. 빛 온도에는 같은 값을 갖은 무리가 있기 마련이고 그 값을 조합해서 미분과 적분을 수차례 반복하면 정확한 수치가 산출됩니다. 공학 계산기가 생성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당신에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등근 방에 당신이 없습니다. 나는 코를 끄끙거리며 냄새를 맡으며 당신을 찾았지만, 나의 비염은 당신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빠, 5차원 최첨단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으로 옮기고 나서 몸속 균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요. 방에는 사방에서 빛을 프리즘으로 분산시킨 적외선 널이 있는데, 혹시 오빠 나의 몸을 흡수해 버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노을도 집들이 5D 프린터로 찍어낸 닳은 입체 모양이라 당신이 어느

곳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설마 당신이 바다로 해와 같이 떨어졌거나 노을과 함께 사라졌다면 나는 이제 어떻게야 한단 말입니까.

오빠, 마지막으로 노을빛에 오빠랑 물들고 싶었는데 완전히 우린 어긋난 것이죠. 그렇다면 내 영혼이라도 오빠의 뇌로 스며들어 오빠랑 하나가 되고 싶어요.

나는 당신을 우리 둘만의 새 터인 바다 폭포로 데리고 가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당신의 육체와 정신을 구속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네 잎 클로버도 마음껏 키울 수 있습니다.

오빠, 세균들이 심장까지 침투하여 숨이 거칠어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있어요.

도대체 누가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갈라지게 하는 거입니까?

오빠, 결국 우린 만나지 못하고... 오빠 꿈에 찾아갈게요.

우리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터전에서 당신과 함께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오빠, 적외선 널이 나를 품고 빛을 분산시키고 있어요.

당신과 나의 네 잎 클로버는 정녕 살릴 수 없다는 것입니까?

“다 부질없는 짓이다. 오시코가 등근 방에 들어간 날 유폐된 거나 다름없다. 네가 계속 찾으려 다니는 일은 너의 인생을 망가뜨린 결과밖에 안 된다. 노을도를 당장 떠나라. 오시코는 절대 만날 수 없다.”

“아버지께서 오시코와 나 사이를 왜 갈라놓은 것입니까?”

“한 번 유폐된 자는 절대 꺼낼 수 없는 거야. 오시코를 우리 가족으로 호적에 올렸을 때 너와 그녀 사이의 끈은 끊어진 거야. 가족관계가 연인으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규정된 것을 되돌릴 수 없는 일이야.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사형수와 교재를 허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더구나 그녀는 불구자에 감염자라 더더욱 너와는 맺을 수 없는 거야. 손이 해야 할 일과 손톱의 쓰임새는 엄연히 다른 거야.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어쩔 수 없이 오시코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 난 오시코 청춘을 지켜주지 못해서 목숨을 걸고 그녀를 찾고 다녔습니다. 그녀와 난 너룻재에서 우리의 꿈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난 그 꿈과 청춘, 클로버를 찾으려 다녔단 말입니다. 난, 오시코를 보지 않고는 절대 갈 수 없습니다. 그녀가 있는 곳을 가르쳐 주시란 말입니다.”

“오시코는 새 거처에서 처리할 거다. 아마 지금쯤 시신 소멸이 시작되었을 거다. 미련을 버리고 너의 삶을 찾아가거라. 엄마 오시코도 등근 방으로 모셔올 거야.”

“아버지 가족까지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너는 아직 어떤 것에 규정되거나 예속된 일이 없으니 노을도 있을 자격이 없다. 나는 여기서 윤희된 자들의 정신을 맑게 하고 영혼을 치유할 것이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규율의 정상화.....”



수필





아름다운 등대사진 수상작
윤기섭 - 어부의 해맞이

밸러스트



제7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수필

정 경 속 (정수연)

한차례의 태풍이 지나갔다. 여력이 남아있는 파도는 물굽이를 치며 종이 한 장도 용납하지 않을 태세다. 거친 물결은 뱃전에 부딪히며 아우성이건만, 배는 굳건히 버틴다. 산더미 같은 짐을 싣고도 기울지도 가라앉지도 않는다. 험난한 물길을 헤쳐 나가는 선박을 볼 때마다 항상 경이로움을 느낀다.

배는 엔진의 동력으로 나아가지만, 선체의 무게로 인한 중력과 뜨려고 하는 부력의 적절한 조화가 있어야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다. 배의 중심을 수심 아래로 낮추어서 부력이 모자라면 채워주고 중력이 넘치면 덜어내어 균형을 이루게 해 주는 것이 밸러스트의 역할이다. 조금이라도 평형이 맞지 않으면 배는 기울어지고 침몰되고 만다.

신안 앞바다에 가라앉아 있던 무역선의 배 밑바닥에는 약 팔백만

개의 동전이 실려 있었다고 한다. 그 동전이 선체의 중심을 잡아주어 전복을 방지해 주는 밸러스트 역할을 해주었다. 가야국의 수로왕비가 인도에서 험난한 풍랑을 헤치고 올 때도 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큰 돌을 여러 개를 싣고 왔다고 한다. 현대에서는 동전이나 돌 대신 해수를 유입시키거나 배출시키는 방법으로 워터 밸러스트로 균형을 유지시킨다.

균형이란 모든 사물의 중심점이고 전체를 유지하는 기본 원리다.

온 국민의 애도 속에 연초록의 젊음을 수장시킨 세월호 참사도 이 밸러스트의 평형수가 부족해 중심을 잡지 못해 침몰되었다고 한다.

화물 과적을 방지하기 위한 만재 홀수 선이 물에 잠기는 것을 숨기려고 평형수를 삼분의 일만 채웠다니 과욕이 부른 예견된 인재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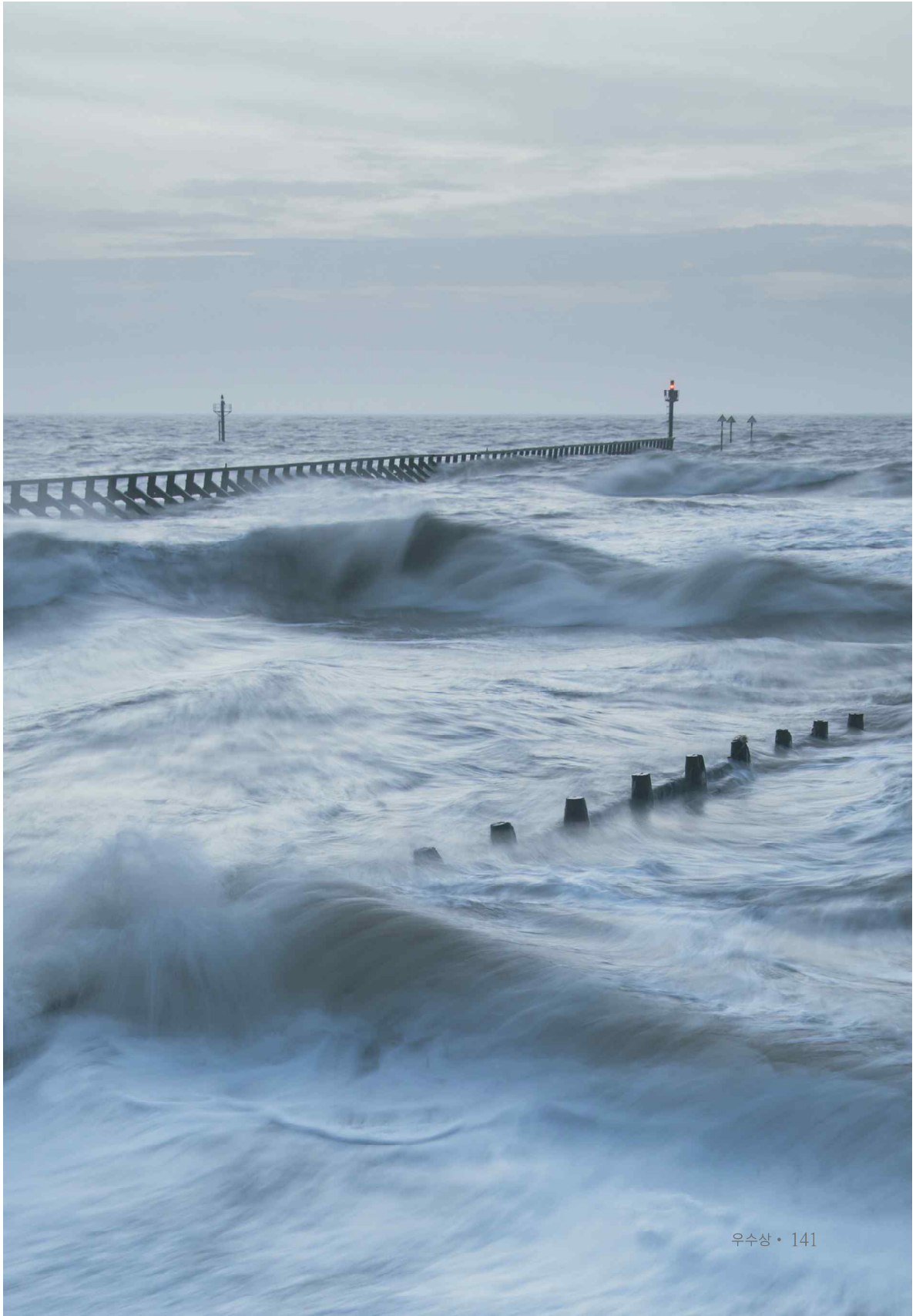
세월호는 우리 내면에도 존재한다. 평형수 대신 욕망으로 채워진 배는 적정선을 지키지 않으면 침몰할 수밖에 없다. 이기적인 욕망과 도덕적인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 아닐까. 그 욕망의 한계를 의식하고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으려는 균형 잡힌 시각이야말로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바람직한 삶이지 싶다. 하지만, 본능적인 욕구와 집착을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터이다. 생명체의 끈질긴 욕망이야말로 삶을 지탱해 주는 힘이기 때문이다. 기대감이 없다면 살아야 할 이유도 없지 않은가. 내일에 대한 희망은 현실의 고달픔도 잊게 해 준다. 지나치면 탐욕이 될 수도 있지만 삶의 원동력이 아닌가. 뭔가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간에겐 필요악일 수도 있는 것이 욕망의 두 얼굴이다.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엑셀처럼

욕망의 한계를 설정해 두고 본능을 넘어서려는 의지를 가질 때, 가속 페달과 감속 브레이크의 적절한 조화로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도 인생이라는 바다를 표류하는 쪽배다. 가정이라는 선체는 사랑과 책임감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사랑만으로 긴 세월을 함께 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살다 보면 풍랑 없는 날이 얼마나 될까. 해일이 덮쳐오는 어두운 밤길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는 등대처럼 세상 바다에서도 굳건한 중심이 있어야만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다. 누구 건 한 사람은 밸러스트의 역할을 해주어야 난파선이 되지 않는다. 선체 밑바닥에서 부력이 모자라면 채워주고 중력이 넘치면 덜어내어 균형을 유지해주는 부단한 노력을 희생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감내하는 것이 우리들 삶의 모습이다.

배의 중심처럼 나를 이끌어 주고 지탱해준 힘은 무엇이였을까. 어떤 논리로도 그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자식 사랑이다. 바다가 뒤집어질 듯한 심한 폭풍우에도 쓰러지지 않는다.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었고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주었다.

미 치엘 봄은 ‘타인에 대해 완벽하게 책임감을 느끼고 깊게 사랑하고 서로 엮이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자식을 가져야 한다.’고 이른다. 자식은 곧 나 자신이다. 그들 중 어느 하나가 나의 목숨과 맞바꿀 경우가 닥친다면 기꺼이 대신할 수 있는 절대적인 사랑이다. 그 선택에는 갈등도 망설임도 없다. 그들의 모든 것이 내 것이기에 같이 슬퍼하고 기뻐한다. 이 세상 어떤 행복도 자식으로부터 오는 기쁨에 비할



수는 없지 싶다.

인생 항로에서 부부가 함께 한다고 해서 힘이 배가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짐이 되어 삶의 무게로 엎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오랜 세월을 남편의 성공을 위한 뒷바라지에 지쳐가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다. 자식들의 장래를 걸었기에 굳건히 버틸 수 있는 끈기와 용기가 생겼다. 그러나 엇길로 나간 남편으로 인해 끝없는 인내를 요구할 때 삶이 피폐해지는 모멸감을 견디는 일이 일생 중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다. 가족들이 살던 집이 불륜의 아지트가 되어 유린되는 수모를 8년을 견뎠다. 내 삶의 모습이 낱알이 공개되고 아이들의 물건들이 수난을 당한다는 생각을 하니 온몸이 발가벗겨져 거리에 나앉은 참담한 기분이었다. 배신감으로 치를 떠는 그 순간에도 자식들의 아버지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나이 오십에 전임강사가 된 그의 대학에 알려질까 봐 너털 해진 자존심마저 자식들 발밑에 묻어버렸다.

분노를 눌러 참는 것과 분출시키고 싶은 갈등 속에서 내적 균형을 이룬다는 건 생살을 찢는 고통이었다. 불같이 치미는 울분으로 이성을 잃은 상태에서도 갈등 선 중심점에는 아이들을 세웠다. 현재의 내 행동이 뿌리의 자양분이 되어 자식 나무의 밑거름이 되리라는 생각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아이들이 학업을 마치고 결혼시킬 때까지 굴욕적인 삶을 견딜 수밖에 없었다. 당시에는 자식을 위해 참아내고 희생한다고 생각했지만, 참담하던 시절도 한 세월 감아 돌고 보니 그 길이 정답이었다는 걸 시간이 가르쳐 주었다.

인생을 산다는 건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이 있어야 굳건히 버틸 수

있다. 내 고통과 시련은 확고한 목적의식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눈비가 오고 사나운 태풍으로 집체 같은 파도에 휩쓸리기도 했지만, 가라앉지 않고 굳건히 버티게 해주는 항해술은 온전히 자식 사랑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길이야말로 나를 더 깊이 느끼는 시간들이었다.

폭풍이 몰아치는 캄캄한 바다에서도 나를 지켜주는 등대가 되어 인생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준 길잡이였다.

약한 것이 여자라지만, 자식을 품고 보면 더없이 강해지는 것이 모성이다.

내 어머니의 인내와 희생으로 내가 존재했듯이, 나무의 뿌리처럼 애절한 사랑과 희생으로 가슴 저린 모성이 있기에 험난한 세상 바다에서도 생명의 근원이 지켜지고 삶의 영속성이 있는 것이리라.



굽은 등대



제7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수필

김미자

웨딩마치가 울렸다. 나의 걸음은 다른 신부의 걸음보다 느렸다. 절뚝 걸리는 아버지의 보폭에 맞추기 위해 느리게 걸어야 했다. 노트르담의 쫘추만큼 등이 굽은 아버지가 부끄럼 반, 당당함 반으로 웨딩카펫 위를 절뚝거리며 걷는 동안 식장에는 긴장된 적막이 차올랐다. 세 딸을 앞서 시집보낸 아버지는 그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식장에 들어서는 혼주가 되셨다.

오남매의 막내인 나는 아버지의 온전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철이 든 후 시선에 들어온 아버지의 등은 이미 둥그스름한 기억자 형태로 굽어 있었다. 마흔이 된 어느 날 논에서 쟁기질을 하다 허리를 다쳤지만 괜찮으려니 방심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고 한다. 병원 신세를 오래지고도 후유증으로 아버지의 상체는 굽어지고 툭 불거진 무릎

에선 날마다 피고름이 나왔다. 어머니는 서러운 감정을 억누르며 한지를 돌돌 말아 피고름을 수시로 뽑아내었다. 그건 남편의 고름이 아니라 어머니의 한이었다. 내가 초등학교를 거쳐 중 고등학교를 다녔어도 집에서 변하지 않은 단 하나는 아버지의 굵은 등이었다.

고갯마루 산 아래에는 저수지가 있었다. 저수지 수문에서 가까운 도랑가에 우리 논이 이웃해 있었다. 아버지는 아침저녁으로 논물을 대러 간다며 지팡이와 살포를 챙겨들었다. 한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다른 손으로 살포를 뒷집 진 채 밭걸음을 옮기면 등판은 이내 구슬땀으로 범벅이 되었다. 움켜진 지팡이가 몸을 지탱했지만 굵은 등 때문에 땅만 보고 걸어 금방이라도 고꾸라질 듯 위태로웠다. 농사일은 어머니와 큰오빠의 몫이었고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다. 그래도 논물 대는 일은 가장의 본분이라 여겼는지 살포 자루를 손에서 놓지 않으셨다.

할머니는 아들이 불구가 되면서 삶은 새끼줄마냥 쇠약해졌다. 수시로 봉초담배를 말아 끼운 곰방대를 입에 문 채 퇴약별이 쏟아져 내리는 갯바닥 자갈마당을 들락거렸다. 굵은 등으로 거동이 힘겨운 아버지를 볼 때마다 속이 타버린 할머니는 바닷가 물살 앞에 서서 한 움큼의 담배 연기를 허공으로 날리며 혼자 중얼거렸다.

“요새 같은 시상만 되었어도 저렇게 불구가 안됐을 거.”

닷새 장날이 오면 아버지는 일찍부터 포구로 나가 나룻배를 손보았다. 어머니는 섬에서 태어나 바닷가 육지로 시집온 천생 갯가 여자였다. 썰물로 훤히 드러난 갯벌에서 썰 새 없이 굴을 찍고 조개를 굽었다. 틈날 때마다 찍어 곱삭힌 조개젓갈과 어리굴젓을 닷새 오천장날

에 내다팔았다.

노 젓는 일은 아버지가 했다. 유일하게 아내와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바깥일이었다. 신체가 멀쩡한 사람이 노를 저으려면 상체를 구부정하게 굽혀야 한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 아버지가 노를 젓기 시작하고 배가 미끄러져 물살을 타면 어머니는 뱃머리에 앉아 포구에 우뚝 세워진 등대를 지켜보곤 했다. 어머니는 불구의 남편이 노를 젓는 뱃전에 앉아 있는 것이 미안하면서 행복했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자식들에게 말하곤 했다. 한 가정의 반듯한 등대가 되고 싶어 했던 남편의 간절한 마음을 읽어낸 것이다.

등대는 혼자서 바다를 지킨다. 거센 태풍이 몰아치고 칠혹 어둠이 밀려와도 바다를 향해 꼴꼴이 서있다. 등대가 있어 물새들이 길을 찾고, 바람도 잠시 멈추고, 파도도 밀려왔다 밀려간다. 등대가 없다면 배들은 항로를 이탈하거나 위험해진다. 갈매기도, 파도도, 바람도, 모두 제 역할을 잃을지도 모른다. 등대는 그렇게 바다를 위해 살고 바다를 지키는 고독한 운명으로 세워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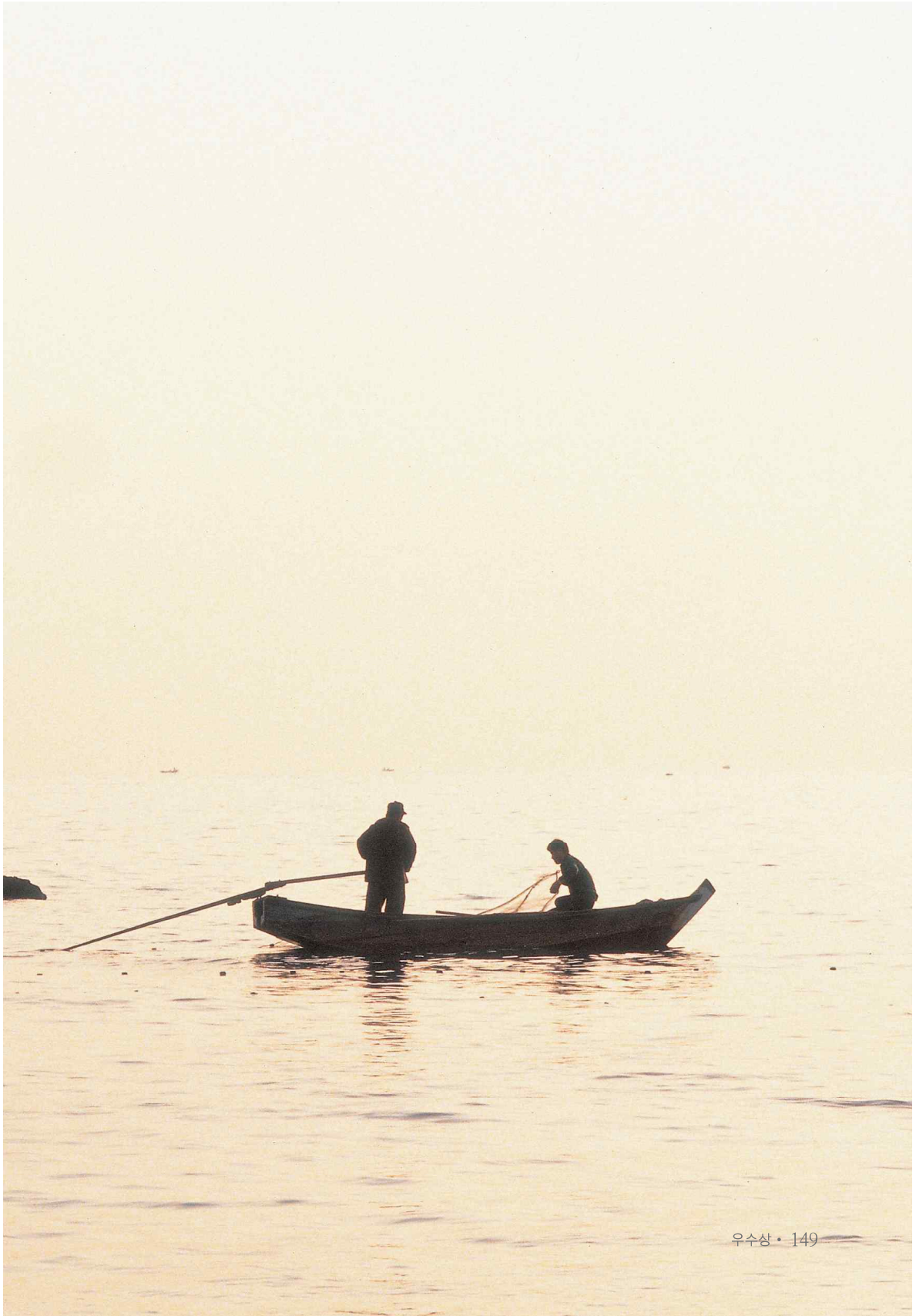
한 집안의 가장도 마찬가지다. 가정에서 남편은 등대의 역할을 한다. 평생 가족의 일상사에 불빛을 비추고 역경과 고난의 세파가 닥쳐와도 그의 책무를 지켜나간다. 가장을 집안의 기둥인 대주(大柱)라고도 하지 않는가. 그러나 가족을 책임지고 싶은 아버지는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등 굽은 처량한 신세였다. 하지만 마음만은 우뚝 서있는 등대처럼 당당한 가장의 꿈을 꾸었으리라 믿는다. 장터가 있는 농배항 등대를 바라보며 어쩔 수 없는 심한 자격지심과 함께 의지의 불빛을 지키려 했을 것이다.

앞산 산길을 넘어 제방을 한참 따라가면 매미 굴이 나왔다. 매미 굴은 울창한 숲과 유난히 우렁찬 매미소리 때문에 붙여진 동네 이름이다. 그곳에는 바다가 흰히 내려다보이는 산비탈에 참외밭이 있었다.

아버지는 참외가 노랗게 익어가는 여름이면 마을 사람들처럼 꺾보리 서너 되를 어깨에 메고 붉은 감자밭을 지나 앞산을 넘으셨다. 어머니가 유난히 좋아하는 참외를 사기위해서다. 아침밥을 먹자마자 서둘러도 삼복더위 긴 해가 황혼으로 물들 쫘에야 돌아오셨다. 어머니는 참외밭 외출이 아버지에게 하루 고역인 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다. 그것이 비록 몸은 굵었지만 휘어져서는 아니 될 가장의 체면을 세워주는 일이라 여긴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휘어진 것들이 도처에 있다. 구부러지고 휘어져야만 제 구실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것들이다. 호미는 머리 쪽이 기억자로 굽어 사정없이 올라오는 밭고랑 잡풀을 머리 힘으로 뽑아낸다. 지게도 굽어야 한껏 짐을 나를 수 있다. 하키 선수들이 사용하는 스틱도 굽어 있다. 전봇대가 꺾꺾이 서야 전선들을 이을 수 있다면 닳은 굽어야 제대로 땅에 박혀 요동치는 배를 안정시킨다. 이처럼 굽은 것은 때때로 곧은 것보다 더 절절한 위로와 믿음과 의탁을 전하는 언어가 된다. 직(直)이 있다면 굴(屈)이 있는 법. 성경에도 굽은 것은 굽은 대로 펴진 것은 펴진 대로 사용하라 하셨다. 전통가옥을 짓는 목수들은 직재는 직재대로 곡재는 곡재대로 목조 건축 용도에 맞게 사용한다고 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솜씨 좋은 대목은 사찰이나 정자를 지을 때 일부러 굽은 기둥을 세워 못난 나무의 굴미(屈美)를 아낀다고 한다. 아버지의 굽은 등은 내 삶을 비춰주는 등대이다. 비록 등대가 직립





이고 아버지가 굶었지만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허리 굽혀 받쳐주는 버팀목이다. 막내딸이 학교에 가면 운동장 한 모퉁이에 웅크리고 앉아 교실을 지켜보던 자상한 아버지, 딸의 팔에 오히려 매달리듯 붙잡고 결혼식장으로 들어온 당당한 아버지, 아버지의 굶은 등은 부끄러운게 아니라 소중히 간직할 가르침의 말이라 여긴다. 태풍에 무너지지 않고 파도에 버티며 서 있는 고향 포구 등대를 지켜보았을 아버지는 분명 “난 이 집의 대주이다”라고 외쳤을 것이다.

결혼식이 진행되는 동안 내 머릿속은 내내 하얏다. 시댁에서는 남편을 제외하고 아무도 아버지의 형편을 알지 못했다. 상견례 자리에 아버지가 불참하셨기 때문이다. 몸이 불편한 것이 죄도 아니고 일부러 알려야 할 일이 아니었다. 꽃처럼 고운 신부와 추하게 등 굶은 아버지의 입장이 끝나자 등 굶은 혼주에게 마음 졸인 하객들은 더없이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었다.

딸과 함께한 아버지의 예식장 발걸음은“곧게 자라라”라는 몸말이다. 남의 가문에 시집가서도 굴하지 말라는 부탁이었다. 결혼식장의 얼마 되지 않는 거리가 아버지에게는 파도를 이겨내며 아내를 농배항까지 태우고 오가던 뱃길보다 더 멀었을 것이다. 한발 한발 내딛는 발에는 거룻배 노를 저었을 때보다 더 용심이 들어갔을 것이다. 아버지의 그 두 모습이 있어 나는 곳곳이 살아간다. 지금도.

지난 추석 때 아버지의 산소를 찾았다. 세상을 떠나면 누구든 묘소라는 둥그런 등을 갖는다. 사고 후 한 번도 반듯하게 눕지 못했던 아버지는 저승에 가서야 비로소 마음으로라도 허리를 펴낼 것이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순간 허리가 저절로 펴지면 얼마나 좋을까.

허리 굽은 어르신을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든다.
작은 포구의 등대를 만나면 눈길이 저절로 고향 쪽으로 향한다.
살포를 뒷짐에 지거나, 노란참외 자루를 어깨에 걸치고 삿잡대문을
절뚝거리며 나가고 들어오시던 아버지가 눈에 선해서이다. 이젠
포구의 꺾꺾한 등대가 그렇게 앞뵈지만은 않다.



던짐줄



제7회 등대문학상 우수상 / 수필

유명숙

“휘이익”

어둠 속을 뚫고 던짐줄이 날아간다. 해무를 가르며 떨어지는 물체가 별똥별 같다. 부두에서 대기하고 있던 선원이 재빠르게 반사체 옷을 입은 줄을 찾아 잡아당긴다. 가는 줄 끝에 묶여있는 굵은 핫줄의 모습이 드러난다. 네댓 사람이 매달려 무거운 줄을 당겨 비트에 건다.

선박이 쉴 수 있는 어머니 품이 부두다. 거친 바다에서 돌아온 선박을 부두에서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핫줄이다. 무거운 핫줄을 쉽게 정박지로 내보내기 위한 것이 바로 던짐줄이다. 줄을 정확한 위치에 잘 던지는 것도 오랜 연습 끝에 이루어진다지. 그것을 빨리 찾아 잡을 수 있느냐에 따라 빠른 접안이 결정된다. 그렇지 않을 때는 기상악화 등의 상황에서 선체가 손상될 수 있다.

날렵한 던짐줄을 보면 친정어머니 생각이 난다. 그녀의 택호는 중평택이다. 작은 들판을 낀 바닷가 마을에서 산촌으로 시집온 날, 집안 어른이 지어 주셨다. 작은집 할머니는 여위지만 다소곳이 앉아있는 모습이 몽돌처럼 야무져 보였다고 자주 말씀하셨다. 집안 어른들이 새색시 대면한다며 방문을 열 때마다 일어서서 허리를 굽히는 모습이 암전히 굴러오는 파도 같았으나. 어촌과 산촌의 괴리감보다는 생소함을 마냥 신기해하던 참한 새댁이었다고 옛 이야기하듯이 들려 주셨다.

몸이 약해서 큰 집 살림을 맡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했다. 덧붙이는 말씀이 너는 나이를 먹을수록 네 어미를 똑 닮았다고 하셨다. 고기보다는 생선을 좋아했으며 푸성귀보다는 해초를 즐겼다. 한 번씩 친정에 다녀오면 건어물을 풍성하게 가져와서 산골 아낙들에게 나누어주고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다.

“바다는 저 들판보다 더 많은 먹을거리를 내놓아. 얼마나 부지런히 일하느냐에 달렸어.”

한량 없는 양식을 제공하는 바다를 들먹일 때는 새까만 눈동자가 더 초롱초롱했다. 삶을 연명할 수 있는 양식만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으랴.

중평 택은 풍파를 겪으며 세월과 함께 산촌 아낙으로 여몰어갔다. 호리호리한 겉모습과는 달리 강단이 있었기에 중평 양반과 뜻을 맞추어 큰 집 살림을 꾸려나갔다. 홀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동생과 시누이 건사하랴. 많은 기일 챙기랴. 가난한 살림에 무엇하나 쉽지 않았으리. 해가 수평선을 넘어가고 사위가 어둠에 갇히면 등댓불이 칠후 같은

바닷길을 열어준다는 믿음으로 헤쳐나갔다.

딸만 넷을 낳은 당신 친정어머니의 지난한 삶을 보았기에 자신이 낳은 아들 넷에 딸 하나, 정말 감사하며 살았다지. 금빛 찬란하고 은빛 신비로운 윤슬만 있었을까.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한 아들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돌아왔을 때 쪽빛 천을 펼쳐 놓은 듯 잔잔한 바다 아래에도 커다란 해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덮치는 해일을 품었다. 아직 미성인 자식을 두고 모진 병에 걸렸을 때는 얼마나 암담했을까. 하지만 너울이 심한 날에도 좌절하지 않고 중심을 최대한 낮추어 견디었다.

몸을 돌보지 않는 성품인지라 중평 댁은 좋은 일 굵은일 마다 않고 언제나 앞장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졌다. 옆에서 지켜보던 가족들의 쓴소리에도 베풀 수 있음을 감사했다. 사는 동안 아래 사람이나 위사람을 대하는 푸근한 미소와 마음 씀은 항해를 마친 크고 작은 배가 쉽게 접안하여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던짐줄이었다.

한 집안을 이끄는 맡겨느리로 사십 년의 세월을 다지다가 이승의 옷을 벗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빈자리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다. 지키지 못한 죄스러움으로 다니던 직장을 접고 큰집 살림을 맡았다. 자식은 부모의 뜻을 받들어 이어가고 효도하면서 봉양해야 하는데 자신이 할 수 있는 한계점에 도달했다. 육 년 동안 생활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받을 일굴 수 있는 여인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길어지는 시골 생활에서 벗어나고픈 갈망뿐이었다. 집성촌의 큰집을 지키고 싶어 하는 아버지의 속마음을 모르는 체 하고 서둘러 결혼

약속을 했다.

산촌에서 바다가 좀 더 가까운 곳으로 시집을 갔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바다를 향하여 목을 길게 빼고 살았다. 젊었을 때는 짧은 생각에 나를 희생하며 어버이를 공양했다는 자긍심이 강했다. 부모되어 돌아보니 참으로 송구스럽다. 삶이 여물어 갈수록 내 부모님의 그 무량한 주머니를 탈탈 털어 쓰기만 한 철부지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후회는 항상 뒤늦게 따르는 모양이다.

오랜만에 왔다. 어머니의 안태고향이다. 찰방찰방 들어왔다 밀려가는 파도는 내 손을 가만히 가두었다가 드러낸다. 물속에서 어룡거리는 손이 어머니 손을 닮았다. 살이 없는 손등에 길쭉한 손가락. 파도에 손을 담그면

“내 새끼 왔구나.”

하면서 토닥거리는 것 같다. 손가락의 통증도 아린 마음도 열어진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휴가를 가만히 불러낸다. 파도 소리 들리는 바닷가에 방을 얻어 단둘이 지냈다. 어머니의 숙면을 위해 낮에는 되도록 깨어있게 하려고 애썼다. 낚시꾼들이 버리고 간 줄에 갯지렁이를 끼워 장어를 낚고 홍합을 따서 소화가 잘되는 부드러운 음식을 만들어 드렸다. 해 저물녘에는 어머니를 업고 지중지중 물가를 걸었다. 허깨비같은 무게를 딸 등에 부리고 이따금 뱉는 기침으로 숨을 쉬고 있음을 알렸다. 어머니의 병이 멀쩡한 내 몸을 거쳐 발가락 사이로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기를 소원했다. 밤이면 등대의 섬광을 바라보며 힘없는 소리로

“누구에게든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시고는 내 등을 다독였다. 당신 삶의 철학은 모두 바다에서 생성되었을 게다.

목욕을 시켜드리면 순일한 눈매로 쳐다보며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날은 아기처럼 새근거리며 잘 주무셨다. 잠이 들었다가 느닷없이 뺨는 기침에 등을 쓸어내리면 살점을 모두 내어준 큰 물고기의 등뼈가 만져졌다. 잡은 손이 얼음처럼 찼다. 몸의 피를 뿔아 어머니의 온몸에 돌게 하고 싶었다.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 드리고 싶어 처네로 엮고 방을 서성거렸다. 옛날 우리에게 그리하셨듯 나직이 ‘섬 집 아기’를 불렀다. 참빗으로 머리를 빗겨 드리고 손톱을 깎아 봉숭아 꽃물을 들였다. 노을빛 꽃물이 든 손가락을 곁며 건강해져서 내년엔 다시 오자고 약속했다. 고운 꽃물이 반달만큼 남았을 때 어머니는 돌아가셨다. 파도는 들고 나고 들고 나고 하더니만.

양가 부모님 모두 돌아가시고 지금은 고아다. 부모님께 다 하지 못한 효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어디서든, 누구든 도움을 청하면 손을 잡는다. 가까운 곳에 자식을 위해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내고도 외로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이 계신다. 이 땅에 뿌리내리려고 발버둥 치는 결혼이주여성들도 많다. 모자라지만 그들에게 어머니 말씀처럼 희망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려고 노력한다.

할머니가 되어 유소년들과 무릎을 맞대고 눈을 맞추어가며 선현 미담을 들려주는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활동을 한다. 핵가족화로 인해 단절되어 가는 조손 세대의 문화를 소통시키고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높이고자 국학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아이들의 가슴에 작은 등대 하나 심어주고 자라서 불을 켜게 하고 싶어 더위에도 태풍

주의보가 내려도 길을 나선다.

기쁜 일이나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어머니의 산소보다는 바다를 찾는다. 당신 삶의 철학이 생성된 바다는 응송깊다. 잔잔한 파도에 손을 담그면 몸과 마음이 평온해진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 속에 고단한 삶을 풀친다. 힘차게 달려오는 파도는 담금질하고 물러나는 파도는 내려놓으라 한다. 별똥별 같은 던짐줄이 어른거린다.





아름다운 등대사진 수상작
원당희 - 나사리 등대

제7회 등대문학상 수상 작품집

발 행 일 : 2019년 12월 6일

발 행 인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 유상준
울산항만공사 사장 고상환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원장 박계각


발 행 처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울산항만공사 대외협력팀
한국항로표지기술원

주 소 : (울산지방해양수산청)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88번길 6
(울산항만공사)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고래로 271
(한국항로표지기술원)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1길 13-9
다올비즈니스센터 6층 601호

전 화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T.052-228-5680
(울산항만공사) T.052-228-5374
(한국항로표지기술원) T.044-850-7512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울산항만공사**

 **한국항로표지기술원**